

전보삼 회장 (한국박물관협회)
"만해 정신을 배우세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16·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2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85호 2014년 3월 26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깨끗하게 하라

"법인법, 총체적 손질 필요하다"

시행 난관 조계종 법인법, 중앙종회서 실효성 질타

조계종 승려와 사찰이 만든 법인들을 종단 등록해 관리하는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임시회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책 질의를 통해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종회의원 영담 스님은 "만약 종단 스님이 기존의 법인을 인수해 운영한다면 그 법인도 종단에 등록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사찰과 종단 재산이 출연된 법인만을 법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애초부터 법인법을 반대한 이유가 법인의 정의부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장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동행부터 법인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법을 제정한 이유는 선학원과 대각회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을 등록해 종교행위를 하는 법인만을 종단이 관리해야 한다. 공공행위를 하는 외부 법인들은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법인법을 총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직 스님도 "법인법을 만든 것은 종회의원들이다. 잘못된 것은 살펴가야지 질책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간 등록 홍보도 중요하지만 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 같은 법인법에 대한 수정이 오는 6월에 열릴 중앙종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사견을 전제로 종헌 9조 3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종헌 9조 3항에는 '종단 승려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 하에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고 기술돼 있다.

종훈 스님은 "종헌 9조 3항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계종 스님이 설립한 법인이 아닌, 재단이 출연한 법인 등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은 제외시키는 개정도 필요하다"며 "모법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등록 3개월 연장했지만
종단 법인 정의·규제 조항 등
문제 많아… 전반적 개정 시급

법인법 시행 집행부서인 총무부가 법인 등록 시행을 1년 연장하려한 이유도 여기 있다. 현재 법인법으로는 제대로 된 법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학원과 갈등 중인 수덕사 측 주장으로 3개월 연장에 그쳤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197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현재 수덕사 측은 법인법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종회가 이번 회기에서 총무원법 제24조에 명시된 '선학원 권리 보장'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법인법 시행으로 선학원에 법인 등록 압박을 하기가 용의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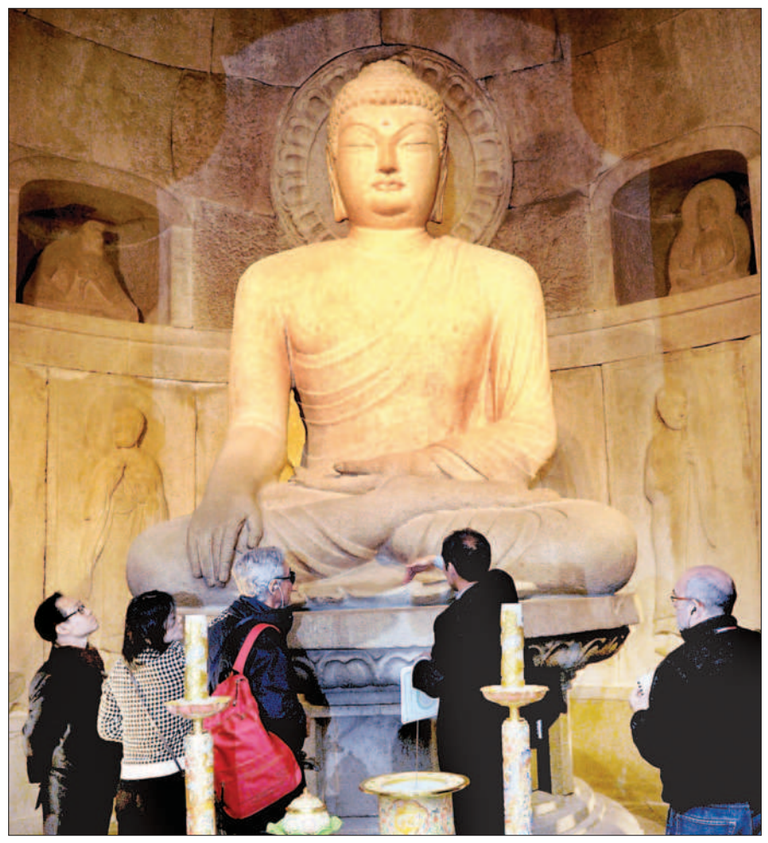
이날 종책질의에서도 정범 스님은 법인법 시행에 대한 종단 의지를 비롯해 종립학교법인 현황 파악과 법인법 적용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일부 스님들은 종단이 선학원과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장명 스님의 서면 질의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스님은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총무원에 보고·승인해야 하는 것(제12조 정관 개정) △법인 임원을 총무원장이 요구하고 이사회의 처리를 강제하는 점(제20조 임원 해임) △법인 산하 사찰 등록을 금지하는 것(제18조) 등은 법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지적하며 총무원 법인법 개정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현재 법인법 공포 이후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 현황 확인과 법인 등록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에서 법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이어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 현황을 정부 각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조사해 올 상반기 중으로 법인 전체 현황 파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인법 개정을 적극 수렴해 법인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굴암 본존불 대좌를 살펴보고 있는 조르지오 크로치·마르고띠니 박사와 문화재청 관계자들.

"석굴암,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20일 문화재청·해외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올해 초 붕괴 위험을 지적받았던 경주 석굴암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정밀조사 결과 구조적인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석굴암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석굴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월 20~21일 유네스코(UNESCO) 자문기구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위원장 이혜은)와 함께 경주 석굴암 국제전문가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3월 20일 진행된 현지조사에는 이탈리아인 조르지오 크로치박사와 클라우디오 마르고띠니박사가 참여했다.

조르지오 크로치 박사는 1995년 석굴암 석굴을 진단했던 구조안전분야 전문가로 현재 이코모스 건축유산 구조분석복원위원회 명예의장이다. 또한 크로치 박사는 피사의 사탑, 이집트 카프라 피라미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 등 주요 문화재 복원에 참여하였다.

마르고띠니 박사도 이탈리아 환경보호연구소 지질학연구부 소속으로 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사업, 요르단 페트라 암석 붕괴 모니터링, 몽골 바양노르 고분 보존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유네스코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전문가다.

21일에는 이들 전문가들과 함께 석굴암 구조안전점검단 단장인 김동욱 위원(문화재청 건축분과위원회 위원장) 주최하게 국내 안전진단 전문가와 석굴암 석굴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계종 문화부 부장 혜일 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관계자 등 불교계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굴암이 구조적인 문제가 없으며 석굴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동호 단장은 "해외 전문가의 진단 결과 현재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하반기 조사에서는 돔 천장을 비롯한 석굴 전체로 범위가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무형유산' 종목 직접 지정한다

조계종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계종은 올해부터 가치가 높은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직접 종목 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고시했다.

조계종은 먼저 사찰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불교무형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연중 수시로 접수받는다. 이를 통해 종단 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라지고 있는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과 계승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접수방법은 본·말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승자나 전승단체 등은 종단에서 배포한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교구본사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정은 종무회의를 거쳐 총무원장 스님이 한다. 결과는 6월 및 12월에 통보한다.

신중일 기자

천태종 제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 임명

3월 27일 취임식…감사원장에는 용암 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제 17대 총무원장에 춘광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는 3월 21일 충북 단양 구인사서 재적의원 30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96차 정기종의회를 열고 '총무원장 춘광 스님·감사원장 용암 스님 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신임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정 스님의 큰 뜻을 받들고 사부대중의 눈과 귀가 되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종단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사부대중의 수행풍토 진작, 교육·포교·문화·사회복지 등에 힘쓰겠다"고 결의에 찬 어조로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용암 스님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종무행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종정 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무행정의 기강해이를 살피고 종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게으름 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천태종 종법상 총무원장과 감사원장 스님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4년이다. 이에 두 스님은 3월 21일부터 4년 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종회 안건 상정에 앞서 도용 종정 스님은 3월 16일 새 총무원장에 춘광 스님, 감사원장에 용암 스님을 추천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임명된 총무원장과 감사원장 취임식은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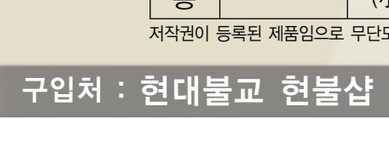


신임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971년 3월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 득도 △동국대 교육대학원 철학과 수료 △대구 대성사·서울 성룡사·강릉 삼개사·부산 삼광사(제3·4·5대)·서울 관문사(3·4대)·캐나다 토론토 평화사 주지 역임 △스리랑카국립승가대학 명예철학박사 학위 취득(1997년) △교화원 의전실장, 규정부장, 교무부장 역임 △2013년 2월 2급 종사 법계 품수 △제14·15대 천태종 감사원장 △현 (재)대한불교천태종 이사,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985호 INDEX

시방세계 5
조계종 첫 법계별 연수교육 현장



종합 2·3
백담사 기본선원 지정 및 조실 추대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다시 좌절

함께가요 강의실 8
니체와 불교- 박찬국 서울대 교수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가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지금 우리 절에서는 – 신도 중심 사찰 잠실 불광사



지난해 10월 완공된 잠실 불광사 신축법당 전경.

불광사 문화강좌로 오세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바로 잠실 불광사가 신축법당을 완공 한 것. 지난 2005년 10월 불광중창불사 선포 이후 신축법당 불사에는 8년 간의 봉사와 불자들이 모은 300억 원이 들어갔다. 신축법당 불사에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성금까지 신도 2만 여명이 '내가 불광사의 주인' 이라는 생각으로 불사에 동참했다. 신축 법당 준공으로 불광사는 '제2의 불광운동' 이라는 새로운 시작점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잠실 불광사는 한국 불교 도심 포교의 개척자로 꼽히는 광덕 스님(1927~1999)이 1974년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 를 모토로 불광회(佛光會)를 창립한 것이 모태다. 도심 정기법회와 함께 불교 교양지 월간 〈불광〉 창간, 대학생불교연합회 조직, 경전 한글 번역, 찬불가 제작, 사회봉사활동 등 '불광 운동' 을 활발하게 펼치며 산중에만 머물던 한국 불교의 영역을 넓혔다.

불광회가 1982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세운 불광사는 도심 포교당과 도심 법회의 새로운 모델이 됐다.

10만회원 열정모아 지난해 신축법당 완공

불화그리기 · 빨리어 등 교양강좌 '다채'

불광회에는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회원들은 법등(法燈)이라 불리는 지역조직 240여개를 구성해 법회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올해 창간 40주년을 맞은 월간 〈불광〉은 초기부터 탄허 스님, 이어령 교수 등 당대의 저명인사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문 교양잡지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불광사는 사찰 내에 교육원을 세워 다양한 문화강좌를 여는 것이 특징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불광교육원에서는 초기불전 읽기 모임이 열려, 빨리어로 된 불교경전을 독송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매주 목요일에는 '현진 스님과 함께 하는 빠알리어 산스크리트어 강의' 가 진행된다. 강좌는 2월 27일부터 시작됐는데, 무료로 정원 50명을 모두 채울 정도로 인기다.

4월 1일 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4시 김수정 아카데미선그림 실장의 지도 하에 3개월 과정의 불화그리기 강좌가 열린다.

또 이번에 신축된 불광사 4층은 불광선원으로 3월 7일부터 무각스님의 지도 하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씩 많은 수행자들이 정진하고 있다.

불광사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들과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한데 묶어 매주 일요일 불광생태길 라잡이 활동을 펼친다. 참여한 학생들은 인근 공원과 사찰 주변 숲속에서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1박 2일 캠프를 진행한다.

문화포교의 일환으로 2014년에는 바라밀 문화기행도 진행된다. 3월 27일에는 하동 칠불암, 4월 10일과 24일에는 진안 · 장수 지역의 마이산, 신광사, 5월 15일과 28일에는 논산 지역의 개태사와 관촉사 등에서 문화기행이 진행된다. (02)417-2551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담사 기본선원 지정, 근원 회귀"

무산 스님, 기본선원 조실 추대

기초선원장에 신룡 스님 임명

1~4학년 모두 백담사로 통합

종단 內 유일 기초선원 '발돋움'



신흥사는 3월 14일 '백담사 기본선원 지정 개원 및 조실 추대식' 을 봉행했다.

조계종립 기본선원 조실에 설악 무산 스님이 추대됐다. 종단 기본교육을 책임질 수행중심도량인 기본선원이 동화사에서 인제 백담사로 이전 · 통합했다. 기본선원장에는 백담사 무금선원장인 신룡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우송)는 3월 14일 '백담사 기본선원 교육도량 지정 개원 및 추대식' 을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백담사 기본선원은 현재 확장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사가 마무리되면 올 가을부터 백담사에서 기본선원 1~4학년 학인 스님 모두가 안거를 할 수 있다. 불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봄철 교과안거는 신흥사에서 1, 2학년 학인 스님 62명이, 동화사에서 3, 4학년 학인 스님 62명이 공부한다.

이 같은 환경 조성은 북산 선맥을 계승하고 있는 설악 무산 스님의 원력에 기인한다. 스님은 백담사 무금선원과 신흥사 향성선원을 개원한데 이어 기본선원을 백담사로 일원화하는 등 선풍 진작에 힘썼다.

이날 추대식에서 설악 무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백담사 종립 기초선원 지정은 곧 '귀원정종(歸源正宗)' 임을 강조했다.

설악 무산 스님은 "설악산이야 말로 도의국사가 선법을 전한 우리나라 선종의 남상지이자 울흥지인데, 이 산중에 기본선원 근본도량을 설치한 것은 마땅히 근원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좋은 집만 지어놓는다고 찬란한 역사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참다운 사상과 정신의 계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돈관 스님은 축사에서 "설악산은 일찍이 조계종 종조 도의 선사께서 선풍을 일으킨 진전사가 자리잡고 있어 참선수행의 발원지로 존중받았다"면서 "무산 스님의 무애자재하신 선풍이 불교의 앞길을 환하게 비출 것"이라고 축원했다.

또한 신임 기본선원장 신룡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선원 학인 스님들은 옛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겨 유훈이 어긋하지 않도록 가슴깊이 담아야 할 것"이라며 "일상이 곧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팔공총림 동화사 차기 주지 효광 스님

방장 진제 스님, 20일 임회서 지명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차기 주지에 종정예경실장 효광 스님〈사진〉이 내정됐다.

동화사는 3월 20일 오후 경내 설법전에서 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팔공총림 방장 진제 스님(조계종 종정)은 임회에 참석해 효광 스님을 차기 주지로 지명했다.

진제 스님은 "현 주지 성문 스님은 지난 4년간 대구불교와 동화사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면서 "차기 주지로 금당선원장 효광 스님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동화사 대중이 화합하지 못하고 음해하는 일이 있었다. 다시 음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발본색원해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림법은 주지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방장이 추천하면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문스님의 임기는 5월 24일까지다.

한편 효광 스님은 도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1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전국의 선원에서 52안거를 성만했다. 봉암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화사 금당선원장과 종정예경실장 소임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BBS불교방송 시청자위원회 구성

1차 회의서 위원장 진명 스님 선출

BBS 불교방송이 2014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본격 개시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

불교방송은 3월 18일 마포 다보빌딩 15층 회의실에서 제1차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조계종 전 문화부장 진명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이채원 사장은 조계종 전 문화부장 진명 스님과 김정특 전 춘천불교방송 사장,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박준영 전 국악방송사장, 윤홍섭 전 MBC보도제작부장, 동국대 전략홍보팀 유권준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밖에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는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김무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 김찬겸 변호사, 최용춘 한국교수불자회 회장 등 모두 11명이 선임됐다.

제1차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정체성 확립과 함께 청년층 불자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통일, 다문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화두가 불교적으로 투영된 프로그램 제작 등도 요청했다.

정혜숙 기자

"출가자 감소 대책 마련"

실승 미래사회硏, 주요 사업계획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종책연구기관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에 가섭 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이 취임했다. 이에 가섭 스님은 3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2014년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사찰 유휴토지 활용방안 연구 △출가자 수 감소의 원인과 대책 연구 △승려 생애주기와 종단 인적자원의 활용 고찰 연구 등의 연구 · 조사사업 등을 실시한다.

특히 '출가자 수 감소의 원인과 대책 연구' 는 출가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조계종단의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 출가자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가섭 스님은 "5~6월 경 종단 행자교육원 등 출가자 현황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고 6~8월 보고서 작성 및 수정작업을 진행해 8월말 연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출가자 감소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출가자 수 증대에 따라 승려의 사회적 위상과 자질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스님은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종단 현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종책 공모사업' 을 실시하며 지속사업으로는 법령개선 사업과 국비 지원 연구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조직 및 홍보사업을 위해 비상임연구원 위촉을 10여명 내외로 확대해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타연구단체 · 기관과의 연대활동과 종단 및 사회 현안에 대한 논평 발표를 통해 연구소의 활동 영역과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 필리핀 태풍피해 2차 지원

아라우 부대와 합의각서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을 찾아 태풍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재해복구에 나선다.

지난해 1차 구호활동이 생필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긴급구호에 치중했다면 이번 지원은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재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은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군 '아라우부대' 와 함께 필리핀 타나와 및 톨로사 지역 내 초등학교 8곳 재건복구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동행은 칸바리사라, 부락 초등학교 등 지원대상 학교 8곳을 둘러보고 아라우부대와 재해복구공사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 원효종

2014년도 대한불교원효종 승려증 갱신 및 사찰등록증갱신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승려증 갱신 및 사찰등록증갱신을 추가로 실시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4년 4월 1일 ~ 4월 15일
◆ 대 상 : 대한불교원효종 소속의 모든 승려 및 사찰
◆ 구비서류 : · 승려 – 주민등록등본, 구 승려증 사본
· 사찰 – 구 사찰등록증사본, 주지임명장 사본,
◆ 접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 주 소 :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054)743-0700 / 전송 054)741-9002

위 기간에 승려증 및 사찰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효종 종도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 054)743-07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원효보살 열반1328주기 추모대재 (모)

◆ 일 시 : 불기2558(2014)년 4월 27일 (음28일) 일요일 11시
◆ 장 소 : 경주시 배동 460번지 망월사

대한불교 원효종의 종조이신 원효보살의 열반 1328주기 추모대재에 많은 종도 및 불자여러분이 동참하여 원효보살님의 뜻을 기리고 추모합시다.

봉행위원
원로원장 정광스님 자문위원장 창해스님 원로위원 각운스님 원로위원 진덕스님
중앙종회의장 태일스님 종회부의장 자안스님 종회부의장 자광스님
총무원장 우석스님 총무부원장 보원스님 상벌위원장 심상스님 법규위원장 무상스님
고시위원장 자광스님 재산심의위원장 자언스님 종학원장 옥천스님 문화원장 효산스님
포교원장 법승스님 복지원장 명관스님 경북종무원장 법진스님 경남종무원장 월함스님
부산종무원장 석불스님 대구종무원장 서응스님 제주종무원장 법원스님 제주종회의장 성호스님
사회부장 능관스님 문화부장 성우스님 교육부장 유상스님 복지부장 원해스님 포교부장 해인스님

준비위원
대안스님 도원스님 극락사 지안스님 자비원 법선스님 자비원 무진스님 자비정사 무상스님
무심사 선운스님 세연사 혜명스님 은하사 지연스님 망월사 남주스님 추원사 선법스님
대각사 도경스님 법성사 무공스님 용흥사 천수스님 천신암 공덕스님 봉영암 춘명스님
대선암 지원스님 미소선덕사 무송스님 제법정사 무종스님 토함정사 대호스님 조사국장 최석주

불기 2558(2014)년 3월 21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다시 좌절

조계종 중앙종회, 관련 종헌 개정안 부결

비구니 초 · 재심 호계위원 진입이 다시 좌절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8~20일 열린 제197차 임시회에서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결과는 찬성 46표, 반대 20표, 무효 1표였고 의결정족수 54표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중앙종회 196차 회의에서도 비구니 호계원 진입에 실패했고, 일부 비구 의원 스님들의 의사 발언까지 논란을 빚으며 당시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회기를 보이콧했다.

이후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초심호계위원 7명, 재심호계위원 9명을, 비구니 스님 2명을 추가해 각각 9명과 11명으로 늘렸다.

또 ‘재심호계위원의 자격은 법계 종사 · 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 초심호계위원 자격은 법계 종덕 · 현덕, 승납 25년, 연령 45세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승려’로 개정했다. 다만,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비구니 호계위원의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종회의원 영배 스님은 “비구니 호계위원이 비구 스님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 못한다면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고, 영담 스님은 “호계원 심리에 호계위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차라리 비구니 호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찬성 46표, 반대 20표로
의결정족수 54표 못 채워
통과 약속한 비구 스님들
무기명 투표 가더니 반대
재가 · 여성 단체 비판 성명
“만연한 차별의식서 기인”

또한 대승적 차원으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이 제안됐으나 종헌 규정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넘지 못했다.

강력하게 원칙론을 주장한 무애 스님은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다. 종헌에 위반하는 표결에 반대한다. 종헌대로 하지 않는다면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은 “삼화도량 회원 스님들은 모두 종헌 개정에 찬성해달라”며 공개 지지했고, 불교광장은 만당 스님이 공개 찬성을 요청하며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비구니 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비구니 권익 향상에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는가”라면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자리를 떠났으나 종회 사무처장의 설득으로 다시 자리를 채웠다.

이번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구니 승가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종법 개정을 촉구했고, 기자회견 직후에는 청원서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비구니 군승장교와 첫 비구니 종단 기관장 임명 등 비구니 위상 강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사회 여론도 긍정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계종은 기득권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좌절’에 불교계 재가 시민단체와 여성계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냈다.

교단자정센터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 지혜로운여성, 종교와젠더연구소는 3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종회의원의 인식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비구니 스님을 호계원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하는 비구 종회의원은 누구며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반대한 20명은 스스로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비구니 스님의 호계원 참여는 비구니 승가를 인정하고 동반자로 여긴다는 최소한의 표시”라며 “그럼에도 이를 부결시킨 것은 비구 승가만이 모든 권력과 역할을 갖고 사부대중공동체를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중앙종회의 결정은 교단에 만연한 비구니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 그리고 차별의식에 기인한다”며 “차기 종회에서도 비구니차별이 지속된다면 종도들의 뜻을 모아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축제, 전세계인이 함께 해요”

연등회 외국인 홍보,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

연등회 · 연등축제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할 글로벌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인 50명과 미국 · 중국 · 러시아 등 21개국 외국인 5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는 4월 25~27일 연등회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불교문화체험과 길 안내,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스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한국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연등축제의 기쁨을 각국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게 될 것”이라며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포터즈들은 3월 22일 서울 길상사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으며 4월 6일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 자원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연등회와 한국의 역사, 전통문화 등에 대한 강의도 받는다. 또 4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점등식에서는 ‘플래시몹’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핀란드에서 온 잉그리트 피로넨(21) 씨는 “연등축제 홍보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불교와 함께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3월 18일 ‘연등회 서포터즈’ 출범식을 열었다.

조계종 ‘불자대상’ 공모

오는 4월 11일까지 접수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종단이 제정한 ‘불자대상’ 후보자를 찾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불기2558년 불자대상 시행을 공모하고 오는 3월24일부터 4월11일까지 후보를 추천 받는다. 불자대상은 불법홍포 및 한국불교 위상 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종단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과 고인(故人), 단체를 포함한다.

후보자는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각 교구본사 및 종단 등록 사찰 주지 스님, 종단 등록 각급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서와 공적사항 입증 자료 등을 꾸며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올해 불자대상 시상식은 부처님오신 날인 오는 5월 6일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호국불교 사찰 첫 자료집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해남 대흥사 表忠祠’ 내놔
사찰 제향시설 연구 발판
매년 1권씩 시리즈로 출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해남 대흥사 표충사表忠祠〉편을 출간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교수가 집필한 이 자료집은 호국불교사찰 자료집은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시작으로 매년 1권씩 시리즈로 발간한다.

그동안 해남 대흥사 경내의 표충사表忠祠와 관련해서는 〈대둔사지(大屯寺志)(한국사지총서, 아세아문화사, 1979)〉와 〈대둔사지(대둔사지간행위원회, 강진문헌연구회, 1997)〉 등 총 두 권의 자료집이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 두 권의 자료집에는 표충사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누락돼 있었고, 연구소는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표충사(表忠祠)’ 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다.



〈해남 대흥사 표충사表忠祠〉편에는 해남 대흥사 소장 자료뿐 아니라 새롭게 발굴된 담양 용흥사 소장 표충사 자료 등 해남 표충사에 관한 가장 최근의 방대한 사료가 망라됐다.

현재 용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9종의 표충사 관련 자료는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단에 의해 조사돼 비로소 알려진 자료이다. 또 대흥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네 종의 자료는 불교사회연구소가 현장 조사를 통해 새롭게 찾아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그동안 전통사찰과 관련해서는 많은 저술들이 이루어졌고, 이를 소개하는 대중서도 발간됐다”면서 “하지만 정작 조선시대 호국불교와 관련해 중요한 제향시설인 해남 대흥사 내 표충사(表忠祠, 휴정 · 유정 · 처영스님 제향), 밀양 표충사(表忠寺) 내 표충사(表忠祠, 유정 · 휴정 · 영규스님 제향), 북한 보현사 내 수충사(酬忠祠, 휴정 · 유정 · 처영 스님 제향), 계룡산 갑사 내 표충원(表忠院, 휴정 · 유정 · 영규스님 제향)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사와 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사찰 내 제향시설은 불교의 승려들을 유교식 제향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례체계 내에 포함시켜 제향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국가와 불교, 교단과 승군 체제의 관계, 전란 이후 승단과 승려들의 동향 이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南불교계, 조불련과 교류 협의 잇달아

천태종 개성 영통사 봉축 법요
위드아시아 효봉스님 생가 방문

남북 불교계가 최근 잇달아 협의를 갖고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태종 3월 13~14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교류 실무회담을 했다.천태종 대표단은 실무회담에서 5월 1~2일경 개성 영통사서 합동 봉축법요식을 봉행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영통사 낙성 9주년 및 의천 대각국사 913주기 열반 다례재 남북합동 법회를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 △개성 영통사 · 관음사 · 안화사 3사순례 추진 △영통사 복원 공덕비 조성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을 통한 개성 불교문화재 전시 · 문화교류 등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조불련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향후 전문을 통해 협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회담에는 남측 천태종 사회부장 보광 스님과 사회국장 성공 스님, 북측 조불련 차금철 서기장과 송춘일 부원, 한정철 조불련 전국신도회 부회장, 김석철 조불련 전국신도회 신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도 3월 15일 중국 심양에서 조불련과 남북불교교류 및 문화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실무회담에는 (사)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 (사)위드아시아 이사 진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불련 측에 효봉 스님 사상연구를 위한 자료 요청 및 생가 존재 확인 후 생가 방문 추진을 제안했다. 남북 문화교류전을 위한 ‘제2회 어린이 및 남북학생 문예교류전’을 부산에서 개최할 것도 제안했다. 양측은 향후 남북 관계 상황을 살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위드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빈곤 · 소외계층과 국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제구호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12여 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신중일 기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넘쳐나는 기도 영험도량 현지사 부산분원!!



현지사 부산분원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질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불효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아기도 갖지 못하고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등 가정사 잘 되지 않을 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다라니를 21번씩 하든지 108번씩 하든지 하고 칭명염불하고 참회발원하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라.

– 2011년 7월 광명 만덕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부산분원 4월 정기법회 : 4월 6일(일) 오전 9시

육도윤회와 지옥 극락의 실재, 인간본체인 영혼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무아설에 대한 비판, 불보살님이 무아 속 절대계(연화장세계)에 계심 그리고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에 대한 미증유한 법문 등 21세기를 열어가는 현지사 큰스님의 사자후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7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51)554-5150

현지사 ‘초파일 10만 봉축등’ 접수합니다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는 초파일 봉축등 접수하여 부처님 회상과 인연 맺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합니다

관음재일 행사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30분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 매월 음력 15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분원 100일기도 안내 : 관세음보살님, 산왕부처님, 치성광부처님, 화엄성중님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영산불교 현지사 부산분원 관음성전 전화 051)554-5150 팩스 051)556-5150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일 주 문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 특별전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29일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 특별전 관람 순례를 개최한다. (055)382-7182



제54회 팔만대장경수호 정대불사

합천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4월 8~9일 1박 2일간 제54회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를 거행한다. (055)934-3105



제114회 보살계 수계산림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4월 13일 범어사 대웅전에서 제114회 보살계 수계산림에 입재한다. (051)508-3636



쌍계사 꽃맞이 템플스테이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3월 29~30일 쌍계사 벚꽃길 트레킹을 겸한 꽃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55)883-1901



금산사 미륵전 보수공사 성료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3월 중순 미륵전 보수공사를 원료하고 차단막 제막식을 개최했다. (063)548-4441



화엄선재학당 개당

구례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4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화엄선재학당을 개강한다. (061)783-7600



서산대사 탄신 494년 서산대제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25일 대흥사 보현전 특설무대에서 서산대사 탄신 494주년 서산대제를 개최한다.



조계종 노동위 경전 강좌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장 종호 스님은 3월 21일부터 매주 셋째주 금요일 서울 제따나와선원에서 노동자 대상 경전 수업을 개최한다.



동국대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착공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3월 20일 일산 동국대 병원에서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바이오메디캠퍼스 기숙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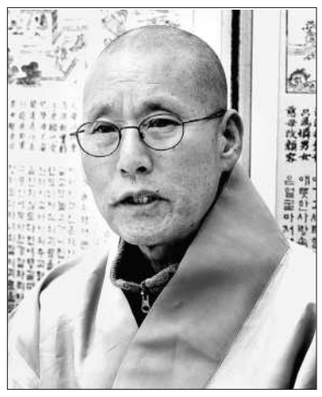


<대승기신론> 특강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는 3월 7일부터 불교여성개발원 강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0주 강의로 〈대승기신론〉 특강을 하고 있다. (02)732-2403

"가족이 함께하는 휴식사찰로"

취임 100일 맞은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문화포교 기치, 경전 강의 등 진행
늘어나는 신도, 열성신도 확보 중점
도심 휴식사찰로 장기 플랜 계획 중
수행·생태 환경 중심으로 가람정비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가 가족이 함께 쉬며 문화생활과 신행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사찰로 거듭난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3월 1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봉은사 발전계획을 밝혔다.

원학 스님은 "선종수사찰 봉은사의 정체성을 살리고 매년 늘고 있는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지원하는 수행·문화사찰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특히 문화포교, 교육포교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주지 취임 이후 매 예불에 참여하고 매주 교양대학 특강을 직접 챙기고 포살법회도 집전하는 등 신도교육에 관심을 쏟았다. 봉은사는 법문 형식의 법회를 경전 강의 방식으로 바꿔 출가열반재일 법회에서는 원학 스님이 〈유교경〉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스님은 "특히 봉은사가 신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행정편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 사찰에 와서 편히 쉬어가고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찰에서 신도들은 자연스럽게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며 "템플스테이와 함께 단기 체험인 템플라이프를 활성화 해 이러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자연 친화 가람 정비 추진

스님은 봉은사를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사찰로 가꾸기 위해 기존에 수립된 봉은사 가람정비 계획을 자연 친화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봉은사는 2008년 '봉은사 가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세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스님은 "기존 가람정비 계획에는 지상에 너무 많은 건물이 들어선다"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행사찰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지상건물은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은사는 가람정비를 위해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님은 "지상은 전통사찰로서 조경 사업을 통해 산중 사찰 분위기를 내며, 지하 공간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며 "2016년 현재 웨딩홀로 사용되는 문화센터가 인수되는 만큼 이 공간을 신도교육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봉은사는 가람정비의 시작으로 요사채 및 공양간 신축불사에 들어간다.

스님은 "현재 스님들 요사채 및 공양물을 만드는 식당이 수십년 전에 지어진 조립식 가건물로, 이런 건물이 많다"며 "바깥에서 보던 봉은사의 위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 놀랐다"고 말했다.

스님은 직접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구청을 방문해 정식으로 문화재 현상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요사채 및 공양간은 지하1층과 지상1층 건물로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 5월까지 착공될 예정이다.

스님은 "주지로서 부딪혀 보니 규제가 한두 건이 아니다"며 "누가 주지를 해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공간 확보 주력… 신도 배출 중점

스님은 이러한 신도들의 활동 공간 확보가 열성신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자연스럽게 신도들의 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본다. 봉은사에 등록된 신도 수만 25만명에 달하는데 실질적인 신행사찰로 봉은사가 자리하기 위해 불사와 함께 가족법회, 신도네트워크 등도 신경을 써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봉은사의 경우 매년 3500 세대가 새신도로 가입 중이다. 이중 1000여 명 만이 기초학당 교육을 이수받고 있다. 봉은사는 새신도 전법캠페인을 펼쳐 교육과정에 편입되지 않은 신도들을 적극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주지 스님이 직접 하반기부터 '동다송' 강의에 나서는 등 신도입문 과정이 중점 관리된다.

원학 스님은 끝으로 "봉은사는 서울시민의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서 국빈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명소"라며 "한국불교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불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매일 1천배로 체력 다져…부대배치는 인연따라"

첫 비구니 군승 명법 스님 3월 18일 기자회견



"억압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에게 편안함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비구니 군승이자 최초의 군종장교에 선발된 명법 스님〈사진〉이 군생활의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명법 스님은 3월 18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원광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승려라면 마땅히 포교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참에 여성 군종장교가 생겨 과감하게 지원했다"며 "여성 군종장교인 만큼 그동안 비구 스님이 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특히 갈 수록 늘어나는 여군들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명법 스님은 희망 근무지역에 대해 "인연에 따라가게 된다"고 답하며 "다음달 9주간 군사교육 입소를 앞두고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 짬짬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으며, 매일 1천배씩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에 살생을 할 수도 있는데 불교의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명법 스님은 "신라시대에는 호국불교가 있었다. 살생유택, 먹기 위해 또는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과정에서 부딪쳐야 한다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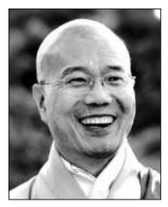
1980년 태어난 명법 스님은 1999년 19세에 마곡사를 재적본사로 출가해 2000년 사미니계를 받았다. 그후 2006년 동학사 승가대학 졸업, 2010년 어산작법학교 졸업, 2014년 2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를 졸업했다.

한편, 이번 군종장교들의 입영은 4월 22일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이뤄진다.

이나은 기자

불교방송 문자서비스 다양화

법현·해성 스님도 함께해



법현 스님



해성 스님

불교방송의 문자서비스가 스님들의 다양한 법문을 전달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자 서비스에는 올해초부터는 필력 있는 스님들이 대거 가세 불자들에게 아침편지를 전하고 있다. 카페 목탁소리 운영자 법상스님의 경우는 팔로워가 5백여명에 이를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월호, 지광, 서광 스님 등도 신도들을 중심으로 인기몰이에 나섰다. 여기에 방송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법안, 성담, 승한, 원빈, 해성, 법현, 정우 스님 등도 함께한다. 이밖에 재가불자들인 김형진 변호사, 권대웅 시인, 이경남 명상 지도자, 곽은구 요가 지도자 등의 편지도 청취자들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건당 수여식



한국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취운)은 3월 20일 종단 본산인 창녕 불국사 대법당에서 '종단 구족계 및 건당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종정 봉진스님을 대법사로 모시고 종단 임원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14명의 스님들은 전법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받들어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으며 봉진 종정스님은 '승가의 지엄한 계율을 지켜 한국불교의 기둥이 될 큰 인재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섬서사범대와 공동협약



금강대는 3월 20일 중국 시안의 섬서사범대 옌타(雁塔) 캠퍼스에 정병조 총장 일행이 방문하여 한국문화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공동협약 체결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섬서사범대 팡위 총장외 관계자 7명, 전재원 중국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 외 2명, 금강대 정병조 총장 외 5명 등 관련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학생 및 현지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에 앞장설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연수에 참여한 스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법계별 승려교육에서는 10년에서 13년차까지의 중덕・정덕 법계 39명의 스님들이 참여했다. 교육원은 향후 상・하반기에 나눠 같은 법계 중에서도 승랍별로 세분화된 연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님교육도 이젠 맞춤시대

조계종 교육원 3월 17일 법계별 승려연수교육 실시

주제 '리더쉽 심화' 정덕 법계 39명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박 3일간
교육원, 세분화 연수계획 마련

"한국불교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 우리가 이끈다!"

조계종 종단 연수시설인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원장 구과)에서 스님들의 힘찬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3월 17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최초로 법계별 승려교육을 시작했다. 2010년 승려교육이 도입된 이후 각 연차별 법계에 따른 세분화된 교육의 시작이다.

'종단리더쉽심화과정' 을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승려연수교육에는 승랍 10년에서 13년 차인 중덕 · 정덕 법계의 스님 39명(비구 21명, 비구니 18명)이 참석했다.

승려연수교육은 그동안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아왔지만 법계 구분이 없어 은사 스님과 상좌가 함께 연수를 받는 등 각 승랍 별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일선 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는 정덕 법계 스님들에게 리더쉽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진경 스님은 "그동안 6년에서 30년차 스님들이 함께 배우다 보니, 그 법계에 갖춰야 할 소양이나 사회적 역량을 맞춤형으로 교육하는데 애로점이 많았다"며 "오늘 교육에서는 주지로 나가기 전인 정덕 법계 스님들이 종단의 실무를 배우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한국문화연수원장 구과 스님은 "오늘 모인 스님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도 잘 해낼 수 있는 이들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종단 연수원의 책임자로서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법계별 연수교육은 승납 5~9년의 견덕 · 계덕의 경우 수행과 전법능력을 향상하고 종단과 사찰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좌가 진행된다. 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는 승납 10~19년인 중덕 · 정덕은 종단적 마인드를 구축하고, 전법과 포교에 필요한 신도상담 · 수련회 지도 · 지역포교 전략 등을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교구 및 종단의 소임을 맡는 대덕 · 혜덕 법계에 대한 교육은 대사회적 마인드를 기르고 국제포교, 교구본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종덕 · 현덕 법계는 종단과 불교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연수교육에 참여한 스님들은 맞춤형 교육 실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아산 해원사 주지 현중 스님은 "예전과 달리 스님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교육을 받아 역량을 키워 포교 등에 나서고자 하는 스님들이 많다"며 "승려 교육도 갈수록 체계화 되며 수준이 높아져 스님들의 호응이 높다. 매년 연수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정덕 법계 승려교육은 본사 국장, 주지 소임에 나서는 스님들에 맞게 리더쉽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 세원사 총무 유진 스님도 "스님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서 사회흐름에 발 맞출 수 있다고 본다"며 "대중들이 원하는 다가가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참석한 스님들은 2박 3일간 연수 일정에 들어갔다. 첫 교육프로그램은 곽병찬 한겨레 논설위원의 '한국불교의 역할과 비전' 이 진행됐다. 또 덕산 스님의 '신도교육과 수행지도' , 흥선 스님의 '사찰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 허달 박사의 '현대사회와 불교리더쉽' 등 강좌가 진행된다.

공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참석한 스님들은 '리더쉽 강의' , '사찰운영 방법' 등 사회 흐름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수강했다.



입재식에서 스님들이 연수 이후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전법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조계종 법계 어떻게 구성돼있나?

법계명(괄호 안은 비구니 법계)	승 랍	자격요건
대종사(명사)	40년 이상	종사(명덕) 법계 수지자
종사(명덕)	30년 이상	종덕(현덕) 법계 수지자
종덕(현덕)	25년 이상	대덕(혜덕) 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대덕(혜덕)	20년 이상	중덕(정덕) 법계 수지 및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중덕(정덕)	10년 이상	견덕(계덕) 법계 수지 및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견덕(계덕)	10년 미만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으로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조계종의 경우 6가지 법계로 나뉜다. 먼저 10년 미만의 스님 중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견덕 법계(비구니 스님 계덕)를 받는다. 10년 이상 법랍을 지니고 견덕 법계를 수지하고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중덕(비구니 스님 정덕) 법계를 품수 받는다.

20년 이상 법랍을 지니고 중덕 법계를 수지,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대덕(비구니 스님 혜덕), 25년 이상 법랍을 지니고 대덕 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은 종덕(비구니 스님 현덕) 법계가 수여된다.

또 종덕 법계 수지 후 30년 이상 승랍이 되면 종사(비구니 스님 명덕) 법계로, 40년 이상 승랍에 종사 법계 수지한 스님은 대종사(비구니 스님 명사) 법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종사 및 대종사 법계는 특별전형으로 승급 가능하다.

중덕(법랍 10년 이상) 이상의 법계를 지니면 말사 주지 및 총무원 및 교구본사 국장 소임 등을 맡을 수 있고, 상좌를 받을 수 있다.

교육원은 이번 중덕 · 정덕 법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또한 10년 터울이 있는 만큼 상 · 하반기 5년차 별로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2년 11월 진행된 조계종 2급 · 3급 법계품수식 (현대불교 자료사진)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빙상여제 3인방 구룡마을서 봉사

날마다좋은날, 심석희 · 조해리 · 공상정 홍보대사로 위촉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2014년 행복바라미 캠페인 홍보대사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크게 활약한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조해리, 공상정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 홍보대사는 3월 22일 캠페인의 첫 발을 내딛는 의미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마을에서 행복바라미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서울 구룡마을 판자촌을 찾아 지역주민에게 쌀을 기증하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독거노인을 위한 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차주상보〉 이나은 기자



행복바라미 홍보대사로 위촉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심석희, 조해리, 공상정 선수(사진 왼쪽부터)

'34대 집행부 지역중심 포교종책' 연찬회

포교원 3월 26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3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34대 집행부 지역중심 종책기조와 포교종책 과제' 를 주제로 제55차 포교종책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34대 집행부 지역중심 종책기조와 지역중심 전법토대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포교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이석심 총무차장이 '지역중심 34대 집행부 포교종책 과제와 전망' 을 주제로, 포교국장 노휴 스님이 '지역 전법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포교 활성화' 를 주제로, 박주언 사회경제지원본부 본부장이 '지역 공동체 사업 창출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을 주제로 발표 한다. (02)2011-1913 이나은 기자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창립 20주년 기념

3월 30일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서

창립 20주년을 맞은 (사)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운)가 3월 30일 오후2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를 마련한다.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뜻에 동참해 모임을 발족하신 여러 어르신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시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 길상사 신도님, 후원자 여러분 등 님과 함께 지나온 20년을 축하하고 다가올 30년을 맞이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음악회에서는 바버렛츠와 박창근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아울러 2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군부대 내의 책읽는 독서문화의 정착을 위해 26000여권의 도서를 국군문화진흥원에 기증한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독거노인 자살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홍보 및 동전 모금통 배포 및 모금 운동과 경내 '녹색나눔장터' 를 개최한다. (02)741-4696 정혜숙 기자

파라미타, 서울 · 경인 청소년 연합법회

3월 30일 오전 10시 전통문화공연장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3월 3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8회 서울 · 경인지역 사찰 청소년 연합법회' 를 개최한다.

서울 · 경기지역 사찰 청소년법회 청소년과 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법회에는 또래 법우들과의 교류와 친교를 통해 신심을 더욱 돈독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법회에 이어 2부 장기자랑 그리고 율동배우기 시간으로 진행된다. (02)723-6165 이나은 기자

불교 신도단체 봉축행사 준비 'Start'

의료봉사, 물품보시, 나눔행사 등 다채

부처님오신날이 1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사찰들과 불자들은 봉축행사 준비로 여념이 없다. 특히 신도단체와 직장직능 불교단체는 바쁜 업무시간외에도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들은 봉축 법회를 열거나 신도단체 특성에 맞는 행사들을 펼친다. 의료봉사, 등산, 모금캠페인, 물품보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행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 이하 병불련)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의료봉사를 전개한다. 2014년을 '재결집 원년' 의 해로 삼은 병불련은 3월 27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대법회 및 제6대 회장 이 · 취임식' 을 갖고, 29일 총무원에서 주최하는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걷기대회' 에 참여한다. 통일대교와 임진각 등 걷기구간에 의무실과 엠블란스를 설치하고 500여 참여인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또한 4월 20일 낙산사복지재단산하기관인 양양군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한 어르신 의료봉사를 전개한다. 김진섭 회장은 "올해는 병불련 '재결집 원년' 의 해이다. 부처님의 자비사상, 약사여래불의 12대원을 실천하는 의료포교단체로, 사부대중이 하나 돼 불보살을 향한 마음 변하지 말고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경찰전법단**(단장 도문)은 봉은사와 조계사의 후원으로 4월 중순께 선크림, 컵라면, 합장주 등 1세트 당 8천원 상당의 '자비의 선물' 4천개를 마련해 경찰기동단과 교육생, 경찰대 및 경찰병원에 보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4월 28일에, 서울지방경찰청은 5월 2일에 봉축법회를 거행할 예정이며, 각 지역 경승연합회와 경찰불교회 또한 지역 봉축행사를 준비한다.

대한불교조계종산악회(회장 엄홍길)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교구별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특히 서울불교산악회는 4월 27일 중앙신도회의 중점 사업인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동참해 도봉산 입구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등산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5월 5~6일에는 설악산 대청봉을 등정, 봉정암에서 부처님의 탄생축복을 기린다. 5월 17~18일에는 엄홍길 회장의 인솔하에 경주 남산에 오를 계획이다.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정지천, 이하 한불련)는 4월 6일, 20일에 서울 조계사, 수원 용주사와 수도권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매월 1 · 3째 주 일요일에 용주사와 조계사에서 의료봉사를 펼치는 한불련은 20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침 봉사를 진행한다. 또한 반갑다 연우야와 함께 수도권 지역을 돌며 침봉사와 건강 상담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지난해 범국민 모금캠페인 '행복바라미' 를 실시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4월 19~20일 봉축을 앞두고 서울시청광장에서 전통문화와 나눔문화가 어우러지는 국민행사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을 개최한다. 19일 첫날에는 '2014 행복바라미 개막을 알리다' 를 주제로 △해외국가 전통문화공연 △거리모금조직 발대 퍼포먼스 △국민힐링 즉문즉답 △태권도국가대표시범단 공연 등을 펼친다. 20일에는 △행복바라미 어린이 · 청소년 사생대회 및 댄스경연대회 △붓다로살자 화쟁코리아서울대회 등을 개최한다.

이밖에 **전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은 대학 동아리 접수기간인 4월을 맞아 전국 대학 교수와 불교 동아리에 공문을 보내고, 포교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최용춘 회장은 "각 대학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기간 동안 봉축제를 보낸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동아리 회원 모집기관과 맞물려 교불련 회원들에게 학생포교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경찰전법단장 도문 스님이 지난 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봉축대법회에서 관욕식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대한불교조계종산악회는 설악산 대청봉을 등정, 봉정암에서 부처님의 탄생축복을 기릴 예정이다(사진 오른쪽).

신도단체 봉축 준비 행사 일정

단 체	행사내용	일 정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양양군노인복지관 어르신 의료봉사	4월 20일
조계종 경찰전법단	자비의 선물' 4000개 경찰기동단 및 교육생에 보시	4월 중순
대한불교조계종산악회	도봉산에 모금함 설치, 설악산 대청봉 등정	4월 27일, 5월 5일
한의사불자연합회	조계사 · 용주사 및 수도권지역 의료봉사	4월 6 · 20일
중앙신도회 날마다좋은날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4월 19~20일

불교상담개발원 창립 14주년 세미나

4월 17일 국제회의장서, '불교와 심리치료에서 본 소통' 주제로

소통의 필수 요소인 '수용, 경청, 공감' 을 불교, 분석심리학, 명상치유 관점에서 살피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한 불교상담적 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와 심리치료에서 본 소통' 을 주제로 창립 14주년 기념세미나를 실시한다.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이 사회를, 법상 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이 '불교에서 본 경청과 소통' 을, 서동혁 밝은서울정신건강과 원장이 '불교에서 본 경청과 소통' 을 주제로 발표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학교폭력이나 자살 등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와 심리적 고립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불교와 외부 학문의 관점으로 소통을 조명하고 그 현실적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3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 불교상담심리사 보수교육으로 자살위기상담 교육' 을 실시한다. 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자살위기상담 및 사례' 를 주제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상담심리적 접근을 모색하고 자살상담 사례를 직접 다루는 상담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경주 동국대, 웰다잉 무료공개강좌

3월 29일 오후 2시 100주년기념관서

경주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산하 생사문화연구소(소장 윤영해)는 3월 29일 오후 2시 교내 100주년기념관 402호에서 '제8회 행복을 추구하는 웰다잉' 의 무료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는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생사문화학과 이병찬 교수가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의 정신, 웰다잉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웰다잉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을 소개하고, 전문지도사(강사) 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09년 국내 대학 최초로 불교문화대학원에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 과정을 개설해 현재 총 361명의 웰다잉전문지도사(2급 273명, 1급 88명)를 배출했으며, 올해 제10차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과정 2급 8기 수강생을 오는 4월 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제10차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 2급 8기 과정은 4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7시간씩 15주간 동안 행복한 삶과 존엄한 마무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수업과 몸체험 · 마음체험 · 자연체험, 무념 · 심안관체험, 하심 · 행복체험, 성찰체험 등의 실기수업으로 진행되며, 수료자는 자격시험을 거쳐 웰다잉전문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회복지기관, 요양보호기관, 호스피스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웰다잉 교육을 채택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행하는 '월간문화재 3월호'(통권354권) 18~19면

〈"지명이 품은 한국사"- 말죽거리! 그 누가 지은 땅이름인가(글. 이은식 / 한국인물사연구원 원장)〉에 보우스님과 말죽거리 지명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 재단의 편집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게재되어 보우스님과 불교계, 봉은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과 월간문화재의 편집과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26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임직원 올림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도움대상 찾아 기부… 주민참여 복지 뜬다

지난 3월 13일 정부는 민간중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복지제도의 한계를 메우는데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장점 외에도 상부상조의 나눔문화 조성에도 일조한다. 불교계도 이런 추세에 맞춰 주민참여복지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주민참여형 복지제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서울디딤돌… 저소득 주민에게 물품 지원

지역 상점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참여 상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은 물론 '아름다운 이웃' 이란 현판을 제공, 지역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업체임을 홍보해 준다.

청담복지관(관장 유영학)에서는 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75개에 이른다. 식당, 미용실, 떡집, 안경점, 약국 등에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받아 시흥 2,4,5동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인원은 2천2백명. 이들에게는 상점별 쿠폰이 지급되는데 지난 1월 쿠폰 사용인원은 2224명으로 집계됐다.

디딤돌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후원금 등을 일부러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데 있다. 수혜자 역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입맛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연가족맺기… 유대관계 형성 커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소희)의 '행복자판기' 는 독거노인 결연가족맺기 프로그램이다. 정서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대상자와 봉사자간 유대관계를 형성해준다. 성인1명과 청소년 2명이 독거 어르신 1명과 한 가족을 이뤄 나들이, 음식만들기, 가족신문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복지관은 이 과정에서 지역내 봉사단원과 초중학교 학생들 중 희망자를 받아 가족을 형성하고 프로그램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미용실 · 약국 등 기부 다양화

수혜자는 서비스 골라 받아

공공복지한계 민간나눔으로 메워


기부받은 생필품으로 운영되는 광진푸드마켓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고르고 있다.

현재 21가족이 형성돼 있다. 물품지원을 넘어 사람간 관계맺기를 통한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한 사례다.

나눔이웃활성화… 나눔아카데미 등

주민이 중심이 된 나눔실천가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발굴하면 본동복지관(관장 김종성)에서는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협력단체에서 확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현재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과 흑석동 내에서 나눔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52명. 복지관은 이들을 위해 나눔아카데미를 운영, 틈새계층 발굴과 상담기법, 대상자별 케어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나눔실천가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자발적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나눔활동은 주거환경개선활동, 생필품 및 기타 필요 몰품 지원, 김장나눔 등을 실시되며 협력업체로는 대한적십자사 동작지구협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이수기술관리소, 현대HCN동작방송, 흑석동 참좋은 봉사단, 천주교 집수리 봉사단, 한국스타일인테리어, 중앙대학교 봉사 동아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푸드마켓… 매장 방문해 직접 선택

단체나 기업,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생필품으로 슈퍼마켓을 개설,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무료마켓이다.

각 구마다 한 곳씩 있으며 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한다. 자양복지관(관장 장영심)에서 운영하는 광진푸드마켓의 경우 광진구 내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자 7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이용대상자는 월 1회 5개 내외의 물품(2만원 상당)을 선택할 수 있다. 쌀부터 과일, 채소, 수산물, 가공식품, 화장지, 세제 등 주변상점으로부터 기증받은 물건들이 가득하다. 자발적 기부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등이 주어진다. 광진푸드마켓은 2012년 약 1억7천여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았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명상으로 돕는 어르신 심신건강

풍경소리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3월 24일 업무협약식

풍경소리와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가 어르신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풍경소리(대표이사 혜자)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희유)와 3월 24일 오후 4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내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슈퍼비전실에서 '노년기 심신 건강 증진' 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어르신들의 심신건강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접목한 제반 콘텐츠와 전문 강사진을 통해 명상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동연구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총장이 상담센터에서 진행했던 명상집단상담 '마음챙기기' 프로그램에서 비롯됐다. '마음챙기기' 프로그램은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이 어렵거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 조절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노인들을 위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위해 마련돼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풍경소리 대표이사 혜자 스님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신적 병리현상의 치유에 명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명상수행이 사람과 사회의 등불이 되는 구체적 대안이 됨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소장 희유 스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담센터의 전문성과 풍경소리의 명상프로그램이 만나 어르신이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자신의 삶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어르신들이 풍경소리의 도움을 받아 마음챙김명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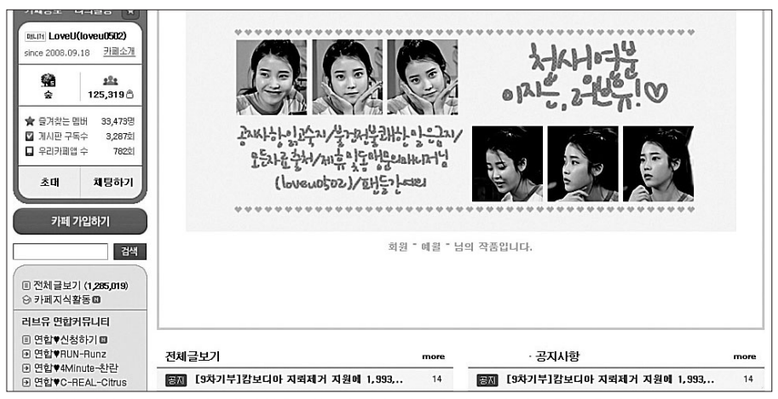
아이유 팬카페, 지구촌공생회에 보시

캄보디아 지뢰제거 사업 2백만원 후원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아이유 팬카페 회원들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캄보디아 지뢰제거 사업에 후원금을 보내며 동참했다.

아이유의 대표 네이버 팬카페 러브유(http://cafe.naver.com/singeriu)는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지뢰제거사업에 최근 199만3천원을 기부했다. 2008년 카페 개설 이래 이어져온 9차례의 기부행렬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캄보디아는 30년간 이어져온 내전으로 최소 700만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알려져있는 곳. 지구촌공생회는 작년부터 캄보디아 지뢰제거연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뢰제거에 그치지 않고 우물과 학교를 건립해 평화마을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지뢰제거 사업에 2백만원을 기부한 가수 아이유 팬카페 러브유의 홈페이지.

지구촌공생회는 "아이유씨와 팬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유 팬카페 러브유의 기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기부를 통해 캄보디아 이웃들이 지뢰 없는 평화로운 마을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비극의 땅, 카보디아 지뢰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캠페인은 9월 30일까지 890만원을 목표로 네이버에서 모금이 진행중이다. 현재 3백7십여만원이 모연된 상태다.

배현진 기자

강북복지관, 공동육아 참여가정 모집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품앗이 공동육아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한다.

강북복지관은 공동육아 프로그램인 '나는 엄마다' 를 개설, 장애아동 양육지원 및 정보제공을 받을 장애가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소 장애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참여가정은 12월까지 주 1회 모임을 통해 장애자녀를 양육 중인 선배 가족으로부터 여러 양육 팁 등을 얻을 수 있다. 동화구연, 사회적응활동, 비장애 형제와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실질적 도움이 제공된다.

참여대상은 장애자녀(지적, 발달장애 등록)를 양육중인 10가족으로 강북구 거주민이어야 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신청은 강북복지관으로 하면 된다. (02)989-4215

배현진 기자

청소년 멘토를 모집합니다

아름다운동행, 4월 2일까지 대학생 · 직장인 대상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대학생, 직장인 멘토 찾기에 나섰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나의유산만들기' 에 참여할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전달할 멘토를 모집하는 것이다.

'나의유산만들기' 는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와 청소년들은 월 1회씩 문화유산 탐방을 함께하며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함께 나눈다. 종묘, 창덕궁,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수원화성, 해인사, 안동 하회마을, 강화 고인돌, 조선왕릉을 관람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은 "방황과 고민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성적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전달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며 "덧붙여 멘토들이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전달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멘토링을 담당할 40명 외에도 프로그램 진행 8명, 행사 촬영 4명, 문화유산 해설 6명 등을 모집한다.

멘토 모집 접수는 4월 2일까지며 지원 신청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thenanum.org) 또는 문의전화 02-737-9595 로 하면 된다.

배현진 기자

진로 · 진학 상담

진학상담 :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안내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예측

인 재 양 성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미 래 예 측 학 박사
◇저서 : 규명 1.2.3권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명리진학정보론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4개월 과정

◆ **수 업 일** : 매주 화 · 목요일
오전반 10시 부터 ~
오후반 6시 부터 ~

■ 명리학의 심리분석을 통하여 진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명문대 재학생 1,200명의 응답 분석 ⬅
■ 학생이 방문하여 설문자료에 응답시 즉시, 계열과 학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 진로적성상담연구소 1층 H·P 010-5418-5972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 · 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니체와 불교의 공통분모는 '자기 극복'

대한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

박찬국 교수(서울대 철학과)

니체 사상과 불교 교리를 비교한 연구들이 많다. 박찬국 교수는 그 연구들 중 다수가 니체와 불교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니체와 불교 사이에 있는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했다. 3월 18일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열린 박찬국 교수의 '니체와 불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강의를 들어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니체의 유명한 말 중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됩니다. 니체가 하고자 했던 말은 근대인들이 기독교의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끌어들여 설명하려 했던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됨으로써 신의 존재는 무의미해지게 되었죠. 신이 인간 역사를 규정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을 죽이고 나니까 허무주의가 발현합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 방향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삶의 가치 또한 없어져버립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제시해주지 못하니까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지구에서 태양이 사라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이 삶의 방향과 의미, 빛을 제시해줬는데 말이죠.

그러나 니체는 신을 죽인 행위를 위대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믿고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요. 청소년들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서 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믿지 않음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죠. 니체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에 버금가는 존재, 초인의 개념을 등장시키는 거죠. 니체는 "신을 죽이고 인간이 스스로 독립하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일찍이 없었다. 이러한 행위 이후의 역사는 그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니체는 새로운 삶의 철학을 신이란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찾아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고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것에 의미를 두었던거죠.

니체는 이처럼 사람들의 가치를 완전히 전환시켜버립니다. 근대 이전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대로 하는 것, 신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면 니체는 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력, 힘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악이란 인간의 정신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죠.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신의 은총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다면, 니체는 자신의 힘이 고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봤습니다. 고통, 고난을 극복할 때, 투쟁하면서 자기가 강한 존재가 된다고 느낄 때를 말하는거죠.

니체는 힘을 칭송했습니다. 니체 사상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힘에의 의지' 라하면 강한자가 약한자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니체는 이런 경우를 비겁하고 야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힘의 의지를 느끼려면 자기와 대등한 상대와 겨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체는 강한 힘, 정신력은 자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배자라고 해서 강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을 괴롭히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야말로 쉽게 자신의 힘을 느끼기 위해 왜소한 자들을 괴롭히니까요.

니체는 민주주의를 기독교적인 가치의 연장이라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이념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것이 서양의 근대 민주주의죠. 기독교에서는 약한 이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을 선으로 보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괴롭히는 것을 악이라 합니다. 민주주의적 양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전쟁을 일으키고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 시저 같은 이들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위인전에서는 이들을 위인으로 추앙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이처럼 두 가지 도덕관과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어요.

때문에 니체는 새로운 도덕, 군주도덕을 주창합니다. 군주도덕은 월등한 능력, 자부심, 지혜, 카리스마, 리더십 등을 갖추고 있는 탁월한 군주를 선한 사람으로 봤고, 저열하고 비겁하고 열등한 것을 악으로 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아도 국가 간, 사회 내 경쟁이 늘 존재합니다. 군주도덕이 추구했던 도덕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죠. 강한 긍지와 경우에 따라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는 리더십 같은 것이요.

사람간의 투쟁, 갈등이 없는 사회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경쟁을 없애기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바꾸어 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니체 역시 이같은 생각을 했어요. 남을 압도하려는 호승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화시키자는 거죠. 서로를 고양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투쟁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 미덕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자신과 친구에 대해 성실할 것. 적에 대해 용기를 가지지만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타인에게 공손할 것. 니체가 말하는 초인 또한 '그리스도의 영혼을 갖는 카이사르' 라고 했습니다. 강한 용기와 긍지를 갖지만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요. 니체를 전적으로 배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니체는 또한 인간들간에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했어요. 약한 자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걸로요. 심지어 노예가 필요하다고도 했으니까요. 니체 사상이 가진 독소죠.

니체의 사상 중에 중요한 것은 영원회귀 사상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삶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길 바라죠. 니체는 그런 식의 희망을 단절시켜버립니다. 영원회귀 사상에서는 천국도 없고 유토피아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면 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달리보입니다. 영원회귀 사상은 운명회귀 사상과도 통합니다. 강한 사람은 험한 운명이 반복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죠. 초인이란 그러한 사람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하수나 강물을 끌어들이고서 자기 속성을 잃지 않는 바다처럼, 초인은 궂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것을 자기발전계기로 받아들입니다.



박찬국 교수는 …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호서대 철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비롯한 실존철학에 관심이 많으며, 서양 철학과 불교철학을 비교하는 것도 주요한 연구관심 중의 하나다. 저서로 〈에리피 프롬 읽기X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X니체와 불교X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 연구〉 등이 있다.

니체와 불교의 유사성
고통스런 현실의 극복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가능

니체와 불교의 차이점
니체는 명예 · 야심 긍정하나
불교는 집착 · 욕망 해탈 추구

니체와 불교사상 사이에는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스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둘 다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대계몽주의는 구조를 바꾸면서 인간 고통을 극복하려하죠. 니체와 불교는 인간 정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고통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니체는 정신력을 강화시키면서, 불교는 자기집착주의를 버림으로써 고통을 극복합니다. 이처럼 니체와 불교는 고통을 인간정신의 변화를 통해서 극복하려한다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체와 불교는 내세라든지 유토피아 등을 꿈꾸며 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불교의 경우 자기집착을 버리면 지금 있는 이곳에서 열반한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니체 역시 독립정인 정신을 강조하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철학이란 측면에서 니체와 불교는 공통됩니다.

언뜻보면 니체와 불교간 유사점이 많이 보이지만 양자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선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바라봄에 있어 니체는 어떤 고통이든 긍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교는 고통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여여하게 바라보라고 하죠. 또한 니체에게는 현실에 대한 강한 애착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라든가 야심을 추구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며, 문화창조의 강한 동력이라고까지 했어요.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불교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죠.

니체는 부정적인 욕망들과 정열을 승화하려고 하지만 불교는 정화를 추구합니다. 니체는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원한과 증오를 선의의 경쟁심으로 승화할 것을 촉구하지만 불교는 모든 경쟁심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추구합니다.

니체와 불교가 지향하는 인간상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니체의 초인이 강한 자아에 가깝다면 불교는 자기중심주의에 반대하죠.

니체와 불교가 추구하는 덕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는 긍지, 모험, 지혜 등 남보다 앞설 수 있는 덕들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하심을 강조했죠.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으므로 자신이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열정이나 정열 대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라고도 하며, 책략대신 진실, 모험대신 명상을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처럼 천지창조 등 신화적 이야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인간의 심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를 최초의 실증주의적 종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욕, 평정을 최상의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투쟁, 용기 등을 최고로 두었죠. 그래서 불교를 노쇠해버린 종교로 보기도 합니다. 불교는 정신적인 작업에 몰두해서 삶의 고통에 민감하고 유약해져버린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란 우울증으로부터 사람을 벗어나게 하는 치유의 성격을 띤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교는 인격신을 부정하는 정신적 진보를 이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허무주의적이고 생명력이 약화된 데카당한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당시에 불교가 유행할까봐 우려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유럽적인 불교' 라고 부르는 동시에 자신을 '유럽의 붓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니체가 자신의 사상을 불교와 동일시했다고 보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니체 자신과 불교가 유사하다고 본 것일 뿐이죠. 자신이 유럽의 붓다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유럽의 부처는 인도의 부처에 대한 대립자일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니체가 보기에 불교는 내적인 안락만을 추구하는 종교였고 삶에 지친 자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교사상은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비슷하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내면적 평화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죠. 깨닫자마자 가르침을 펼치려고 하니까 에피쿠로스의 개인주의적 철학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니체가 불교를 오해했단 생각이 들어요.

불교가 고통에 대한 지나친 감수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지만, 불교도 역시 그렇게 유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진정한 불교도가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은 자그마한 상처나 병 등이 아니라 삶 전체의 무상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불교가 가진 고통에 대한 병적인 민감성은 오히려 불교가 극복하고 초극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니체는 불교가 윤회에서 벗어나고 삶을 완전히 부정하려고한다면서 현실도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불교가 윤회극복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욕망마저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교는 내적인 황홀경으로 도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 지혜 같은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화시키려고 합니다. 불교는 혼자 평온한 종교가 아니라 모두 함께 편안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니체 사상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 무리인 측면이 상당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니체보다 불교가 우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이상이 실현되었으면 하지만 너무나 요원한 이상이죠. 니체의 철학 또한 오늘날 현실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긍정적으로 순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3월 중
◆개강일시 :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인과법 상담은 포교의 훌륭한 방편"

〈불교문예연구〉 '불교와 상담' 주제 특집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가 최근 펴낸 〈불교문예연구〉 제2집에는 불교상담을 특집으로 다양한 논문이 실렸다.

"점찰법, 상담 방편 될 수 있어"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현주 씨는 〈불교문예연구〉 2호에 발표한 '점찰선악업보경에 나타난 마음챙김과 상담의 상관성 고찰' 논문에서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전국 사찰에서 성행했던 '점찰법(占察法)'이 현대의 상담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씨는 "점찰법은 점술과 같이 맹신에 의한 예언법이 아닌 자신의 상태와 문제를 인과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살펴 참회하는 수행법"이라며 "원광 법사가 점찰법회라는 대중친화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은 대중 심리상담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결국 참회를 통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수용함으로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러한 방식이 현대 상담 기법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베다문화에 현대 상담 이론 근거"

정미숙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는 '아유르베다 상담과 불교상담의 상관성 연구'를 통해 인도문화 속에서의 상담기법을 소개하고, 현대 불교 상담기법에의 이론화 근거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철학이자 생활과학으로 이미 상담의 특징을 완벽히 지니고 있다"며 "이 같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론 체계가 있음에도 서양 상담이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아유르베다는 건강과 장수, 회춘, 해방을 목표 한다. 불교와 아유르베다는 적극적으로 신체적 치료에 나서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세상을 고통으로 보며 그 고통으로 부터의 해방을 궁극목표로 하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식이요법 등을 통한 신체적 치유, 심리기질에 따른 심리치유, 의식의 올바른 작용을 증진하는 영적 치유의 세가지 단계의 구조를 불교 상담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의 상담 모습. '불교와 상담' 특집에서는 불교문화에 현대 상담 기법의 이론적 근거가 있음과 포교방편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문들이 수록됐다.

서양 심리학 · 의학과 차이
점찰법 · 베다문호 등에 상담요소
불교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불교상담은 출세간 행복 모두 강조"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 소장은 '불교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불교의 원리가 어떻게 상담에 적용되는지 설명했다.

박 소장은 "서양 심리학과 의학에서 다루는 심리장애는 정상이라고 여기는 범주를 벗어난 이상 증상들 위주다. 반면 불교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흔히 겪는 불만족, 괴로움으로 인한 결과로 범부가 현인이 되도록 돕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박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상담은 출세간적 행복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불교 명상법을 활용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은 현대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훌륭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사찰 소장 목판 일제 현장 조사 시작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전국 사찰 소장 목판 일제조사'를 3월 말부터 본격 시작한다. 연구소는 사업 시행에 앞서 사찰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인 소장가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사찰 소장 목판 일제조사는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1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의 일환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목판에 대한 전수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조사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일선 사찰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흩어진 목판과 누락된 목판을 새로 찾아 정확한 목판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2014년 조사 대상은 인천 · 경기, 충청, 전라 지역 54개 사찰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재연구소 목판 일제조사 대상 사찰

권역	지역	사찰	권역	지역	사찰
경기	인천시	전등사 (조계종)	충남	금산군	신안사 (조계종)
	고양시	원각사 (조계종)		홍성군	용봉사 (조계종)
	광주시	명성암 (미륵종)		부여군	오덕사 (조계종)
		봉일사 (·)		연기군	석련사 (·)
	남양주시	봉선사 (조계종)	전북	김제시	금산사 (조계종)
		불암사 (조계종)			문수사 (조계종)
		흥국사 (조계종)			조앙사 (태고종)
	안성시	봉덕사 (조계종)		익산시	숭림사 (조계종)
		칠장사 (조계종)		전주시	불정사 (태고종)
	양주시	석굴암 (조계종)		고창군	선운사 (조계종)
		회암사 (조계종)		무주군	향산사 (조계종)
	의왕시	청계사 (조계종)		완주군	송광사 (조계종)
	의정부시	망월사 (조계종)		정읍시	화엄사 (·)
	화성시	용주사 (조계종)	전남	순천시	선암사 (조계종, 태고종)
		화운사 (태고종)			송광사 (조계종)
		신흥사 (조계종)			도선암 (태고종)
	양평군	상원사 (조계종)		여수시	흥국사 (조계종)
충북	보은군	법주사 (조계종)		나주시	다보사 (조계종)
	청원군	안심사 (조계종)		곡성군	도림사 (조계종)
충남	공주시	갑 사 (조계종)		구례군	천은사 (조계종)
		마곡사 (조계종)			화엄사 (조계종)
		신원사 (조계종)		담양군	용화사 (태고종)
	보령시	금강암 (조계종)		영광군	연흥사 (조계종)
	서산시	개심사 (조계종)		영암군	도갑사 (조계종)
	아산시	강당사 (조계종)		장성군	백양사 (조계종)
		세심사 (조계종)		해남군	대흥사 (조계종)
	예산군	수덕사 (조계종)		화순군	쌍봉사 (조계종)

"남성 주도의 여성권 신장, 한계 있어"

류경희 박사, 종교와젠더연구소 불교여성 포럼에서 주장



류경희 박사

"초기불교 교단에서 여성의 출가는 불교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기존 남성 위주의 교단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초기불교 교단에서도 결국 남성 위주의 카스트제도와 흡사한 체계가 구축됐다."

류경희 박사(서울대 외래교수)는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교와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가 개최한 '불교발생의 시대적 배경과 여성' 포럼에서 초기불교 당시 인도사회의 개혁으로 여성출가가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불교계의 여권 신장을 주장했다.

류 박사는 "대중신앙과 괴리된 브라흐만교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앞세웠다"며 "대중신앙의 수용과정에서 불교교단에 여성관이 적극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류 박사는 초기불교에서 승가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평신도들에게 의존하였고, 양자간 유대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류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마을과 농경지의 수호신 등에 나타나는 여성적 이미지가 불교에 투영됐다고 주장했다.

류 박사는 이어 "하지만 당시 사문전통이 인도사회의 남녀불평등 문제나 가부장적 관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여성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초기불교에서 여전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류 박사는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남성 주도 하에 진행되며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류 박사는 "부처님 재세시 최초로 여성 출가가 이뤄지고 비구니 승단이 만들어지며 불교를 넘어 인도사회에도 큰 변화가 인다. 이러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남성에 의해 주도된 개혁의 부차적인 요소였기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류 박사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불교교단 내에도 개혁운동 집단 내에 카스트 구조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부장성이 강력히 유지됐다"며 "근대 인도의 종교 · 사회 개혁운동에서 여성교육의 실시, 여성관련 악습 제거를 통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시도들이 이뤄졌으나 어디까지나 남성에 의해 주도된 시도로, 인도의 가부장성을 없앤느 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여수 흥국사 대웅전 긴급복구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처마지붕 일부가 무너진 여수 흥국사 대웅전(보물 제396호)에 대한 긴급현지조사를 3월 14일에 시행하고, 지붕과 기와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파손된 목부재와 기와를 수습하고 강관비계를 설치하는 등 긴급안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긴급복구 작업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여수 흥국사 대웅전은 2014년에 지붕과 목공사 보수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하는 과정에 있으며, 또 2012~2013년에는 정밀실측조사보고서(1.9억 원) 작성, 여수 흥국사 대웅전 단청 모사보고서(1.7억 원) 작성 등 과거 행해진 역사의 흔적과 기록 등을 상세하게 기록보존 하는 등 사전조사를 완료하였다.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 등에 따른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수 흥국사 대웅전은 정밀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어 3월 17일부터 전문기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명상담학회, '현상학' 학술세미나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한국명상상담학회(회장 인경)는 4월 5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현상학의 학제적 연구'를 주제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숙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의 정년 퇴임을 겸해 열리는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이남인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영필 대구교육대 교수의 '깨달음의 현상학' △공병혜 조선대 교수의 '간호학과 현상학' △황용식 전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명상과 현상학의 만남과 대화의 시도' △인경 스님의 '영상관법의 현상학적 이해'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회 제21대 학회장 선거 공고

4월 18일 선거 예정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3월 18일 제21대 학회장 선거 공고를 고시했다.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가능하며 선거인 자격은 정회원 자격에 한한다.

입후보 등록은 4월 2~3일 진행되며 이메일(hanbulhak2014@daum.net)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선관위에서 검토해 4월 7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최종 선거인 확정 명부는 4월 11일 공지되며 선거인 개별에게 이메일로 발송된다.

선거는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종료 직후 열린다.

노덕현 기자

㈜대일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인재불사 포교제일 불국정토 건설의 기치를 걸고
한마음 한 뜻으로 수행과 정진을
함께 하실 스님들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금강성련 합장

전화 : 053)313-3393, 425-3393, 010-4912-3373

총본산 : (종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79- 1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영혼의 소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금강성련스님의 철구



출가하여 승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따뜻한 옷과 잠자리 및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다고 명예와 이익을 구함도 아니요.
번뇌를 끊기 위함이요.
부처님의 지혜를 잇기 위함이요.
삼계에서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 서문 중에서
(네이버,다음에서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도서출판 아름다운인연 I
저자 금강성련스님 I 값 15,000원 I 223쪽

웰빙 힐링 빌리빙

깨달은 108배

표정 + 자세 + 동작 + 호흡법 + 동작알아차림 +
염불대입 + 깨달은 절

700만배 청견스님 깨달은 절수행 완전공개

완벽하게 절하면!
만병통치유

깨달은 절수행 배우시고
부 처 님 가 피 100%
건강소원성취 100%

♣ 스트레스 0 불면증 100% 피로즉석 우울증
냉병 화병 상기병은 같은병

절교육 절수행 점검 상담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 주 소 :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44-23 다비치 5층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신매역 1번출구 1분
수성 I.C 5분, 경산 I.C 10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한반도 탈핵, 종교지도자들이 이끈다"

광주지역 5대 종교지도자. 탈핵 선언과 에너지 절약 나서

3월 11일 핵발전소 폐지 운동 선언
에너지 절약 운동도 함께 전개 결의
"생명 평화 위해선 핵발전 없어야"



성명서를 낭독하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시각 스님과 5대종교 지도자들. 광주지역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 에너지절약운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년을 맞아 광주지역 종교지도자들이 탈핵선언과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광주지역 5대 종교지도자들은 3월 11일 광주중심지인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탈핵 종교인 선언' 을 갖고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 절전소 운동' 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인 종교지도자들은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높은 방사선량으로 인해 사고수습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일반일 연간 피폭 허용량의 2천배가 되는 초고농도 방사능 오염 수증기가 분출되고, 방사능 오염 폐수가 하루 300만톤 이상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돼 우리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핵발전소의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서만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핵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핵발전소를 없애는 것은 생명과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영광한빛원전에서 지난해에도 크고 작은 사고 및 고장, 가동중단, 위조부품 비리, 사고 은폐, 축소 등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삶과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위험한 핵발전소를 없애고,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인들은 이어 △핵의 위험성과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나누고, 피폭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앞장 설 것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종교 · 문화 · 사상을 수렴하고 융합하면서 핵없는 광주 · 전남을 위해 생명연대를 적극 모색할 것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할 것 △2014 지방선거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 의 흐름을 만들고, '방사능 식품 안전 조례' 확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5대 종단 지도자들은 탈핵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에너지 절약 절전소 선언식' 을 가졌다.

이 선언식은 각 종교단체와 기관, 회원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얼마나 절약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자들은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자연의 온도(여름 28도, 겨울 20도)로 생활, 대기전력 제로 생활화, 친환경 LED전등으로 교체, 대중교통 이용,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등을 실천하기로 서약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시각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총무 효진 스님, 행법 스님을 비롯해 광주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NCC, 광주YMCA, 광주YWCA, 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지부, 천도교한울연대 등 각 종단 지도자와 환경단체가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미연합사령관 일행 낙산사 방문

한미연합사령관 일행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낙산사를 방문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부부, 박선우 한미연합부사령관 부부, 김유군 육군 제8군단장 부부 등 한미연합사령관 일행은 3월 15일 낙산사 주지 도후 스님을 예방했다. 도후 스님은 낙산사의 창건과 역사에 대해 설명했으며, 일행은 동해 일출과 설악산 설경을 감상하고, 원통보전에서 낙산사 소실과 복원의 역사를 되새긴 후 낙산사 범종루에서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 타종을 했다. 낙산사 측은 "이번 한미연합사령관의 방문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민과 보다 가까워지려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前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2주기 다례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3월 15일 백양사 대웅전에서 '수산당 지종 대종사 2주기 추모법회' 를 봉행했다. 추모법회는 오전 10시 예불에 이어 인사말(방장 지선스님), 헌다례, 문도대표 인사(수인스님)로 진행됐다.

방장 지선 스님은 "물질문명의 과도한 발전으로 인해 도덕 윤리적으로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이때 수산 큰스님의 가르침과 역대 백양사의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문도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와 화합으로 고불총림을 계승하자"고 말했다.

전 고불총림 방장 수산 지종스님은 1922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1938년 백양사에서 법안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일생을 대중교화와 수행, 포교에 진력해 온 스님은 2004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에 추대되었으며 2012년 3월 7일 입적했다. 세수 91세 법랍 73년.

한편 백양사는 백양사 산중총회와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의 방장추대식을 오는 4월 22일 백양사에서 봉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마이산 탑사 20년째 장학금 전달



신비의 돌탑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스님)가 20년동안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3월 17일 진안 군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갑룡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는 37명의 초중고생들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 현장에는 갑룡장학회 명예회장 혜명스님, 진성스님을 비롯한 탑사 대중스님들과 김기원 전북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구훈회 진안 자원봉사센터장등 자원봉사단 관계장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전달에 앞서 갑룡장학회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구훈회)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2016년까지 3년간 2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150년 전 탑사의 돌탑을 축조한 이갑룡 처사의 이름에서 따온 '갑룡장학회' 는 1994년 설립 이후 200명이 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총 2억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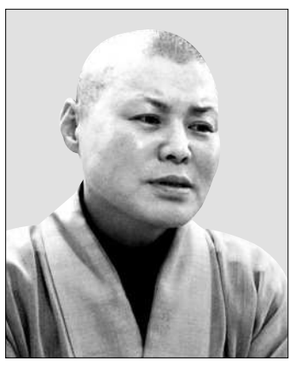
진성 스님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부형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행해오던 전달식을 상 ·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수혜학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은 받은 최지호(진안공고 2)군은 "마이산 탑사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며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화재 보존, 불교계 입장 적극 대변할 것"

회일 스님, 전북 문화재위원 위촉



전주 참좋은우리절 회일 스님〈사진〉이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에 위촉됐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 21일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조물, 사적지, 전통 가옥을 담당하는 1분과 위원에 회일 스님을 위촉했다.

회일 스님은 "전북지역의 전체 문화재 중 60% 이상을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교문화재에 대한 권리, 보호 육성방안에 불교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우리 민족과 함께 발전해온 역사에 기반을 둔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종교문화재로만 보는 그릇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불교문화재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라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문화재에 대해 전통과 문헌에 근거한 복원과 보수, 계승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불교계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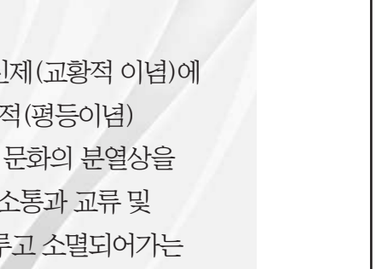
스님은 백제문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전북 지역이 백제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주나 부여의 충청권에 주도권을 넘겨줬다"며 "전북 문화계가 전통성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북 불교계가 백제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민간단체의 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관련 학계에 불교계 인재가 많이 부족해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증심사 정우 스님 초청 법회



광주 불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던 '무등산 증심사 명사초청법회' 가 3월 15일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을 첫 법사로 모시고 2014년 강의를 시작했다.

'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을 주제로 진행되는 증심사(주지 연광) 명사초청법회는 광주지역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출 · 재가를 아우르는 33인의 선지식을 초청하는 대중법회이다.

정우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열반이란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가 소멸되는 것"이라며 "불자들의 노력은 결국 많은 대중들을 향해 항상 노력하고 선업을 짓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증심사는 이날 정우 스님에 이어 4월 14일 이중표 교수(전남대학교 철학과), 5월 13일 재연스님(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장), 6월 12일 국제불교초청대법회, 7월 11일 수불스님(부산 범어사 주지), 8월 19일 한탑스님(문사수 회주), 9월 17일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10월 8일 자현스님(동국대 겸임교수)을 매월 보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참다운 나 찾아 근면 수학하길"

울산 백양사 불교전법대학 3월 16일 개교식

신도 기본교육을 위한 울산 백양사(주지 목산) 불교전법대학이 3월 16일 첫 신입생들을 맞이했다. 백양사는 2012년 불교전법회관을 설립하여 불교전법대학을 개교하고자 했으나 중창불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기가 연기됐었다.

미루어졌던 계획들은 작년 9월 백양사 신도 중심으로 불교대학설립 운영회가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불교전법대학 설립이 추진됐고, 주·야간 각각 55명, 총 110명의 인원을 확정함과 동시에 올해 2월 12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불교대학 정식 인가를 받아 조계종 교육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백양사 신도들과 주지 목산 지은 스님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교대학 설립은 3월 16일 백양사 대웅보전에서 '불교전법대학 개교 대법회'를 봉행하며 공식적인 첫 걸음을 뗀 셈이다.

학장 목산 스님은 "불교대학 입학생 여러분, 부처님의 진리를 폭넓고 깊게 연구하는 구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학업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원력을 굳게 가지고 참다운 나를 찾는다는 자세로 근면 수학하는 학생이 되길 당부드립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목산 스님은 불교대학을 설립하게 된 계기를 "포교를 잘 행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포교하는 사람과 접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기본 교리부터 심화된 부분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정한 불자는 물론 많은 이들을 이끌어줄 선도자 같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입재식에서는 신입생 선서, 교기



울산 백양사 불교전법대학이 3월 16일 입학식을 갖고 첫 신입생들을 맞이했다.

주·야간 110명 신입생 맞아

현판식·수계식도

전달 등 입학생들의 불교 수학 정진을 발원하는 식순이 진행됐으며, 백양사 주지 목산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을 비롯한 정갑윤 국회의원,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등 10여명의 내빈들과 110명의 입학생들이 참석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학장 목산 스님이 서원하셨던 큰 업을 이루셨다. 참 감사하고,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는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아는 만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진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등 다양한 지식을 수학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불교전법대학 1기로 입학하게 된 이순형(60) 씨는 "백양사는 울산에서 중심이 되는 사찰이다. 백양사에서 불교를 깊게 공부하고 싶은 염원이 항상 있었는데, 작년부터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다. 감사드린다. 또한, 첫 시작 1기라는 것이 감회가 남다르다. 후에 공부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여 질 높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또한, 신심 깊은 동기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데,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날 것 같다"며 앞으로의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백양사는 이날 일주문에 새로 새겨진 '불교대학' 현판 공개식을 거행했으며, 입학생들을 위한 수계식이 '불교전법대학 개교 대법회'에 앞서 봉행됐다.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은 "학문적인 수학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올바른 생활을 영위하여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며 불자로서의 바른 생활을 강조했다. 백양사 불교전법대학 과정은 1년 과정이며 매년 3월 개강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저항하지 않는 달팽이처럼 살아라"

3월 18일 정목 스님 동명대 특별강연

힐링멘토 정목 스님이 3월 18일 부산 동명대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특별강연을 가졌다. '마음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보여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목 스님 동명대 특강

정목 스님은 "돈, 명예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유명 인사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괴로움을 호소한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달팽이'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며 삶의 지혜 5가지를 전했다.

첫째, 타인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다. '달팽이'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빠르고 느림의 '속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달팽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따라서 자신만의 인생 속도에 누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만의 삶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라.

둘째, 달팽이는 저항하지 않는다. 달팽이는 날카로운 칼날위에 올려놓아도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생물이다. 너무 느려서 칼날의 날카로움과 투쟁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평소 좋다, 싫다 수많은 판단분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맞서려고만 한다. 이별, 죽음 등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들도 사실 삶의 필연이자 한 부분이다.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니 받아들여라.

셋째, 달팽이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달팽이는 눈이 없지만, 더듬이로 간다. 또한, 후진하지 못하는 생물이다. 여러분의 인생속도로 천천히 가도 상관없다. 단지 달팽이처럼 후진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

넷째, 달팽이는 위험이 오면 숨을 줄 안다. 달팽이는 자신의 분수에 맞는 딱 알맞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험이 앞에 나타나면, 숨어버린다. 위험이 나타났다고 해서 숨어버리는 것이 잘못되고 소심한 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나타나면 잠시 숨을 가다듬고, 시간의 흐름에 맡겨라.

다섯째, 달팽이는 세상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달팽이를 어항에 넣으면, 물고기들이 쌓아놓은 오물들을 먹는다. 어떠한 것도 해치지 않는다. 우리가 달팽이처럼 세상을 정화하는 방법은 바로 언어를 존경하는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도 덩달아 행복해질 것이다.

위 5가지 지혜 외에도, 정목 스님은 "여러분 존재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다. 애써 타인이 정한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을 존중하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공부하는 것이 은혜 갚는 도리"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입학식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입학식

조계종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입학식이 3월 14일 열렸다. 이번 입학식에는 원장 지안 스님, 주지 흥선 스님과 입학생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불전한문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오늘날 승단의 인적 수행교육 문제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시기에 불전한문승가대학원의 설립이 깊은 의미가 있다. 경전은 물론 동양문화 사상의 학문연구에 한문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승단의 현실에서 인격과 전문분야의 실력배양은 참으로 중요하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흥선 스님(직지사 주지)은 "누군가는 가야할 길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하는 작은 출발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도리임을 알아 최선을 다해 종단의 인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직지사를 공부하는 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정진하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평생 모은 살림살이, 고서 구입에"

백운 스님, 고문서 124종 174권 범어사에 기증


백운 스님이 3월 17일 고서 174권을 금정총림 범어사에 기증했다.

백운 스님(미륵사 회주)이 3월 17일 고서 174권을 금정총림 범어사에 기증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은사인 백운 스님이 기증한 고문서들은 스님께서 평생 동안 모은 서적들로, 고려후기부터 20세기까지의 고서들이다. 또한, 시대미상의 책들과 문화재급 가치로 추정되는 고서들이 상당수 존재해 향후 시문화재 지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기증식에는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경선 스님을 비롯한 소임 스님들과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 1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은사이신 백운 스님은 평생 동안 당신의 살림살이를 팔아 고문서를 직접 모으셨다. 후학들에게 수행정진과 경전연구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이 서적들을 기증하기로 결심하셨다. 또한, 백운 스님은 출가본사인 범어사를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다"고 전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잘 보관해서 후학들에게 백운 스님의 뜻을 더욱더 알리겠다. 평생 검소하게 생활하시며 어렵게 모은 큰 스님의 고서들을 보니 숙연해진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고서들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정리 및 조사한 것으로 범어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다.

백운 스님은 1944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으며, 화엄사강원, 범어사강원 등에서 강주를 역임했다. 또한, 1954년 4월 봉암사 선원에서 수선 안거 및 10하안거를 성만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극락사 해수관음 점안 및 해향교 낙성식


극락사 해수관음 점안식

경남 사천시 서포면 (사)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 극락사(주지 동진)는 3월 19일 해수관음 점안 및 해향교 낙성 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300여명과 지역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지 동진 스님은 "많은 불자님들께서 극락사를 아껴왔다. 앞으로도 화합하는 극락사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동용궁사 주지 정암 스님은 "형상에 의지 하지 말고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면 불보살님이 강림 하시어 광명을 비추어 줄 것"이라고 축사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부처님의 출가부터 열반까지'

통도사 3월 15일 출가열반재일 기념법회 회향


통도사 출가열반재일 회향 법회

통도사 출가열반재일 기념법회 '출가에서 열반까지'가 3월 15일 설법전에서 열렸다. 통도사 출가열반재일 기념법회는 부처님 출가재일인 3월 8일부터 열반재일 3월 15일까지 8일 동안 이어지는 특별법회로 첫째날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에 이어 지안 스님, 우진 스님 등 여러 대덕스님들이 부처님의 출가, 가르침, 열반 등의 주제로 설하는 법석이다. 또한, 기념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은 통도사 설법전과 금강계단에서 금강경 독송 및 108배 정진을 하며,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뜻을 기렸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열반은 죽음이다.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완결이다. 부처님의 죽음은 깨달음의 일체이다. 또한, 불자들은 용기와 지혜 인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사라진 도량 역사 마애불에서 읽는다

④ 안성 굴암사 · 굴암사 마애여래좌상, 마애선각여래좌상

"옛날 송전공립보통학교 1학년 때 / 처음으로 원족을 갔던 굴암사, / 사푼사푼 잘도 올라갔던 생각이 / 다시 찾아든 산길 / 하두 험하고 가파라서 쉬엄쉬엄 오르매 / 옛날은 까마득하다 / 허이허이 오르는 산길 / 절은 하늘 위에 있다 / 아, 어머님, 어머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십니다 / 할 때, 한 소년이 사푼사푼 내 곁을 앞질러 오른다 / 나를 힐끗 뒤돌아보며." 시인 조병화의 시 '굴암사' 이다.

궁금한 절, 굴암사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자그마한 산, 비봉산 자락엔 두 기의 마애불상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굴암사 마애여래좌상(안성향토유적 제11호)과 굴암사 마애선각좌불상(안성향토유적 제12호)이다. 마애불을 모신 절은 굴암사이다. 마애불과 절의 내력은 고려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료가 전하지 않는다. 마애불과 절, 모두 어찌 살아 왔는지 알 수 없다. 절의 내력에는 그 흔한 전설 하나가 없다. 그 시절에 닿기엔 너무나 아득한 시 한 편이 있을 뿐이고, 그나마 절의 내력을 알고 있는 두 마애불의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마애불의 내력만 알 수 있어도 좋으련만,

안성 비봉산 자락 두 기의 마애불
마애불과 절 정확한 사료 없어
시인 조병화 시 '굴암사' 남겨

마애불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오는 것이 없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내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서글픈 일인 것 같다. 절이 서고 그 힘든 부처님을 모셨는데 글 한 자가 없을 수 없고, 구전 한 마디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서글프다고 한 것은 내력을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력을 전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라진 글들, 전해지지 못한 이야기들이 궁금한 절, 굴암사다.

굴암사에 가면

앞서 말한 시, '굴암사' 는 조병화(1921~2003) 시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며 지은 시이다. 법명이 원행심이었던 시인의 어머니는 그렇게 굴암사엘 다녔고, 시인은 보통학교 때 굴암사로 소풍(원족)을 갔다. 시인이 된 소년은 훗날 어머니가 걸었던 그 길을 되밟으며 어머니를 추억한다. 시인의 추억은 한 편의 시가 되었고, 그 한 편의 시는 글자 한 자가 아쉬운 굴암사의 소중한 이야기가 한 편이 됐다. 그리고 그 소중한 이야기를 남기고 또한 역사가 된 시인은 굴암사에 발자국을 남겼다. 시인의 발자국을 밟으며 도량으로 들어서면 허전한 역사만큼 도량 역시 그 허전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 시절을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거의 없다. 연못가에 서있는 삼층석탑 한 기가 그 시절과 가장 가깝게 보이고, 전각은 최근에 지은 대웅전이 전부다.


굴암사 마애여래좌상(안성향토유적 11호)

알 수 없는 역사가 많지만 잊힌 불터에 설 때 마다 알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더 바라보게 됨이 작은 위안이다. 알 수 없는 것들 앞에 서면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아쉬운 눈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서 있다 보면 가슴이 애를 쓴다. 그렇게 가슴이 애를 쓰다보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알 수 없는 것' 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스치듯 지나가는 많고 많은 자리 중에 그래도 잠시 두 발을 모았으니 그저 모르는 자리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굴암사 역사 간직한 마애불

역사를 알 수 없고 흔적이 없어 조금 쓸쓸하고 허전해 보이는 굴암사이지만 도량엔 분명 가볍지 않은 세월을 간직한 마애불이 있다. 마애불 앞에 두 발을 모으면 역시 가슴이 애를 쓴다. 시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연못 옆으로 거대한 바위를 끼고 계단을 오르면 바위 끝에 부처님이 계신다. 향토유적 11호굴암사 마애여래좌상이다. 화강암의 암벽에 양각으로 조성한 높이 3.5m의 마애불은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있고, 머리 위에는 육계가 있으며 상호는 원만하고 목에는 3도가 선명하고 법의는 통견으로 조각되어 있다. 전면에 백색칠을 해놓았고 왼손엔 보주가 있다.

마애여래좌상 오른편 갈라진 바위 사이로 굴법당이 있고, 이어진 바위에는 전체 높이 4.17m의 마애불이 또 있다. 향토유적 12호 굴암사 마애선각좌불상이다. 부분적으로 마멸된 흔적이 있지만 원형은 거의 남아 있는 편이다. 굴암사에 가면 어찌 살아 왔는지 알 수 없는 마애불이 발걸음을 붙잡는다.

안성 굴암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호암사 마애선각좌불상(향토유적 12호)


마애선각좌불상이 새겨진 바위에 조성한 굴법당


굴암사 전경

주변보기

〈사찰〉

¡ **칠장사** /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칠장리)

636년(선덕여왕 5)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고려 초기에 혜소국사가 현재의 비각(碑閣) 자리인 백련암(白蓮庵)에서 수도할 때 찾아왔던 7명의 악인을 교화하여, 7인 모두가 도를 깨달아 칠현(七賢)이 되었으므로 산 이름을 칠현산이라고 했다고 한다. 혜소국사는 왕명으로 1014년(현종 5)에 이 절을 크게 중창했다. 1674년 거사 초견(楚堅)이 중수했다.

〈명소〉

¡ **조병화 문학관** / 031-674-0307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산337



조병화문학관은 편운 조병화의 유품 및 창작저작물, 그림을 상설 전시하는 문학기념관으로서, 조 시인이 전 생애의 창작활동을 통해 추구해 온 꿈과 사랑의 시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으며, 한국 현대문학의 한 발자취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 **안성맞춤랜드** / 031-678-2672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6-31

안성맞춤랜드는 전통공연과 체험이 있는 곳으로 344,514㎡(104,215평) 규모의 공간에서 계절별로 자연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서, 가족단위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하고 전통문화예술과 체험 학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남사당 공연장** / 031-678-2518

안성 최고의 전통놀이인 남사당 풍물놀이를 계승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보개면 복평리에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이 조성되었다. 전수관 앞마당에는 황토를 다져 야외무대를 갖추고 있으며 아트센터마노와 한 곳에 있어 문화의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숙박〉

레이크스힐스 안성리조트 / 031-671-2888
고삼재 / 031-677-8000

〈식당〉

태평관 / 031-676-3001 / 해물짐. 탕류
장인가마솥곰탕 / 031-677-0391 / 한식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인 등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탑의 진화

⑦ 마하보디(대보리사) 대탑

부처님 성불자리… 여러차례 복원

수자타 여인의 유미죽 공양을 받은 고타마 태자는 네란자라 강을 건너 보리수 나무 아래 자리를 마련하여 깊은 선정에 들었다. 마침내 새벽하늘에 샛별을 보는 순간 마음속의 욕망과 잡념이 사라졌다. 드디어 깨달음을 방해하던 마왕을 물리치고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체득한 것이었다. 고타마는 이제 더 이상 수행자가 아니라 성불을 이룬 부처님이 되셨다.

이 성스러운 깨달음의 장소를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 대왕이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 보리수나무 밑의 금강좌를 중심으로 동쪽에 불탑을 조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마하보디 대탑의 최초 조성이었다.

마하보디 대탑은 인도 북동부 비하르(Bihar)주 가야(Gaya)시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불교의 4대 성지 중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 불탑이다. 현재 높이가 55m나 되는 이 탑은 방추형의 9층탑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매우 웅대한 탑이다.〈사진1〉

지난 호 까지 알아 본 인도의 불탑은 산치의 탑처럼 대부분이 원형의 기단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하보디 대탑의 경우 기단은 물론 탑신이 사각형을 이루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4각형 구조에 대한 조성의 근거는 여러 경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장아함경〉속의 〈기세경〉을 비롯하여 〈불반니원경〉과 〈대루탄경〉, 〈반니원경〉, 〈기세인본경〉등에 불탑의 형상에 관한 경설이 있는데, 모두가 한 결 같이 사각형의 구조를 암시하고 있다.

〈불반니원경〉에는 **불탑의 길이와 너비는 한 길 다섯 자가 되게 하고, 사리를 담은 황금병을 바로 그 중앙에 안치하며, 비단 번기를 높이 달아라.** (〈대정신수대장경〉 1권 174쪽 하단)고 하며, 〈대루탄경〉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거리 가운데 칠보로 탑을 세우고 그 속에 사리를 안치한다. 탑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40리 이다.** (〈대정신수대장경〉 1권 283쪽 상단)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반니원경〉에서도, 사부대중이 구이성에 모여 아난존자에게 불탑의 조성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니, 아난은 **"마땅히 성에서 40리쯤 되는 위치향(衛致鄕) 사거리 가운데에 불탑을 세워야 한다. 재료는 구이국의 호족들이 함께 만든 벽돌로, 높이는 1장 5척이며, 너비 또한 가로와 세로가 모두 1장 5척으로 해야 한다. 또, 황금항아리에 사리를 담아 그 속에 안치하고 찰간대를 세워 법륜을 표시하고 그 위에 비단 번기를 단다.** (〈대정신수대장경〉 1권 190쪽 하단) 라고 알려주었다.

이처럼 불탑의 크기는 경전마다 차이가 있지만, 형상은 모두가 사각형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보디 대탑이 사각형의 구조를 하는 것은 경전에 근거한 당연한 것이었다.

물론 아쇼카 대왕이 처음 조성 할 당시에는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다. 5세기에 중국의 법현스님이 이곳을 참배하였다. 그가 남긴 기행문인 〈법현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득도하신 곳에는 탑이 있고, 세 개의 승가람이 있는데 모두 스님들이 거처하고 있으며, 보시물이 풍부하여 인근 민가의 주민들까지 모두가 풍족하게 살고 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 〈법현전〉에 의하면, 비록 구조나 형상은 알 수 없지만, 불탑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중국 당나라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보다 자세한 기록을 엿 볼 수 있다.

대보리사는 3층이며, 담장의 높이는 4장(丈)으로 벽돌로 되어 있다. 사자국(獅子國)의 왕이 이곳을 사들여 절을 지어 대승 상좌부 소속의 천여 명의 스님들이 주석하고 있다. 이 탑에 봉안한 사리는 큰 것은 진주와 같고 크기는 사람의 손가락 마디와 같다. 매년 1월 15일 저녁이 되면 이 사리는 반드시 광명의 빛을 발하고, 하늘에서는 기이한 꽃이 떨어져 탑 앞의 보리수나무를 덮는다. (중략) 보리수나무 동쪽은 푸른 벽돌로 지은 대탑이 있는데 높이는 160여 척이요, 터의 너비는 20여 걸음이다. 위에서 돌로 갈고리 모양의 난간을 둘러놓았는데 그 높이는 1장이요, 층층으로 되어 있는 감실에는 모두 불상이 있으며 네 벽에는 여러 보살상을 새겨 놓았고 꼭대기는 금동의 아마륵가 열매 모양으로 되어 있다.[이것을 보병(寶甁) 또는 보대(寶臺)라 한다.] 동쪽은 3층탑이 접해 있는데, 그 처마가 특이하다. 모두 금과 은으로 장식하였으며 3겹 문 밖의 감실에는 왼쪽에 관세음보살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륵보살상이 있는데 모두 은을 재료로 하여 조성하였다. 높이가 1장쯤 되는데 이것은 아쇼카 대왕이 지은 정사로서 처음에 작았던 것을 뒤에 확장시킨 것이다.

이 〈대당서역기〉의 기록에 의하면, 현재의 모습처럼 9층이 아닌 3층의 불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탑이

부처님 성불자리 마하보리대탑 조성

불교 4대 성지 중 가장 성스러운 곳

터키군 침공 폐허 · 미얀마 왕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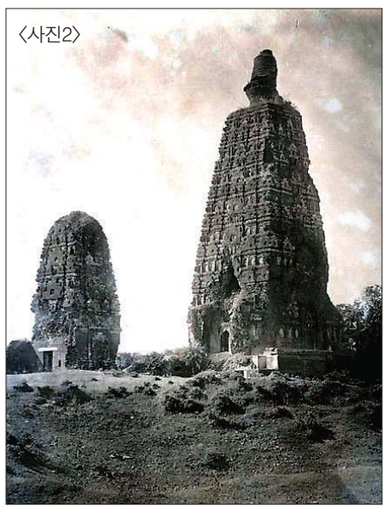
한동안 힌두교 사원으로 오인

고승 담마팔라 등 '불교성지화' 추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사진1〉 마하보디 대탑은 인도 북동부 비하르(Bihar)주 가야(Gaya)시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불교의 4대 성지 중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 불탑이다. 현재 높이가 55m나 되는 이 탑은 방추형의 9층탑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매우 웅대한 탑이다.



〈사진2〉 마하보디 대탑은 폐허와 복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사진3〉 마하보디 대탑 1층은 굴로 된 법당으로 불상이 모셔져 있다.



〈사진4〉 마하보디 대탑 담장 옆에 있는 보리수나무

지금처럼 산재하고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11세기에 터키의 군대가 침공하자 이곳은 폐허가 되어 더 이상 불교성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인도에서 불교가 쇠태하자 이 대탑은 힌두사원이 되어 불자들은 참배도 할 수 없게 되었다.

12세기에 이르러 미얀마의 왕이 이 정보를 듣고 이곳의 힌두 왕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 불탑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나서야 거의 현재처럼 복원하였다. 복원을 완성한 미얀마 왕은 이 곳의 왕과 함께 참배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후 18세기까지 마하보디 대탑은 폐허와 복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고고학적인 전문지식 없이 복원되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귀중한 유물들과 불탑의 원형이 크게 소실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사진2〉 그러다가 19세기 말인 1883년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햄과 베글라(J.D Begllar) 그리고 인도의 고고학자 라젠드랄 미트랄(Rajendralal Miitra)박사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커닝햄의 주장에 따라 그 이전까지는 힌두교 사원으로 여겨졌던 이곳이 부처님의 성도지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 불자들에게는 큰 의의가 있었다. 1879년에는 '동방의 빛(The Light of Asia)' 이라는 서사시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린 영국시인 에드윈 아놀드(Edwin Arnold)에 의하여 마하보디 사원의 대탑 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1891년에는 스리랑카의 고승인 담마팔라가 부다가야에 도착하여 불교성지를 보존하고 불법홍포를 자신의 수행목적으로 삼아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였다. 특히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의회에 인도 대표로 참석하여 마하보디 사원의 불교성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하트마 간디, 시인 타고르 등이 가세하여 당시의 인도 수상 네루에 의해서 이 성지를 힌두교들로부터 불교도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하였다.

2002년 6 월 27일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지난해인 2013년 7월 7일 새벽에 9개의 연쇄 폭발의 폭탄 테러사건이 있었다. 다행히도 깨달음의 상징인 보리수나무나 불탑의 유적은 큰 손상이 없었으나 순례 객이 부상을 입는 상상하기도 끔직한 사건이었다.

마하보디 대탑 1층은 굴로 된 법당으로 불상이 모셔져 있다.〈사진3〉 약 6평정도 규모의 법당 서쪽 벽면에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상은 1m 정도의 불단위에 모셔진 본존불이다. 이 본존불의 높이는 약 1.8m 이며, 9~10세기경에 팔라왕조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마한트의 힌두사원에 방치되었던 것을 이곳으로 모셔온 것이다. 그러나, 637년에 현장법사께서 친견한 불상은 높이가 11자 5치(약 3.5m)로 현재의 불상보다는 상당히 큰 불상이었다. 지금의 본존불은 재질이 검은 색깔의 석불이었으나, 미얀마의 한 불자가 금을 시주하여 개금을 하였다.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으나, 언제나 황금색의 가사를 걸치고 계셔서 일반인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한 때 힌두사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처님 불상 밑에 링가를 모셨으나 지금은 철거되었다.

마하보디 대탑 담장 옆에 있는 보리수나무는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가 이 나무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마침내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셨기에 깨달음의 나무라고 한다. 현재의 보리수는 부처님 당시부터 5대째 자손에 해당된다고 전하고 있다.〈사진4〉

이 보리수나무에 대하여 〈법원주림〉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한다.

그 나무의 푸른빛은 겨울과 여름에도 변하지 않는다. 열반에 드는 날과 늦여름에는 한꺼번에 말라 떨어졌다가 하룻밤만 지내면 새로 나서 옛날과 같이 된다. 뒤에 아쇼카 대왕의 비(妃)가 이 나무를 베어 서쪽으로 수십 보 밖에 모아 두고 하늘에 제사지내기 위해 불을 질러 태웠다. 연기와 불꽃이 끊이지 않고 오를 때 갑자기 두 나무가 나면서 사나운 불길 속에서 잎이 무성하게 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재보리[灰菩提]나무라 했다. 왕은 그것을 보고 신심이 생겨 향유(香乳)를 거기에 쏟아 부었다. 다른 뿌리에서도 아침이 되자 나무가 나서 전과 같이 되었다. 왕비는 화를 내어 그날 밤에 또 그것을 베었다. 왕은 다시 기도하고 향유를 쏟아 부었다. 며칠이 안 되어 나무는 다시 났다. 돌로 담을 둘러쌓았는데 둘레는 1장(丈) 남짓했다. 근래에 금이국월왕(金耳國月王)이 또 이 나무를 베려고 샘물 밑까지 파내려갔으나 그 뿌리 밑에까지 갈 수 없어 결국은 불을 놓아 태우고 또 감자(甘蔗)로 씻어 그것이 썩어 뿌리가 끊어지게 했다. 몇 달 뒤에 아쇼카 대왕의 손주가 나무가 베이었다는 말을 듣고는, 온몸을 땅에 던지고 스님을 청해 이레 동안 경행하고, 나무 주위에 큰 구덩이를 파고 수천 마리 소의 우유를 거기에 쏟아 부었다. 엿새째 되던 날 밤에 나무는 다시 나서 1장(丈)이 넘었다. 그러나 뒤에 다시 베일까 두려워해 그 주위에 높이 2장 4척의 돌담을 쌓았다. 나무는 지금 돌담보다 2장 넘게 더 높고 그 둘레는 3척이 넘는다. (〈대정신수대장경〉 53권 502쪽 중단) 라고 하여 이 보리수나무의 종교적 신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 · 우인보





공약삼장 쓴 만해 스님… 3.1운동 주도하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⑥ 3.1운동과 만해, 그리고 태화관

기미년(1919) 3.1운동은 민족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결집된 거국적이고 평화적인 독립투쟁이었다. 이 같은 운동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만해 스님의 회고대로 "일제의 혹독한 탄압 정책으로 국내의 정치단체는 '절종(絕種)' "됐기 때문이다.

주지한대로 3.1운동은 1918년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 의 영향을 받았다. 독립운동의 때를 기다리던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일제히 민족 독립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에는 만해 스님도 있었다.

만해 스님은 1918년부터 각계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자주 만나 독립운동을 논의했다. 이들은 애초 구황실의 귀족들과 대한제국 고관, 재력가들을 끌어 모아 200명 정도의 동지들이 규합하는 궐기를 구상했다.

만해 스님은 직접 최린과 권동진, 오세창을 만나 참여자의 뜻을 모으고 천도교 측이 추진 중이던 독립선언 개입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실제 3.1운동 궐기에 있어서 만해 스님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월남 이남재와의 일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만해 스님은 이남재를 찾아가 독립운동 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남재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니 독립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총독부에 '독립청원서' 를 내자" 고 제안했다.

실제 이남재의 주장은 운동을 준비하는 진영 안에서도 함께 있었던 논란이다. 만해 스님은 이남재 등의 주장을 일축하며 '독립선언' 을 주창했다.

만해 스님은 "일본에 독립을 청원하는 것은 조선이 독립국이 아닌 일본의 예속국이라는 인상을 주며 그것은 비복(婢僕)이 상전에게 선처는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 고 설파했고, 결국 '독립선언' 으로 노선이 정해졌다.

이후 만해 스님은 불교 대표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 1919년 2월 하순 범어사에서 오성월 스님과 김법림 스님을 만나 불교계의 독립운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박한영, 정진응 스님 등을 만났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합류하지 못했고, 백용성 스님만 민족대표로 참여하기로 했다.

유림(儒林)을 포섭하는 것도 만해 스님의 몫이었다. 거창에서 영남 유림의 거두 면우 곽종석을 만나 승낙을 얻었지만 3월 1일 직전 급환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곽종석은 인편으로 인장을 보냈으나 이 역시 시일 내 도착하지 못했다. 민족대표로 참석하지 못한 곽종석은 훗날 '파리장서' 를 주도하게 된다.

결국 민족대표는 불교 2명,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총 33인으로 정해졌고, 거사일인 3월 1일이 됐다.

민족대표들은 3월 1일 오후 1시 서울 태화관에 모였다. 본래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를 낭독하고 이를 선포하려 했으나, 전날 밤 민족대표들은 장소를 태화관으로 변경했다. 만일의 경우 흥분한 민중들이 폭력화해 왜경과 충돌하는 것을 우려해서였다.

만해 스님 3.1운동 주도적 역할
불교 · 유림 소집… 공약삼장 첨가
종로 태화관서 독립선언서 발표
만해 "최후 一人까지 독립 쟁취"
발표 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공약삼장 만해 집필 아냐" 주장에
故김상현 교수, 티흐노프 교수 등
"공약삼장, 만해가 썼다" 반박

사실 태화관은 이래저래 얄궂은 곳이다. 태화관은 본래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의 별장이었고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정사를 논하기도 했던 곳이다. 이후 이완용이 이사하며 여기에 궁중요리사 안순환이 요리집을 개점했다. 모체인 명월관은 친일파들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돈으로 방탕하게 노는 곳으로 유명했으나 1918년 화재로 소실됐다.

이후 안순환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명월관의 별관인 태화관을 열었으며, 기생들과 양악대가 춤과 노래를 제공해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이후에는 주로 언론인과 문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다.

현재 자리에는 기독교 감리회의 태화복지재단의 건물인 태화빌딩이 들어서 있다.



옛 태화관인 태화빌딩과 이곳이 '삼일독립선언유적지'임을 알리는 표지석. 현재는 개신교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곳이 3.1운동 장소라는 것은 '삼일독립선언유적지' 라는 표지석만이 알리고 있다. 일제의 폭거에 맞선 평화적 독립투쟁의 시작을 알린 장소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쓸쓸하다.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의 인쇄를 담당한 이종일이 가지고 온 선언서를 돌려 읽고, 만해 스님의 식사(式辭)를 들었다. 식사는 최린이 만해 스님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오늘 우리 모임은 곧 독립 만세를 고창해 독립을 쟁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고 민중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을 바쳐 자주 독립국이 될 것을 기약하고자 여기 모인 것이니 정정당당히 최후의 일인까지 독립 쟁취를 위해 싸웁시다."

독립선언 시각인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손병희는 최린으로 하여금 태화관 주인 안순환이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걸게 하여 "민족대표 일동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지금 축배를 들고 있다" 고 통고했고 일본경찰대 80여명이 곧 달려와 태화관을 포위했다.

이때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만해 스님의 식사를 듣고 그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 를 제창한 뒤 일본경찰에 의연하게 연행됐다. 이와 함께 탑골공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독립의 함성은 전국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다.

민족대표들이 왜경에 끌려갈 때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몰려나와 "독립 만세" 를 부르고 있었다. 만해 스님은 경찰차 안에서 본 그 광경에 깊은 감회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만해 스님이 1932년 1월 8일 〈조선일보〉에 회고한 '평생 못 잊을 상처' 를 보면 알 수 있다.

"기미운동이 폭발할 때 온 장안은 '대한독립 만세' 로 요란하고 인심은 물 끓듯 할 때에 우리는 지금의 태화관 당시 명월관 지덤에서 독립선언 연설을 하다가 경찰에 포위돼 한쪽에서는 연설을 계속하고 한쪽에서는 체포돼 자동차로 호송돼 가게 됐습니다. 그때입니다. 12~14세 돼 보이는 소학생 두 명이 내가 탄 차를 향해 만세를 부르고 일경의 제지로 개천에 떨어지면서도 불렀습니다.〈중략〉 그때 그 학생들이 누구이며, 왜 지극히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본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하였습니다. 그때 소년들의 그림자와 소리로 맺힌 나의 눈물이 일생 잊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만해 스님의 주도로 진행된 3.1 운동의 정신은 '독립선언서' 로 집약된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끝에 있는 '공약삼장(公約三章)' 은 선언서를 집약하는 행동강령이다. 일제는 선언서보다 공약삼장을 트집잡아 내란음모죄로 몰아가려 했다. 일반적으로 선언서는 최남선이 쓰고, 공약삼장은 만해 스님이 기술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모두 최남선이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1919년 3월 1일 발표된 독립선언서 전문.



태화관에 모여 있는 민족대표를 상상한 그림. 이들 모임을 주도한 것이 만해 스님이다.

1969년 문인 조용만은 〈동아일보〉에 만해 스님이 '독립선언서' 의 초고를 보지 못한 점을 들어 선언서의 본문을 물론 공약삼장까지도 최남선이 전담했다고 기고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 교수도 당시 여러 글에서 △일제가 심문과 공판에서 최남선을 기초자로 파악하고 심하게 추궁했으나 만해 스님은 추궁하지 않았고 △만해 스님에게 최린은 선언서 초고를 맡기지 않았으며 △선언서를 수정할 시간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만해 스님의 공약삼장 기술설' 을 반박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박은 이어졌다. 故김상현 동국대 명예교수는 만해 스님의 제자 김관호, 최범술의 회고를 비롯해 △스님 역시 심리 중에 공약삼장의 취지에 대해 추궁받은 점 △인쇄 전에 스님은 초고를 보았고, 수정할 시간적 여유도 있던 점 △만해 스님이 공약삼장을 추가했다는 이갑성의 생전 증언 등을 제시하며 '만해 스님의 공약삼장 첨가설' 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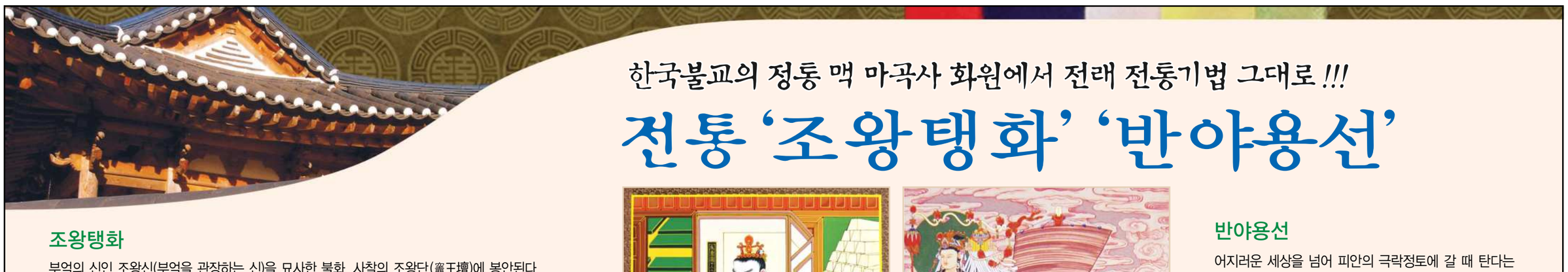
특히 김상현 교수는 "최후의 한 사람,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투쟁을 해야 한다는 공약삼장의 굳센 정신은 '때가 아닐 때 경솔히 행동하지 않겠다' 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한 최남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티히노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동양학 교수는 공약삼장을 선언서의 '눈동자' 이고 만해 스님의 사상과 신념의 축약판으로 봤다. 티히노프 교수는 "불교의 해탈 · 불살생 · 박애주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온 만해 스님이 자유 · 비폭력 · 세계주의를 골자로 하는 '공약삼장' 의 필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했다.

〈만해 한용운 평전〉의 저자 김삼웅 前 독립기념관장 역시 정황상 공약삼장은 만해 스님의 저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약삼장을 근거로 내란죄로 몰아가려던 일제가 최남선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데 반해 만해 스님은 징역 3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았다" 면서 "당시 3년형은 손병희, 최린, 오세창, 함태영 등 3.1운동 주역들에게만 선고됐다. 이를 미루어봐도 공약삼장은 만해 스님이 저술했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고 설명했다.

한국의 3월은 3.1운동 기념일로 시작한다. 하지만 정작 3.1운동 정신은 퇴색하고 잊혀가고 있다. 인사동 한 켠에 서 있는 '삼일독립선언유적지' 라는 표지석만큼 박제화된 기억이 되고 있다. 불교계 역시 몇몇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하는 것으로 구색을 맞추고 있다. 3.1운동은 만해 스님이 주도해 이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후학들은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형상이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수술법문 ①

수술 법문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너의 병든 양쪽 다리를 끊어내고 갓 죽은 일본 사람의 알맞은 다리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일본사람 다리에요. 요새 그리 될 겁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이 뇌도 수술한다니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일본 사람의 그걸로 바꿨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 대답이 어떻노?

좋다 마다이겠습니까.

좋다 마다 이랬습니다. 자신 만만한 대답이에요. 그럴 거예요. 다리 하나쯤 바꾸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양쪽 팔을 끊어내고 갓 죽은 중국 사람의 알맞은 팔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 마다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염통과 콩팥을 도려내고 갓 죽은 미국 사람의 알맞은 염통과 콩팥으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지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허파와 간장, 심장을 도려내고 갓 죽은 독일 사람의 알맞은 허파와 간장 심장으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지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겠지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목구멍과 이 혀 뇌를 뽑아내고 갓 죽은 프랑스 사람의 알맞은 목구멍과 이 혀 뇌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글쎄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눈알을 개 눈알로 코는 원숭이 코로 귀는 고무로 머리털은 가발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자, 전부가 바꾸어졌어. 이 사람 국적이 어디입니까? 한국사람 아무 것도 없지? 손가락 하나라도 있으면 손가락은 국적이 한국이요 이렇게 하겠는데. 자, 국적이 어디일꼬? 실로 이리 되거든. 의학이 발달되면 이리 돼. 의학이 발달이 안 되더라 해도 이건 증명이 되는 거여. 과학적으로 완전히 바꿔 놨어. 여기 의사에게 물어 봐요. 완전히 바꾸었어. 머리털까지 손톱까지 눈알까지 다 바꿔 놨어.

그러니 한국사람 아니지? 관념이 아니거든. 과학적이거든. 이건 의학적이거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 도리를 깨치지 못하면 이건 남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이 도리를 깨치면 전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서양이나 프랑스나 할 것 없이 주무르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몸은 나의 어머니가 낳아주신 나의 몸이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람의 것이 확실하고 따라 개와 원숭이의 것임도 분명할 뿐 아니라 또는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 어머니를 어찌 나의 어머니라 이르겠으며 아내를 어찌 나의 아내라 이르겠으며 자식을 어찌 나의 자식이라 이르겠습니까. 이럴진댄 나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물건입니까?

이건 솔직한 말일 겁니다. 어머니의 인연은 없거든. 완전히 바꿨으니. 그러하니 어찌 아내가 자기 아내냐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이런 관념이 있고 관념으로는 우리 어머니 이리 할지 모르지만 어디 관념 가지고 되나요? 사실이어야 되거든. 의학적으로 볼 때 사실이어야 되거든. 도저히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어. 어머니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고 자식이라 하면 이건 어불성설이여.

만일 색신을 바탕으로 한다 하면 그렇거든. 거짓말 아니에요. 전부 바꿨는데 딱 깨 놓고 국적이라고 한다면 일본도 국적이요 중국도 국적이요 프랑스도 국적이요 어디도 전부 국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불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법이란 우물쭈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술 한 잔 먹으면 취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밥 한 술 먹으면 한 술 먹은 가치 밖에 없는 것이 불법이에요. 밥 한 술 먹어서 배가 부르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하니 이 사람이 어찌 하면 좋겠느냐 말이에요. 집에 돌아갔다 말이지.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전혀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라는 그런 말마디가 있기로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여. 아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여. 솔직한 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있어. 여자 몸으로 바꿔 놨으면 큰일나버렸지. 여자 몸 바꾼 것은 아니에요. 그럼 참 곤란할 거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태양으로부터 저 별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 **일본 사람의 다리를 붙이고**
> **중국 사람의 양팔을 붙여서**
> **자신의 몸이 바뀐다면**
> **당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 **당신 아내를 아내라 할 수 있나?**
>
> **어떠한 모습이라도**
> **태양으로부터 저 별까지**
>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진정한 발심은 참회로부터 시작

6. 참회게(懺悔偈)

我昔所造諸惡業 皆由無始貪瞋癡
從身口意之所生 一切我今皆懺悔

위대한 성자인 부처님의 모든 덕을 살펴보고 스스로를 반성할 때 마음 속으로 깊이 참회스럽고 미안한 생각이 난다. 자기 자신이 한 노릇을 돌이켜 보고 심히 참회한다. 양심의 발로인 참회를 심각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도(道)를 절실히 구하는 것이 된다. 또한 도를 열심히 갈구하고 거룩한 일을 칭양 찬탄하는 사람은 한층 더 정성스러이 참회하는 것이다. 이 참회게는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 있는 것이다.

원효대사는 대승육정참회(大乘六情懺悔)에서 우리가 대승(大乘)을 구하며 지극한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은 도를 구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욕계(欲界)나 이상(理想)의 세계를 유행(遊行)하면서 중생을 교화(敎化)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행이란 놀면서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지도하고 교화한다는 뜻. 수행자(修行者)는 욕계를 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선서(宣誓)를 하는 것이며, 범어로 이를 우파삼바다 라고 하며 유행하는 수행자의 의식(意識)은 늘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있어 모든 부분이 뒤집히어 있고 허둥대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여러 가지 객관적(客觀的)인 여건에 사로잡히어 그러한 외부현상(外部現象)의 반응인 '나' 라는 것, 내것이라는 아집(我執)에 포로가 되어서 참다운 내부의 자기 모습을 분간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성자를 모셔 놓고, 덕행(德行)을 칭양 찬탄하고 나서 자신의 일을 돌이켜 볼 때 참회에 젖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이제는 회개하고 참회를 한다. 우리는 늘 얽매어 허둥거리며 못된 짓을 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못된 짓에 사로잡혀 흥미를 갖고 꾀임을 받고 미혹되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으로는 육정(六情)에 사로잡히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알음알이를 내고 밖으로는 여섯 가지 경계, 육진(六塵)에 있으면 무엇이건 다 되고, 만사형통할 것만 같다. 권세를 누리고 한번 잘 살아 보고 싶다. 한번 땅 땅 울리어 보아야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던지, 엽관 운동을 하여서라도 권문에 발을 들여 놔야겠다. 이런 따위 탐욕이 생기어 그것에 열심이고 충실할수록 좋은 것이며, 이를 많이 할수록 성공하는 것인 줄 알고 있다.

이와같은 탐욕을 중심한 생각을 툭툭 털어 버리고 '안으로 모든 부처님을 모셔들여, 불가사의하게도 우리를 도와 주는 일들의 그 미묘한 기미(機微)를 살피고, 밖으로는 모든 부처님의 대비원력(大悲願力)을 골똘히 생각해 보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어느덧 자기 자신이 차츰 거룩해지고, 이러면 내가 이제부터 사람이 되어 가나보다 하는 환희심이 난다.

이런 환희심의 도수가 잦을수록 그는 수행(修行)이 깊어 가는 사람이오, 그렇지 않고 이와는 반대로 탐욕만 자꾸 성해질 것 같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발심(發心)이 중요하다. 발심은, 진정한 발심이란 것은 참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이렇듯 자꾸만 안으로 부처님을 모셔들이고 밖으로는 부처님의 대비원력을 세워 한결같이 정진하고, 거듭 참회하고, 발심하고 그럴 것같으면 어느덧 저도 몰래 오래두고 꿈으로 그리던 것이 깨쳐질 때가 온다.

그러면 그 때에는 오직 일심(一心)이라는 지극한 정성이 어린 평등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눕고, 앉았고, 서고,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일컬어 무애자재(無?自在)라고 한다.

오랜 기간 이와같이 계속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보살(菩薩)의 경계에 깊이 들어 가, 비록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육진(六塵)에 끄들리더라도, 그에게는 이미 그런 것은 아닌 번뇌(煩惱) · 망상(妄想)이 일어 날 것이지만, 비록 번뇌 · 망상이라 할지라도 거기 부끄러울 것은 없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모든 중생(衆生) 건지기 사회사업(社會事業)에 몸을 바쳐 일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참회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은 지저분하고 같지 않은 짓을 한다. 같지 않은 짓, 그런 것은, 모두 어느 때부터 비롯한 것일까? 아 몇 만겁이냐, 몇 억만 겁이냐, 우리는 비롯한 그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다. (我昔所造諸惡業)

비롯함을 알 수 없는 허허 망망한 저 시간의 바다에서, 탐욕과 분노와 치사스런 미련 · 고통이 정념에 뒤엉기어, 우리는 허둥거리어 악업을 지으면서 왔다. (皆由無始貪瞋癡)

같지 않은 짓, 우리들은 악업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했단 말인가? 결국 우리들은 악업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했단 말인가? 결국 우리들은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몸이 하는 행동, 입에서 짓거리는 망령된 말들, 그릇되고 지저분하고 망칙스런 생각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악업을 지었다. (從身口意之所生)

이제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잘못되었던 것을 참회합니다. (一切我今皆懺悔)

> **탐욕을 툭툭 털어 버리고**
> **안으로 모든 부처님 모셔들여,**
> **밖으로 대비원력을 세워**
> **부처님 같이 될 수 있을까**
>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 **어느덧 자기 자신이 거룩해지고,**
> **환희심이 난다**
>
> **정진 · 참회하고 · 발심하면**
>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 **깨쳐질 때가 온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 동안, 도불
총무부장 : 천산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광덕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법진
포교국장 : 무량
국제포교원장 : 중산청목

기획원장 : 진성
기획실장 : 노사나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월성, 서산
규정국장 : 영암,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법산
감찰2국장 : 수산
감찰3국장 : 인산
감찰4국장 : 봉산

비구니 회장 : 지성

총무 : 정해
부회장 : 해월, 혜산, 월산
재무 : 도은, 향인
교무 : 현타, 수정
교육 : 법신, 성담
문화 : 남산, 보현
포교 : 보명, 홍산
강원 : 덕산, 혜승
복지 : 본각, 화광
감찰 : 금산, 보현
불화 : 혜담, 인산, 진화
의식 : 련성, 지해, 수욱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정산
서울남부종무원장 : 보덕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해인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남종무원장 : 혜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북종무원장 : 덕운
부산종무원장 :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종무원장 : 도명
전북종무원장 : 법성
제주종무원장 : 청호
울산종무원장 : 혜공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 중산청목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편집기자 : 이기영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문화부장 : 태산
문화국장 : 용산
사회국장 :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 김호철
H&G :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전국신도회

고문 : 김윤주
회장 : 설주성
사무처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 손영진
홍보처장 : 박영실
총무계장 : 조일
기획실장 :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등잔불 아래 쓴 편지… 피어나는 우정

추사의 이 편지에는 '호의 초의 연조(縞師 草師 聯照)' 라는 구절이 있다. 바로 호의와 초의 두 스님에게 보낸 편지인데, '연조(聯照)' 란 나란히 살펴보라는 뜻이다.

실제 이 편지를 어느 해에 보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편지의 내용 중에 '상원(上元)' 이라는 말이 보인다. 상원은 바로 정월 대보름날을 의미한다. 이런 단서를 통해 이 편지는 정월 대보름날에 보낸 것임은 분명한데, 어느 해에 보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추사는 새해를 맞아 이미 보름이 흘러갔지만 얼마동안 초의와 호의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듯하다. 추사는 이들의 소식이 궁금해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직 스님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허탈' 하단다. 그러기에 이런 마음이 '어찌 사라지겠느냐' 라고 반문하였으니 멀리서 벗을 그리는 정이 오롯이 드러난다.

그가 '수행이 길하고 상서로운지 궁금하고 또 염려가 된다' 는 말의 진정성은 지기(知己)와 나누는 살가운 인정이다. 아마 이 편지는 추사가 제주 유배 시절이나 아니면 북청에 있을 때 보낸 편지라 추정된다. 자신의 처지를 '속인의 객지 상황은 더욱 따분하고 지루한데, 또 시간만 늘어지니' 라고 말한 대목은 이러한 사실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럼 추사가 호의와 초의에게 보낸 편지의 사연을 살펴보자.

호의스님과 초의스님, 나란히 보세요.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직 스님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프고, 허탈한 마음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정월 대보름인데 (두 스님



추사의 친필 편지

정월 보름 발원 위해 밀랍초 공양
추사가 원한 것 '도반과 차담'

들은)모두 수행이 길하고 상서로운지 궁금하고 또 염려됩니다. 편안치 않은 것에 매달린 것이 더욱 심하여 속인의 객지 상황은 더욱 따분하고 지루한데, 또 시간만 늘어지니 어찌 하겠습니까. 종이 1속과 밀랍초 2대를 보냅니다.

오늘 저녁 모든 부처와 관세음보살, 준제보살 상전(相前: 불전)에 불을 켜시고, 무량수경을 읊어 멀리(있는 나를 위해) 발원을 축원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각건대 응당 가까운 날에 지팡이를 짚고 한번 왕림하시기를 더욱 깊이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등잔불 아래서 어지럽게 날려 썼습니다. 이만. 정월 대 보름날 새벽에 연생(蓮生). 김 10톳을 보내니 나누어 수령하심이 어떨지요

(縞師 草師 聯照 新年尙未聞梵音 茹 何已 卽今上元僉禪履吉祥 奉溯且念 懸耿者深 俗人客況 益覺支離亦足髮華 奈何 紙一束蠟燭二對奉 似今夕以爲燃燈於諸佛觀音準提相前 誦無量壽經 遙祝發願如何 想應從近振錫一枉 深自企企 燈下胡草 不式 上元曉頭 蓮生 海衣十吐送去 分領如何)

추사는 두 스님들에게 김과 밀랍초를 보낸다. 밀랍초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인 듯하다. 그가 밀랍초 공양물을 보내면서 '오늘 저녁 모든 부처와 관세음보살, 준제보살 상전(相前: 불전)에 불을 켜시고' 예불할 때마다 '무량수경을 읊어 멀리(있는 나를 위해) 발원을 축원해' 달란다.

이러한 발원의 목적은 바로 '편안치 않은 것에 매달린 것이 더욱 심하여 속인의 객지 상황은 더욱 따분하고 지루한데, 또 시간만 늘어지' 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 전에 발원을 원했던 것이다. 이 편지를 받았던 두 스님이 실제 어떤 발원과 축원을 모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준제보살에게 올렸을까. 추사가 1840년 제주로 유배된 후, 그를 아꼈던 이들의 발원은 실제 대광명전을 신축하게 된 이유였다. 이는 추사를 위한 축원발원이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선 후기 종이를 세는 수양사(數量詞)는 속(束)이며, 밀랍으로 만든 초는 대(對)로 표기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무엇보다 추사의 바람은 축원발원도 중요하지만 뜻이 통하는 벗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은근한 만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유되어야할 정서이기에 더욱 그렇다. '등불 아래서 어지럽게 날려 쓴' 이 편지는 그러기에 이들의 따뜻한 우정이 더욱 돋보이는지도 모른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世界 佛教 法王廳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만해 정신을 배우세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전보삼 (한국박물관협회장 ·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장)

어린 시절 나는 제법 애숙한 아이였다. 어떤 일에 골몰히 생각하고 따져 묻기를 좋아했다. 나의 이런 경향은 가정환경에 영향에 따른 것이다.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불교와 가까이 지내 자주 스님들이 오셨다. 자연적으로 〈반야심경〉을 접했고,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는 뜻을 몰랐지만 달달 외울 수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해 〈반야심경〉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책을 사봤지만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당시 나는 강릉포교원 학생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그곳에는 설악산과 오대산으로 가기 위해 하루 기거하는 객승들이 있었다. 나는 왕왕 스님들에게 경전 해석과 교리에 대해 질문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해 못하고서는 스님들에게 "잘 설명을 못 한다"면서 한껏 부애를 부렸다. 그래서 설악산과 오대산 스님들에게 나는 강릉에 따져 묻기 좋아하는 얄궂은 아이로 유명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을 만났고, 스님은 대번 나에게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을 건넸다.

"네가 스님들이 설명하는 경전 해설을 이해나 하겠는가. 이 책을 보면서 먼저 소양부터 쌓아라."

집에 가 시집을 펼쳤다. '님은 갔습니다.' 첫 소절부터 내 머리를 쳤다. 온 우주가 이 안에 있었다. 이내 궁금해졌다. '대체 만해 스님은 누구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해 앓이'

따져 묻기를 좋아했고 만해 스님이 화두였던 중학생은 평생을 만해 스님을 선양하고 연구하는 데 바친다. 바로 전보삼 한국박물관협회장(남한산성 만해기념관장, 신구대학 교수)이다.

중학교 시작된 전 회장의 '만해 앓이' 는 지금까지도 평생의 숙제다. 행동력까지 겸비했던 그에게 '만해 앓이' 는 운동의 형태를 가졌다.

강릉포교당 중고등학생회 시절에는 매년 6월 29일마다 만해 스님 다례재를 주위 사찰의 지원을 받아 봉행했고, 틈나는 대로 법우들과 함께 만해 스님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당시 불교 잡지 〈법시〉와 신문에도 만해 스님 관련 기고를 투고해 실리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국어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을 대신해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 를 가르칠 정도가 됐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국어책을 받았는데 수록된 첫 작품이 만해 스님의 '알 수 없어요' 였습니다. 이 시는 불교적 우주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이 부분까지 설명할 수 없었죠. 수업 첫 시간에 친구들이 '만해 스님 시는 보삼이가 전문' 이라고 했고, 선생님은 나와서 설명해 보라고 했지요. 꼬박 1시간 동안 '알 수 없어요' 와 만해 스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도 '만해에 대해서는 보삼이 한테 물어라' 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고 마음을 먹은 것도 그때부터 였습니다."

한양대에 입학해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만해 스님 알리기와 연구를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인사동 고서적 서점을 돌면서 만해 스님의 자료를 찾았고, 만해 스님과 교류했던 선지식 석주, 효당, 청담, 경봉 스님 등을 만나 스님에 대해 묻기도 했다.

선양 원력 발화… 기념관 건립

전 회장의 만해 스님 선양 운동은 사회인이 돼서도 이어졌다. 군역을 마친 그는 한양공고 야간부 교사로 재직했다. 야간부 교사에게 수당이 더 나오기도 했지만, 낮에는 만해사상연구회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야간 교사가 더 이점이 있었다.

본격적인 선양 운동은 1980년 만해 스님의 마지막 거처인 심우장에 연구회 사무실과 자료관을 만들면서부터다. 당시 심우장에는 일반인이 세를 들어 살고 있었고, 그를 이사시키기위해서는 35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했다. 전 회장은 이 돈을 모두 마련해 이주시켰고 심우장을 만해 스님 거처로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00주년 논문집을 발간하고 망우리 묘소를 정비해 비석과 상석을 세운 것도 전 회장이 진행한 일이다.

하지만 외로웠다. 심우장에 자료관을 만들었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고, 누구도 찾지 않았다.

"열심히 사업을 하는 데 돌아보니 나 혼자하고 있더군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해 스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펴보니 남한산성을 연 250만 명이 찾더군요. 그래서 심우장의 만해 스님 자료관을 남한산성으로 이전키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전한 이후 심우장을 국가가 매입하게 하고 서울시 사적 7호 지정받게 했습니다."

자료관을 남한산성으로 이전키로 한 결정적 계기도 있었다. 독립기념관은 1985년 개관 이후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전 회장은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가 한명 한명의 특별전을 제안했고 첫 특별전으로 만해 스님이 선정됐다. 열기는 뜨거웠다. 한 달동안 진행하려 했던 전시는 3개월로 연장됐다. '만해 기념관을 만들어야 겠다' 고 생각한 것도 이때부터다.

1990년 심우장에서 남한산성으로 자리를 옮긴 자료관은 1997년 최종 완공돼 기념관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1995년에는 백담사에 만해기념관이 개관했고, 2006년 만해 스님 고향인 홍성에 만해

강릉포교원 학생회 활동 中
'님의 침묵' 접하고 '만해 앓이'
대불련 활동하며 운동 본격화
전국 다니며 관련 자료 수집

백담사 · 홍성 등 만해 기념관
설립 · 콘텐츠 제작 등에 공로
심우장 사적 지정 결정적 역할

만해 스님서 문학은 현상일 뿐
'님의 침묵', 화엄 세계를 노래
진면목은 불교에 있음을 '주목'

문학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전국에 세 곳에 있는 기념관에는 모두 전 회장이 제공한 자료와 콘텐츠들이 담겨 있다.

한 사람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지난하고 방대한 작업이었다. 이로 소진된 재화와 시간도 엄청났다. 하지만 전 회장은 열정이 있으면 모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모두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지요. 저는 40세까지 술을 한 모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지금까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스님을 찾아다니며 만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 먹을 돈으로 자료를 사 모았습니다. 석주 스님이 준 자료를 제외하면 모두 제가 발품을 팔아 구매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님의 침묵〉 초간본의 경우에는 소장자를 1년 동안 찾아가 어렵사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만해를 모르는 세상

세상은 변했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도 올해로 17년이 됐고, 중학생은 초로의 신사가 됐다. 그렇지만 만해 스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박하다고 전 회장은 생각한다. 불교계부터도 만해 스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게 전 회장의 주장이다.

전 회장이 선양 사업을 하면서 힘든 것은 금전적인 부분보다 만해 스님에 대한 오해였다. 멀게는 대불련 시절 〈만해 선사- 그 웅지를 지표로 삼자〉는 홍보 책자에서 '선사' 라는 호칭을 문제 삼아 젊은 스님들이 자신을 겁박한 일부터 근간에는 "박한영 스님이 만해



1981년 심우장 만해기념관 개관식에서 전보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82년 망우리 만해 묘비 제막식에서 경과보고중인 전보삼 회장



전보삼 회장의 원력이 담긴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전경



전보삼 회장은 … 1950년 태어난 전보삼 회장은 강릉고를 거쳐 한양대에서 학사와 석사(국민윤리학)를 받았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화엄의 관점으로 본 만해사상 연구(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만해 스님 선양 사업에 평생을 매진한 그는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관장 소임을 보고 있다. 이밖에도 신구대학 교수, 철학연구회 종신회원, (재)국외문화재재단 이사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사)한국박물관협회장에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용운사상연구〉, 〈남한산성과 팔도사찰〉등 10여권과 50여 편의 연구 논문이 있다.

스님을 마구니라고 했다"는 한 교수의 주장까지 세상은 바뀌었어도 오해는 줄지 않고 있다.

"만해 스님에 대한 오해는 모두 〈조선불교유신론〉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결혼을 하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은처'와 같이 음성화 되는 불교의 이면이 옳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차라리 떳떳이 결혼을 해 자신의 근기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혹자는 '박한영 스님이 만해는 마구니라고 했다'고 말하는 데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조선불교유신론〉의 표지에 박한영 스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께 써 놓았습니다. 만해 스님은 이론과 실천, 문수와 보현행원을 모두 지닌 분입니다."

만해 스님의 열정 본받아야

전 회장은 만해 스님이 근현대 한국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면서 만해 스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불교를 알아야 하고 승려로서의 삶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만해 스님의 시 '님의 침묵'에서 '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정작 주목해야 하는 것은 '침묵은 무엇일까' 입니다. 우리는 '침묵의 사자후'를 들어야 합니다. 침묵 안에는 불교의 화엄 사상이 있습니다. 만해 스님이 초지일관 민족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힘은 지식이 아니라 금강과 같은 심지(心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해 스님에게 있어서 문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 본령(本領)과 요체는 불교에 있습니다. 스님은 근대 최고의 선지식이자 사상가요 철학자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 회장은 현 세대가 만해 스님에게서 구도의 열정과 실천론을 배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어떤 목표가 생겼다면 진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로 얻어진 지혜는 사회로 회향해야 합니다. 만해 스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수행을 하고 이를 이타행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성공에 매몰돼서는 안됩니다. 고난의 칼날이 서 있는 길이라도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만해 스님의 정의론입니다."

이번 생은 만해와 함께…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가 목표였던 전 회장은 이제 박물관계의 주요 인사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걸쳐 이룬 성과물이 모두 '만해 스님'에게서 비롯됐다고 했다.

만해 스님의 자료를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서 만해기념관을 만들었고, 이를 잘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립박물관장이 됐다. 그리고 국립, 사립, 기업 등 1000여 박물관들의 협의체인 한국박물관협회장의 자리까지 올랐다. 어떤 이야기를 물어도 '만해'로 시작해 '만해'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그래도 전 회장에 평생 숙업으로 삼아가는 것은 만해 스님의 선양과 연구 사업이다. 요즘에 그는 만해 스님을 만난 사람과 주변인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스님의 인맥도를 파악하고 연구해 통찰적인 전시를 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미 석주, 경봉, 춘성 스님 등의 전시는 진행한 바 있고 현재는 청담, 효당 스님의 자료를 수집 · 연구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사업과 전시회를 통해 전 회장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만해 스님'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숙업이 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만해 스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연구할 것입니다. 〈님의 침묵〉이 단순히 시집이 아닌 팔만대장경을 모국어로 압축시킨 경전이라는 것도 알리고 싶습니다. 〈님의 침묵〉은 '깨달음의 노래'이자 '사랑의 증도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만해 정신과 사상을 배울 것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갖은 고생을 하며 한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눈 속의 매화가 향기로운 것도 인고의 시간 속에서 꽃망울 틔워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리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이 설중매(雪中梅)를 좋아한 이유도 여기 있을 것이다. 전 회장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봄을 알리는 이른 꽃내음이 코를 찌른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보삼 회장(사진 가운데)은 만해 스님의 선양 원력으로 한국박물관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법일기

10분과 2분의 차이

군법사들은 1년에 세 번씩 전체가 모일 일이 있습니다. 그 때 포살도 하고 교구의 주요안건을 다루거나 어떻게 포교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번은 공군에 계신 후배법사님이 나를 찾아와 '학생군사학교' 법사님이냐고 물으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일은 많지만 육군 법사가 공군 법사에게 감사인사를 받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인사를 받고 나니 기분은 좋아지더군요.

내용인즉, 공군 법사님이 치통이 있어 부대병원에 갔더랍니다. 법사도 중생이라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병원 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의무대 치과엘 들어갔는데 군의관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스님이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군의관이 앞으로 나와 합장하면서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법당에 온 신자도 아닌데 의무대에서 군의관이 합장하면서 인사를 하니 왠지 뿌듯하더랍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인사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냐고 했더니 학생군사학교 법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불자를 양성하는 곳은 누가봐도 군대입니다. 짧게는 5주, 길게는 16주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매주 법회에 참석하게 되면 저절로 신자가 됩니다.

특히 군대는 병사들만 불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도 양성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됩니다. 제가 학생군사학교 법하로 있던 시절, 200명 이상의 군의관 후보생들이 매주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림 · 박구원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급자원들을 모아놓고 법회를 열고 신자화 시킬 수 있는 곳이 또 있을 까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 불교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포교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고양시에 있는 부대로 옮기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군법사들은 스님이라는 신분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기에 양쪽 규정 모두를 따라야 하는데 민간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임기가 있는 것처럼 군에서는 군법사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6개월마다 부대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전라도 지역에 근무하다 서울 근저인 경기도로 오게 되었지요. 승합차에 이삿짐을 싣고 부대 위병소로 갔습니다. 전임법사로부터 법당이 부대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위병소에가서 법당 위치를 물을 요량이었습니다.

"반가워요. 부대 법당이 어디에 있나요?"

제 물음에 위병 근무를 서던 병사는 친절하게 '뒤로 돌아서 우회전하셔서 5분 정도를 가면 다른 위병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위병 근무를 서던 병사가 불자였는지, 참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곤 차를 돌려 우회전을 했습니다. 한 5분쯤 갔는데 도저히 부대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시 한복판에 들어온 느낌이랄까?

5분이 지나고 10분 정도를 갔습니다. 도저히 부대가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 다시 위병소로 돌아오는데 마침 법당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병소 병사가 말한 또 다른 위병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까지는 처음 만난 위병소에서 불과 2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그 병사는 걸어서 5분 거리를 이야기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차로 이동해서 5분을 생각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동호회 등 활동에서도 때로 자기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불자님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정행 이익수 군승 법사(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미국에 '작은 라싸' 태동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티베트 불교사원인 샤롯데빌사원에서 신도들이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왼쪽). 중부 버지니아에 '작은 라싸'를 태동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텐진 게펠 스님.

〈cille〉 지 "티베트 불교 종교를 넘어 힐링으로까지…"
텐진 게펠 · 나왕 토크미 스님의 활동 주목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작은 라싸'가 태동하고 있다. 〈cille〉 지가 3월 15일자(현지시간) 기사에서 "중앙 버지니아가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중앙 버지니아에서 벽안의 불자들이 속속 티베트 불교에 귀하고 있고, 그들의 신행 역시 동양 불자들을 따라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cille〉 지는 "티베트 불교는 이제 티베트만의 종교가 아니다"는 메튜 코버(Matthew Conover · 26) 씨의 말을 인용, "중앙 버지니아에서 티베트 불교는 종교를 넘어 '힐링'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한 메튜 코버는 중앙 버지니아에서 살았던 청소년기에 티베트 불교를 처음 접한 이후로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 뮤지션으로 뉴욕에서 활동할 때도 메튜 코버는 티베트 불교센터를 찾으며 신행을 계속했고, 현재 뉴욕에서 2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샤롯데빌(Charlottesville) 사원을 다니며 다양한 수행과 신행을 병행하고 있다.

매튜 코버는 "티베트 불교는 삶의 나침반이자, 심지어 중독성까지도 느끼는 종교입니다"라며 "가톨릭 가정에서 나고 자랐지만, 내 자신을 찾은 곳은 티베트 불교사원"이라고 말했다.

나타샤 마이클(Natasha Mikle · 38) 역시 중부 버지니아에서 티베트 불교에 귀의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UVA 대학원에서 'Sino-Tibetan Buddhism'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나타샤이지만 그 당시까지도 불교로 개종하지 않았다.

나타샤가 티베트 불교로 개종한 계기는 중부 버지니아 제퍼슨 티베트 불교공동체(Jefferson Tibetan Society)를 이끌고 있던 텐진 게펠(Tenzin Gephel · 50)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나서다.

"학위를 받을 당시 자신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고 말한 나타샤는 "제퍼슨 티베트 불교공동체에서 주관했던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며 "당시 티베트 불교센터에서의 명상은 지금까지도 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고, 당시 명상을 지도하셨던 텐진 게펠 스님과도 지금까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cille〉 지는 "나타샤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매주 교회를 찾았을 정도로 독실했다"며 "그녀의 개종에 단초가 되었던 텐진 게펠 스님이 중부 버지니아에 '작은 라싸'를 태동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인도 남갈(Namgyal) 사원에서 14대 달라이 라마의 지도를 받으며 원력을 키운 텐진 게펠 스님은 〈cille〉 지와의 인터뷰에서 "티베트는 언제나 가고 싶은 내 조국"이라며 "지금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조국이지만, 내가 있는 이곳을 티베트로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티베트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해외 각지에서 망명자로 살아가는 티베트인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한 부류는 망명 중에도 티베트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다른 한 부류는 그 곳의 문화에 동화된 채 살아가고 있다.

"저는 티베트의 유수한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지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텐진 게펠 스님은 '중부 버지니아가 '작은 라싸'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cille〉 지의 질문에 "불교를 비롯해 그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하는 과정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곳의 미국인들이 찾고자 하는 그 무엇과 교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스님 모두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스님은 "자신의 상실감에 솔직해지고, 티베트 사원을 찾은 미국인들과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만 있다면 특별한 포교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다"고 덧붙였다.

매튜 코버는 "샤롯데빌(Charlottesville) 사원은 '모두를 초대하고, 그들을 위로한다'를 모토로 삼고 있다."며 "동시대 미국인이 찾는 종교는 신앙을 이끌고 단금질하기보다는 나란히 걸으며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종교."라며 "티베트 불교는 그 역할을 충실한 종교"라고 말했다. 한편 〈cille〉 지는 중부 버지니아에 '작은 라싸'가 태동할 수 있었던 이유로 UVA 대학원이 소장하고 있는 티베트 장경을 비롯 티베트 불서를 꼽았다.

〈cille〉 지에 따르면, UVA 대학원이 티베트 장경을 비롯해 티베트 불서를 소장할 수 있는 것은 나왕 토크미(Nawang Thokmey) 스님의 20여 년간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나왕 토크미 스님은 1993년부터 중부 버지니아에 적을 둔 이래 티베트 전문 도서관 설립을 위해 노력했고, UVA 대학원 측에 티베트 라이브러리를 제안, 지금의 티베트 불서를 보유할 수 있었다.

〈cille〉 지는 "UVA 대학원의 티베트 라이브러리에는 4만여 권이 있으며, 그 중요도는 미국 내 대학 중에서 순위를 다툴 정도"라며 "이들 도서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대출되고 있으며, 이는 중부 버지니아 시민들이 티베트 불교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는 삶을 일깨우는 종교"라고 말한 나왕 토크미 스님은 "중부 버지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스님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 과정을 선험적으로 보이고, 함께 아프고 함께 즐거운 교감을 나누고 있다"며 "이는 중부 버지니아가 '작은 라싸'로 발돋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텐진 게펠 스님은 "우리(티베트 스님)는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명상 등의 신행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지역 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힐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점점 더 많이 티베트 불교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라질 위기에 처한 '태국불교 법당'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의회
재개발 놓고 '고민'


스코틀랜드의 태국불교 공동체 첫 법당인 담마파디파(Dhammapadipa)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국불교 공동체의 첫 법당이었던 담마파디파(Dhammapadipa)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Edinburgh News〉 지에 따르면 "에든버러 시의회는 담마파디파가 있는 스레트포드 거리에 대한 재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담마파디파는 지금까지 종교 용지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시의회의 재개발 논의는 스레트포드 거리에 오랫동안 방치된 공터가 많아, 시 경관을 헤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시작되었다.

〈Edinburgh News〉 지는 "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종교 시설로서의 역할을 해온 담마파디파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이는 시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1993년부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알렉산더 로우(Alexander Rowe) 씨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늦은 감이 있다"며 "시의회가 지역 발전에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데이비드 핀쳐(David Pincher) 씨는 "담마파디파를 중심으로 한 태국불교 공동체의 종교 활동은 항상 활기에 차 있었다"며 "그 활기가 방치된 공터가 많아 자칫 침체될 수도 있었던 이곳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대변인은 "시의회는 재개발에 앞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태국불교 공동체에서 담마파디파를 오랫동안 지켜온 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모스크바 최초 불교사원 건립 '초 읽기'


러시아 모스크바에 불교사원이 건립될 전망이다. 사진은 러시아에 있는 불교사원.

러시아 모스크바에 최초의 불교사원이 건립된다.

러시아의 소리(The Voice of Russia)에 따르면 3월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불교공동체(Moscow Buddhist Community)는 최근 "북동부 레닌그라드 주(州)에 위치한 오트라드노예(Otradnoye) 지역에 불교사원을 착공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후원불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불교사원 건립안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 초반, 유리 루쉬코프 전 러시아 모스크바 시장과 러시아 연방 남부 투바(Tuva) 자치공화국은 불교사원과 투바 전통문화양식을 담은 쇼핑센터를 세우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08년에 보류됐고, 모스크바 불교공동체가 최근 사업을 재개했다.

알렉산더 코이바 가로브 카르마 카규 학교 러시아불교연합회 회장은 "모스코바 불교공동체는 오트라드노예 불교사원 건립 프로젝트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다. 바로 기금마련이다. 우리가 둘마 샤그다로브 모스크바 불교공동체 회장을 만났을 때 그는 '착공하기 직전'이라고 확신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문제는 현재 모스크바에는 24개의 불교종립학교가 있는데 모스크바 불교사원이 세워지면 이 가운데 한 학교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도가예브 드리쿵 대승불교 종단 대변인은 "확실히 우리는 이 불교사원을 원한다. 사원은 종교 시설임과 동시에 다른 불교학교들간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다. 내가 칼미크 공화국에 있을 때 샤카무니 사원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학교들의 종파에 맞는 문화 · 종교적이고 명상과 교육을 지도받을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줬다"며 "이 같은 사원들이 모스크바에 생기면 종교를 넘어서 널리 확산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불교사원은 부처님 사리탑 형식인 스투파(Stupa)양식으로 세워질 계획이다.

알렉산더 코이바가로브는 "사원은 불자들의 명상 수행 장소로 쓰일 것이다. 이와 함께 부처님오신날과 열반절, 성도절 등 불교 명절의식도 이곳에서 거행할 것이다. 우리가 불탑과 사원을 갖는다면 각자의 교리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고 서로 방해하지 않고 공동축제를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스크바 불자들은 불교사원을 포크로나야 고라 전쟁기념관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기념관에는 그리스정교회 사원과 교회 등 종교건물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교사원 건설은 애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러시아의 조화와 통합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계획됐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불교는 17세기 초반 불교국가인 칼미크 공화국민들이 러시아제국에 유입되면서 전파됐다. 이후 1741년 러시아 엘리자베스 황후가 러시아의 공식종교로 승인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삶이 환타지임을 알고 집착이 없을 때

‘깨어 있는 삶, 관찰자적인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다’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행불선원장)이 1년 만에 펴낸 신간 『삶은 환타지다-월호 스님의 명쾌한 게송 이야기』가 민족사에서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간 1주일 만에 2쇄에 들어갈 정도로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은 월호 스님이 시청자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삶은 환타지다’ 라는 제목으로 불교TV에서 방영한 내용을 정리 보완한 것으로 출간되기 전부터 인구에 회자되었다.

월호 스님은 대중들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전교실, 시민강원 및 시민선방 등을 운영하는 한편 불교방송 · 불교TV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면서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풀어주고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시대 대표적인 힐링 멘토다.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행불선원장)

왜 삶이 환타지인가? 아니 왜 삶이 환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일찍이 금강경에서도 삶이 환타지임을 밝혀놓았다.

일체유위법 一切有爲法 애착 있는 모든 것은 여몽환포영 如夢幻泡影 마치 꿈, 환타지, 물거품, 그림자 같고 여로역여전 如露亦如電 또한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응작여시관 應作如是觀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 지니라.

위 금강경 사구게는 〈삶은 환타지다〉, 책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월호 스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금강경 사구게에서 모든 존재는 몽(夢), 환(幻), 포(泡), 영(影), 로(露), 전(電)과 같다 하였는데, 이는 모든 존재의 공통된 특징, 즉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이 곧 환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도 환타지 같아서 있다가 사라지고, 늘 변화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착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삶이 환타지임을 알고 집착이 없을 때 ‘깨어 있는 삶, 바로 관찰자적인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월호 스님은 초기경전에도 금강경 사구게와 유사한 게송이 나와 있다고 하면서 법구경의 게송을 읊어주었다.

몸과 마음을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바라본다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월호 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몸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면 저승사자들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끌고 갈 수도 없다고 한다. 몸뚱이와 마음은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애착을 갖고 ‘이것이 나다’ 라고 생각하면 저승사자에게 끌려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일시적인 나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불교의 무아설(無我說)에 통달하면 끌려갈 일이 없다고 한다.

삶이 환타지임을 알면 바로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된다. 본문을 잠시 들여다보자.

“화는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 공덕을 태워먹고, 앞길을 막는 업장이 됩니다. 화를 내면 더 크게 화 낼 일을 끌어들여 슬픈 일,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악행이 악행을 부르는 이 엄정한 이치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슬픔 없이 살려면 반드시 ‘성냄’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냄을 어떻게 부수어야 하는가? 성내는 자기 가슴을 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슴을 쳐서 성냄이 사라진다면 천 번인들 만 번인들 못 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데 사실 성냄을 부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에게는 손가락으로 코 만지듯 쉬운 일입니다.

무상! 사실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것을 알면 성냄을 확실하게 부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성낼 일을 만들어서 A가 B에게 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간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과 지금 내 앞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질을 내고 받는 순간의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그에게 화풀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성질냈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앙갚음을 해야 하는데, 나에게 성질 낸 그 사람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당한 사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제행무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는 한 시도 머무르지 않고 변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는 게송의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 〈삶은 환타지다〉 본문 58~59쪽 중에서

이 책을 읽다보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참으로 신기하다. 우리네 삶이 고달픈 것은, 삶의 희로애락에 울고 웃으며 괴로워하며 안달복달하는 것은 삶이 환타지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삶이 환타지임을 알면 괴로워할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어진다. 언제 어느 때나 대자유의 환희를 만끽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월호 스님은 지금까지 펴낸 11권의 책 중에서 이 책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오롯이 외우기 쉽게 응축시켜 놓은 게송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현대적 교훈을 담아 놓아 당신이 읽으면서도 가슴이 뿌듯하단다. 먼 훗날 스님이 이생의 몸을 벗을 때 “다른 책은 몰라도 이 책만큼은 내 다비식에 함께해 달라”는 말씀만으로도 이 책에 대한 스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주제별로 엮어놓은 게송, 스토리텔링 읽는 재미가 쏠쏠!

이 책은 간결하고 아름다운 게송으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는 『법구경』을 중심으로 『보배경』, 『자애경』 등을 월호 스님이 그 특유의 유쾌 통쾌 상쾌한 필치로 펼쳐 놓은 주제별 게송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게송’, ‘애착을 버리는 게송’, ‘화를 다스리는 게송’, ‘행복을 부르는 게송’, ‘마음을 보는 게송’ ‘성품에 관한 게송’ 등 게송을 주제별로 편집, 무엇보다 게송 하나하나에 얽힌 일화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마치 독자를 앞에 놓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듯 전달하여 더욱 편안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아울러 주제별 게송에 담긴 현대적 교훈을 일깨워 재미와 의미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한다. 이 책을 즐겁게 읽으면서 ‘삶은 환타지’ 임을 깨닫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 연소하는 대자유의 삶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응축해 놓은 게송은 깨달음의 열쇠, 최고 전법의 길

“이 게송을 듣고 사리뿌뜨라는 곧바로 수다원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내 출가하여 3주 만에 또다시 부처님의 게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단지 게송 한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요. 이 외에도 게송 몇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오죽하면 『금강경』에서도 온 우주를 보배로 채워서 보시하는 공덕, 또는 갠지스 강의 모래보다 많은 목숨으로 보시한 공덕보다 게송 한 구절 전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고 하였겠습니까? 게송이야말로 깨달음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위와 같이 부처님 당시에도 게송 한마디 듣고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았고, 육조 혜능 대사도 금강경의 게송을 듣고 깨달았다.

게송의 송(頌) 자가 노래 ‘송’ 자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게송은 일종의 노래이다. 산문보다 노래를 외우기 쉽듯이 게송은 외우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쉬워서 초창기에는 주로 장로게, 장로니게 하는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게송으로 전했다. 숫따니빠따, 법구경 등 초창기 경전들이 다 게송으로 전해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게송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응축시켜 놓은 것으로 깨달음의 열쇠요, 최고의 전법의 길임을 잘 알 수 있다.

“온 세상을 보배로 채워서 주는 것보다 게송 하나 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 있다”고 강조하는 월호 스님의 말처럼 이 책에서 읽은 짤막한 게송 하나라도 잘 배우고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기쁨을 누리게 것이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으랴! 의식의 지평을 넓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열어주는 책

“우리는 누구나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것은 부처님이 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이 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확대시켜 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본문 324쪽 중에서

불교는 누구나 온 우주의 진리를 깨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종교이다. 이 책은 게송을 통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저성장시대에 점점 위축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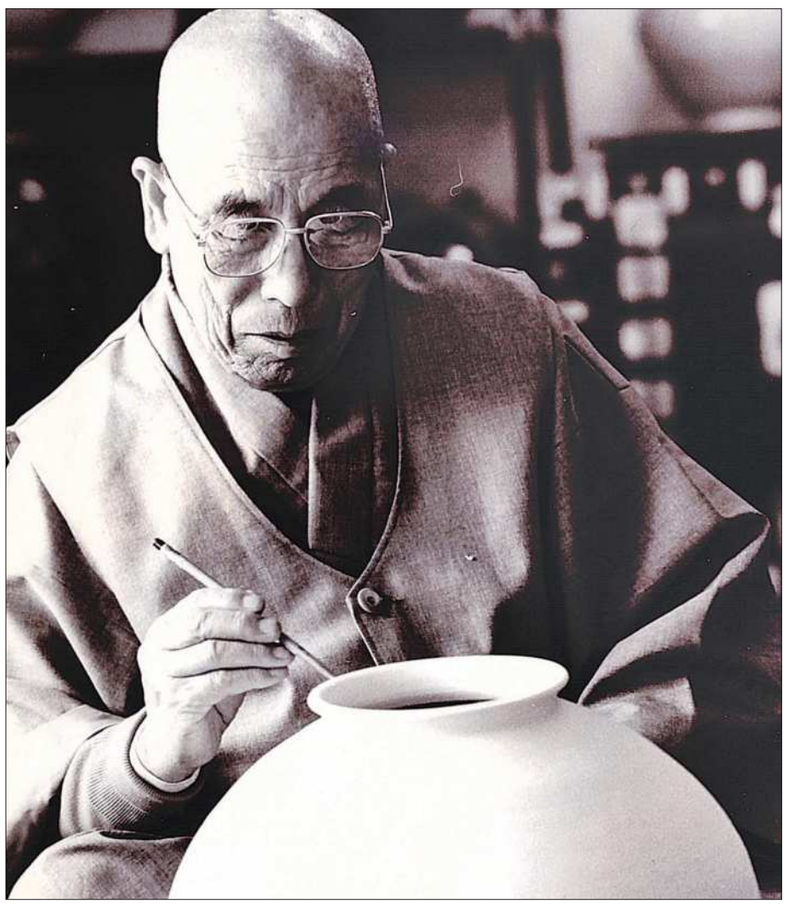
이 책의 제목처럼 ‘삶은 환타지다’ 라는 것을 알면 작은 자아(小我)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자유와 행복을 체득하게 된다. 작은 자아(小我)에 집착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애착하고 화가 나고 괴롭고 우울한 것이다. 작은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바로 보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모두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요, 소중한 인생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겠는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열리는 데 이 책의 묘미가 있다.

월호 지음 | 민족사 펴냄
신국판 | 328쪽 | 값 13,500원







도자기에 글씨를 쓰고 있는 생전의 월하 스님.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특별전이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월하 선사 수행가풍 한자리에

월하 대종사 탄신 100주년기념특별전 '영축산에 달 뜨거든'

"위로는 머리를 덮을 한 조각 기와도 없고 아래로는 발붙일 촌토(寸土)도 없도다. …비록 나와 함께 같이 태어났더라도 나와 더불어 함께 죽지 않겠노라."

조계종 9대 종정을 지낸 월하 스님이 1994년 종정 추대식에서 내린 법문이다. 통도사의 근현세 역사를 대표하는 월하 스님은 1933년 열여덟의 나이에 출가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통도사 주지 · 조실,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영축총림 방장 등을 지냈으며 1994년 종정으로 추대됐다.

통도사 조실로 추대되어 보광전 별당에서 주석하면서도 시자를 두지 않고 손수 방청소는 물론 내복이며 양말 빨래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2년 나눔의 집 건립기금 1억 5천만원을 남몰래 기부하기도 했으며, 통도사의 자비원과 성보박물관 건립에도 큰 도움을 준 일화는 감동적이다.

월하 대종사(1915~2003)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기념특별전 '영축산에 달 뜨거든'이 5월 25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禪書 32점, 불상 1점, 가사, 발우, 은사 구하 스님으로부터 받은 전법게와 유훈, 선물로 받은 전각 등 총 215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 부관장 송찬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품들과 생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스님이 평소에 쓰시던 붓과 벼루 가사 등 스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품들이 전시돼 청정하고 검소한 삶으로 평생을 살다가신 스님의 자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안거증, 대교과 졸업증서는 물론 법계증서와 구하 스님의 유훈 등은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중덕 대덕 시험을 치르고 받은 법계증서는 1930년대 품계가 어떤 형식으로 주어졌는지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전한 구하 스님의 유훈에서는 스승과 제자인 두 스님의 돈독한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구하 스님이 1944년 영축산 통도사 대웅전에서 월하 스님에게 내린 법게도 눈여겨 볼만하다.

영축산 가운데 한줄기 매화가 있어
(靈鷲山中一莖梅)
천지가 나뉘기도 전에 꽃이 피었구나
(花開天地未分前)
이 꽃은 청 · 황 · 백에 관여치 않으니
(此花不管靑黃白)
겁밖에 봄빛은 변하지 않는 인연이라네
(劫外春光不變緣)

구하 스님은 법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을 통도사에 매화에 비유해 법게에 담아냈다. 이밖에도 '현지우지(玄之又之)' '독보청천(獨步靑天)' '일념만년(一念萬年)' 등 스님의 명필도 감상할 수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문화의 시대가 도래한 21세기에 이번 전시가 던져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시간 정신문명을 주도해온 불교는 이제 문화의 삶을 주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3개월간 펼쳐지는 이번 유물전을 통해 불교계 전시가 다양화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발우 · 가사 · 禪書 · 사진은 물론
구하 스님 유훈 · 법계증서 등
시대상 알 수 있는 유품 주목
5월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서

한편, 노천당 월하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재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노천문도회(회장 성파)는 3월 25일 '탄신 100주년추모다례재'를 영축총림 통도사 보광전에서 봉행했다. 〈차주상보〉 이날 법회에는 월하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 한 〈영축산에 달 뜨거든〉(윤청광 저)도 봉정됐다.

또한 '월하 스님의 계율을 통한 수행의 재조명'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직접 나서 '월하 스님의 정화불사' 기조강연을 했다. (055)382-718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유품 215점을 만날 수 있다. 시계방향으로 월하 스님의 글씨인 '일념만년', '통', 은사인 구하 스님이 내린 '법게', 스님의 진영

"꽃으로 피어난 구도의 여정"

정태궁 개인전 '꽃에게'
3월 31일까지 조계사 나무갤러리

선인장, 수세미, 작약, 수국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들이 화폭으로 피어올랐다. 섭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을 꽃으로 표현한 정태궁 개인전 '꽃에게'가 3월 31일까지 조계사 경내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나무를 깎아 색칠을 한 조각 기법의 회화를 통해 작가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고자 했다.

"해와 달, 별과 꽃 등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조형적 실험을 통해 결국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모두가 생명의 원천임을 깨달았죠. 이런 경험을 꽃이라는 자연적 소재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작가는 나무를 깎아 색칠을 한 조각기법의 회화로 작품을 만들어낸다. 나무 판을 조각하고 그 위에 색을 입힌 후 대리석, 철근 등의 다양한 재료들을 덧붙여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녹색 바탕에 나무의 원색을 살린 선인장 잎과 그 옆으로 활짝 핀 흰색의 선인장 꽃, 노랗게 세상을 밝히는 수세미 꽃, 붉은 등만큼이나 화려한 꽈리꽃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준다.

작가는 충남 서산에서 생활하며 자신이 보고 느낀 자연을 작품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폐교를 미술관으로 만들어 작업실과 미술관을 함께 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이는 것이 다 꽃이다 보니 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선인장 꽃, 제비꽃 등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꽃들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우주를 담고자 했습니다."

재가수행자이기도 한 작가는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와 명상, 반야심경 독송 등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월정사 단기출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수행을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단기출가를 했습니다. 당시 명상을 하다가 깊은 삼매를 경험해보기도 했어요. 내 몸이 사라지고 옴만 남은 상태를 경험한 것이지요. 또 월정사 전나무 숲 포행을 하면서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평생 수행이라는 것을 해나가야겠구나 하는 새로운 발심을 하게 된 계기기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앞으로도 꾸준한 수행을 통해 자연 속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도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010)4412-8486 정혜숙 기자



섭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을 꽃으로 표현한 정태궁 개인전 '꽃에게'가 3월 31일까지 조계사 경내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수무상형… 물은 형상이 없다"

동국대 교수 김대열 개인전 갤러리 한옥에서

"나는 자연 속에 있으며 자연은 나 속에 있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부분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서로의 근저에 있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산은 산, 물은 물로서 내 눈앞에 있게 되는 것이다."

김대열 작가(동국대 교수)의 '수무상형… 물은 형상이 없다' 전이 3월 26일까지 종로구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연의 형상을 선적으로 표현한 수묵 작품 14점을 전시한다. (02)3673-3426 정혜숙 기자



자연의 형상을 깨달음으로 표현한 김대열 작가의 '수무상형'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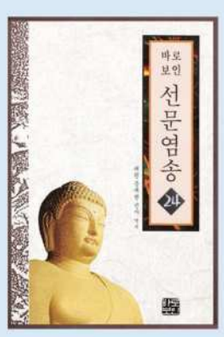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문화

“불교 알리는 신명난 무대로 기쁨 드리고 싶어요”

현대불교음악가 야운


현대불교음악가 야운은 찬불가를 현대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불교와 전통 알리며 노래
우수한 불교공연 제작 발원
4월 5일 정각원서 공연도

“전국 곳곳에 공양주 보살님들이 모두 제 어머니에요. 저에게 그분들은 부모님이자 최고의 부처님이죠. 그 어머니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요. 그분들이 즐거우면 저도 즐겁죠.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보다 저한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저 제가 선 무대에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자가수 야운(37)은 자신을 현대불교음악가라고 칭한다. 찬불가를 현대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자 하는 야운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친 이름이다. 오랜 시간 산사에서 노래를 했지만 지난해에야 첫 찬불 앨범을 낸 야운. 그녀는 자신이 서는 무대가 매번 흥겨웠으면 한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불교계의 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스님들처럼 포교를 할 수는 없으니 불자님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 분위기를 돋우는 일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불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너무나 흥이 나요. 유명한 가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 욕심도 없어요. 예술을 하거나 불교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죠. 그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불교와 전통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일에 공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보살님들이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을 받는다는 야운은 그들을 위한 콘서트를 마련한다. 4월 5일 오전 11시 정각원에서 열리는 ‘힐링과 현대불교 음악’ 콘서트다. 이미 봉은사, 조계사, 비구니회관 등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는 야운은 ‘부처님 이야기 그림과 함께하는 산솔바람’ 이라는 부제를 붙여 공연을 진행한다.

“저는 전국의 불자님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보살님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공연은 보살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 꽃그림은 물론 〈부모은중경〉 〈법화경〉 등의 법문 구절을 삽입한 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노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공연은 앞으로 대구 부산 등에서 순회 공연을 가질겁니다.”

늘 불교 공연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고민하던 그녀는 현재 동국대문화예술대학원에 입학해 공연예술경영을 공부하고 있기도 하다. “공연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관중들이 반응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반응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공연예술학과에 입학해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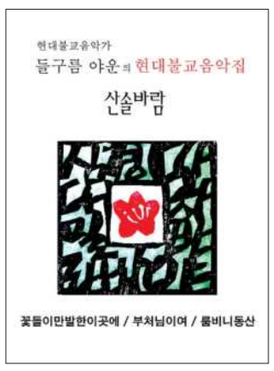
그녀는 지난해 들구름악단과 함께 조계사 공연을 기획해보기도 했다.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공연이었어요. 제가 의자 배치에서 조명 영상을 담당한 것은 물론 전단지 작업까지 했죠. 주지스님께 마당만 빌려 달라고 해 공연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름만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야운은 한국 지역복지봉사회에서 17년 동안 봉사를 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17살 때 기타를 배우면서 수와진의 안상수 선배님과 함께 심장병어린이 돕기를 했어요. 그때 노래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후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가입해 회원들과 함께 무의탁 어르신들의 목욕, 이발, 칠순잔치, 도시락 배달 봉사 등 다양한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계사 어버이날 기념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어르신들을 보면 사계절 잘 이겨낸 동백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저 감동적이에요.”

슬픈 가족사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던 그녀는 절을 떠돌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가는 곳마다 법당에서 절 기도를 올렸고 공양간에 가서 운력하며 공양주 보살님들을 어머니 삼았다.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았어요. ‘너의 고통이 너를 지나갈 것이요. 마음이 너를 용서해야 한다’ 고 말이죠. 그때 받은 영감으로 탄생한 노래가 바로 ‘부처님이여’ 라는 곡이에요. 저는 늘 부처님을 닮고 싶어요. 마음의 온화한 미소, 자비로운 성품을 제 얼굴 속에 담아내고 싶어요.” 1661-060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심곡암 너럭바위 위에서 부처님말씀을 노래로 전하는 야운의 공연 모습.



야운 찬불가 1집 ‘산솔바람’

뒷날 복된 땅 어디서 찾으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⑬ 이색과 송광사 (上)




송광사 경내로 들어가는 능허교와 계류. 능허교 뒤의 건물이 침계루다.

결사정신 이어 온 승보종찰

열여섯 명의 국사(國師)를 배출한 승보종찰(僧寶宗刹) 송광사의 연원은 신라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광사사적비〉와 〈보조국사비명〉 등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신라 말 혜린선사(慧璘禪師)가 터를 잡고 길상사(吉祥寺)를 창건하고 산 이름을 송광산이라 했다. 이후 길상사는 스러져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다. 고려 말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 스님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결성하여 길상사를 수행 도량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고려 희종으로부터 절 이름을 ‘수선사(修禪社)’ 산 이름을 ‘조계산(曹溪山)’ 이라는 친필 사액을 받았다.

송광사는 퇴폐해 가는 고려 불교에 새로운 수행의 바람을 일으키며 정혜결사의 정신을 이어 오는 동안 우뚝한 걸승들을 배출하고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는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는 동안 절 이름은 길상사, 수선사, 송광사로 바뀌었고, 산 이름도 송광산, 길상산, 조계산으로 이어져 왔다. 산 이름과 절 이름이 모두 깊은 불심과 수행 천혜의 자연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송광사의 역사는 그 도량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대를 이어 이루어 온 찬란한 보탑(寶塔)이다. 스님들의 정신이 정혜결사의 그 견고한 의지를 버리지 않아 대를 이어 국사를 배출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수행가풍을 떨쳐 온 것이다. 16국사를 비롯한 많은 고승들과 역사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물소리 바람 소리를 벗 삼아 촌음을 아껴가며 정진했을 스님들의 공력이 오늘의 송광사를 이루어 온 것이다.

극락정토 이루는 복된 도량

긴 역사만큼이나 송광사를 읊은 시도 많고 도량을 순례한 명인들도 많다. 선비들이 송광사의 스님들과 시문을 나누고 도담(道談)을 나눈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려 말의 충신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은 송광사는 물론 송광사의 스님과 관련된 시를 남겼다.

동부심심격세진(洞府深深隔世塵)
산승무사해담진(山僧無事解談眞)
타년복지심하처(他年福地尋何處)
백석청계입몽빈(白石淸溪入夢頻)

골이 깊고 깊어 세속 티끌 끊겼는데
스님은 일 없어도 참 도를 말할 줄 아네.
뒷날 복된 땅 어디서 찾으랴
흰 돌 맑은 물 꿈속에 자주 뵈리.
–이색 ‘송광사(재승주)’ 〈목은시고〉

이색의 이 시는 깊은 산골의 그윽한 도량을 고사(故事)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스님은 일 없어도 참 도를 말할 줄 아네’ 라는 두 번째 구절의 배경이 되는 고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개 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승려 충활(沖豁)이 처음에 남성아원(南省亞元)으로서 몸을 빼어 송광사에 가서 중이 되어 도를 닦았다. 최이(崔怡)가 지주사(知奏事)가 되었을 제 편지를 써서 차(茶)와 향과 〈능엄경(楞嚴經)〉을 보냈다. 사자(使者)가 돌아갈 제 편지 답장을 써 달라 하니, 대사는 말하기를, “내 이미 세상과 인연을 끊었는데 무엇 하러 편지를 내왕한단 말인가.” 했다. 그러자 사자는 억지로 재촉하고 또 시를 지어 주니, 대사는 곧 여기에 차운(次韻)하기를, “수척한 학은 고요히 소나무 위 달빛 속에 앉았고, 한가한 구름은 가볍게 고개 위의 바람을 따라 흘러가네. 이 가운데 이 면목(面目) 천리가 같으리니, 어찌 다시 새로이 말을 만들어 통하리.” 하고, 끝내 편지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 남성은 예조를 뜻하고 아원은 과거에 두 번째로 합격했다는 말이다. 즉 충활 스님은 원래 관료였는데 출가하여 송광사에서 수행을 했던 것이다. 친분 있는 관료 최이가 선물을 보내고 답장을 요구했으나 스님은 출가자로서 속세 지인과의 사귐을 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인 것이다. 이색은 충활 스님의 단호한 의지로 성불하여 복된 땅의 주인이 될 것임을 읊으면서 수선결사 도량인 송광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뒷날의 복된 땅이란 극락정토일 것이다. 일체중생이 해탈 성불하여 더 이상 윤회의 고통이 없는 곳이 불교의 궁극이다. 흰 돌과 맑은 물이 바로 극락정토의 모습이니, 꿈에 자주 보인다는 것은 왕생극락 내지는 현생정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희망의 표현인 것이다.

파운일상침계루(破雲一上枕溪樓)
편욕인간만사휴(便欲人間萬事休)
반일등림즉귀거(半日登臨卽歸巨)
명조상마중회두(明朝上馬重回頭)

구름 헤치고 단번에 침계루 오르니
문득 인간만사가 허망함을 알겠네.
반나절을 올랐다가 곧 돌아가지만
내일 아침 말에 오르면 거듭 돌아보리라.
–이색 ‘송광사 침계루’ 〈목은시고〉

이 시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신증’ 으로 소개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없었는데 추가로 소개한 것이다. 송광사 침계루는 정면 7칸의 큰 누각으로 ‘사자루’ 라고도 하는데 강당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 사자후를 듣는 누각이란 의미다.

침계루란 글자 그대로 계곡을 베개 삼은 누각을 말한다. 계곡에 바짝 붙여 지은 누각이다. 해남 대흥사에도 침계루가 있는데 역시 계류에 바짝 붙어 있다.

이색은 송광사 침계루에 잠시 올랐다가면서도 그 풍경 속에서 무상의 도리를 엿보았다. 그리하여 속세로 다시 돌아가면서도 거듭 되돌아 볼 것이라 말한다. 절경 속 많은 고승을 배출한 유구한 역사가 입증하듯이 송광사는 잠시 다녀가는 감회에조차 무설설(無說說)의 법문이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는가?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2 ~ 3/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삶은 환타지다	월호	민족사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5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6	담마빠다-빠알리어 직역 법구경	일아	불광출판사
7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8	공-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민족사
9	산 아래 작은 암자에는 작은 스님이 산다	현진	담앤북스
10	윤회의 본질	크리스토퍼 M. 베이치	정신세계사



〈삼국유사〉 뮤지컬 극본으로

장창호 삼국유사

장창호 지음 | 연극과인간 펴냄 | 전12권



우리는 누구인가

나오는 사람: 일연, 무리(봉황 · 삼족오 · 용의 표적을 지닌), 백성(시공을 넘나들며 극중 인물을 맡기도 하는)

때: 현재-1284년(고려 충렬왕 11년)-까마득한 옛날-1284년

곳: 인각사 승방

뮤지컬 극본이다. '일연의 삼국유사'를 극작가 장창호가 '장창호 삼국유사'로 리메이크했다.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정신문화사인 〈삼국유사〉 전체를 모두 141편의 이야기로 다시 펴냈다. 우선 12권의 책을 먼저 냈다. 탈고까지는 7년이 걸렸다.

〈삼국유사〉는 '고조선' 편을 두어 우리 역사의 지평을 단군까지 넓힌, 기념비적인 책이다. 〈장창호 삼국유사〉에서는 그 뿌리를 더 멀리 잡았다. 삼국유사에서 첫머리에 나오는 '왕력' 편은 마지막에다가 두어 종합해서 보도록 했다. 서두는 극본의 서막으로 한민족의 징표로 삼은 세발까마귀와 봉황을 통해 '우리는 누구인가'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장창호 삼국유사〉는 시작한다.

〈장창호 삼국유사〉의 특징은 코러스 겸 등장인물의 역을 맡기도 하는 '백성'이 전 작품의 중심을 잡고 이끈다는 것이다. 각 편마다 주인공이 있지만, 주인공이 엮는 서사는 편마다 주제와 내용에서 통일성이 없기에, 현대적인 인물이면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편마다 백성을 등장시켜 고대 한국사의 맥을 짚는 역할을 설정한 것이다. 이 백성이 이끄는 서사와 질문이야말로 〈장창호 삼국유사〉의 중요한 집체극적 특성이다. 또한 학교나 역사를 다루는 어떤 단체에서도 교육극으로 무대에 올릴 것을 고려한 것도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겠다. 가족 단위로 읽고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쉽게 역할놀이를 할 수 있도록 꾸며 우리 고대 문화를 생활 속에서 알게끔 구성한 것이다.

근래에 텔레비전이나 영화, 소설 등에서 재미를 위해 역사를 제멋대로 비틀어 보여주는 예가 많은 점에 유의하고, 근본이 되는 서사는 기록 그대로를 바탕으로 하고, 새로운 인물은 알 수 없는 사람, 백성, 무명 따위로 역을 맡을 때마다 그 사실을 관객에게 알리는 서사극적 요소와, 필요에 따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요소를 가미하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 문화사의 시원과 토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를 한 번에 공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한 편씩 공연하거나 시리즈로 엮어서 할 경우 공연 대본을 연출자와 협의하여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토론 혹은 병렬식 구성까지 도입한 점도 특징이라고 하겠다.



인각사 일연 스님
생애관에 전시된 삼국유사 조선시대본

141편 이야기 12권 책으로
탈고까지 7년 걸린 역작
'백성' 전 작품의 중심이 특징
교육극, 가족극 활용 고려
우리문화사의 새로운 해석
"일연은 살아 숨쉬는 위대한 작가"
〈삼국유사〉전체 뮤지컬 극본화 처음

그간 우리는 외국 신화를 우리 것보다 잘 알고 흥미롭게 이야기해온 시절을 살았다. 판타지라는 이름의 문학과 영상이 쏟아져 들어온 지가 제법 되었고, 그것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갈래인 추세에서 〈삼국유사〉 전편을 뮤지컬 극본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하 분량을 소설이 아닌 극본으로-시공간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펴내는 일은 일종의 모험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한국의 작가로서 우리 역사의 기록을 매만지고 싶은 욕심과 사명감으로 집필을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작가는 삼국유사의 행간을 따라 우리 민족의 자취를 찾아 나섰다. 도래솔을 지나 왕릉을 참배하고 비문을 읽고 오래된 강가를 거닐었다. 〈삼국유사〉만의 맛과 빛깔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초고를 쓰고 고치면서 일연 스님의 관점과 문장, 비유와 상징, 생략된 내용을 밝히는 일에 몰두했다. 그렇게 작가는 일연의 〈삼국유사〉를 매만지며 "그야말로 일연은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였고, 아직 살아 숨 쉬는 위대한 작가였다."고 독백한다.

작가에 의하면 어느 고고학자가 〈삼국유사〉를 '가짜'라고 했다고 한다. 〈삼국유사〉가 가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지금 전해 내려오는 책이 진본이 아니 데다가 기록이 잘못된 곳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려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친 데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가짜라고 한다면 몰라도 〈삼국유사〉 전체를 가짜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작가는 말한다. 〈삼국유사〉를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중국의 〈전한서〉, 〈후한서〉와 같은 정사(正史)쪽의 틀에 올린다면 당연히 〈삼국유사〉는 '황당한' 책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태생이 다른 역사서다.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사를 온전하게 다루지 않았으며 그런 의도로 쓴 책은 더욱 아니다. 이름부터 '사(史)'나 '기(記)'가 아닌,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자취를 뜻하는 '유사(遺事)'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 신화와 설화와 민담이 있고 신라의 향기가 들어 있다. 〈삼국유사〉는 정사의 다른 면을 다룬, 고승전 형식의 야사체로 기록한 이야기와 문화사다. 작가는 우리의 독보적인 정신 문화사마저 가짜로 인식되는 현실을 걱정했으며, 그 걱정이 집필에 대한 결정적 동기가 됐다고 했다. 작품은 작가의 부인이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를 찾았을 때 주지 스님의 권유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 동안 〈삼국유사〉의 일부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소설은 많았지만 〈삼국유사〉 전체를 뮤지컬 극본으로 옮긴 것은 처음이다.

"서기 936년 새 세상이 왔다. 완전한 통일천하가 열렸다. 〈중략〉 송악에 도읍하고 불교를 받드네. 법왕사, 자운사, 왕륜사… 원통사, 지장사 세우네. 고구려, 백제, 신라 한 백성으로 뭉쳐 〈후략〉" 작품은 노래 '새 통일천하 고려'를 부르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부록으로 일연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일연' 편을 붙였다. 작가 장창호(1960~)는 연극 '사문의 모'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뮤지컬 삼십여 작품을 연출했다. 희곡집 〈바위에 새긴 사랑〉, 부조리극본집 〈ㅅㄹㅎ〉이 있다.

박재완 기자



저자 · 장창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근본적 보살핌은 바로 자녀의 맑은 영성 일깨우는 것"

디팩 초프라의 부모수업

디팩 초프라 지음 | 구승준 역 | 한문화 펴냄
1만3천원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천금 같은 내 자식이라 무한한 사랑을 베풀겠다고 다짐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회의가 일어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부모에게 많이 있다. "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까?" "부모 노릇은 어떻게 할까" 등등. 세계적인 영성 철학자 디팩 초프라는 아이의 영성을 키우는 것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영적 교사로서의 부모 노릇에 대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일곱 가지 지혜는 아이들이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얻어내고,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준다.

이 책은 자녀를 창조력이 풍부하면서도 영적인 만족감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육아서다.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성의 세계를 폭넓게 다룬 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 전 세계 대중과 소통하는 저자의 유일한 자녀교육서이기도 하다.

전작인 〈성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영적 법칙〉이 큰 반향을 일으킨 후, 수천 명의 부모들에게서 자신이 배운 영적 법칙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는 편지를 받은 저자가 부모들에게 보낸 답장이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 보살핌은 자녀의 영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일곱 가지 영적 지혜 즉 순수잠재력의 법칙, 베풂의 법칙, 인과의 법칙, 최소 노력의 법칙, 관심과 소망의 법칙, 초연함의 법칙, 다르마의 법칙은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깃든 무한한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열쇠다. 저자는 이를 통해 부모 노릇이 가진 영적인 차원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아이의 성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내 아이의 영성 깨우기는 어떻게 시작할까? 아이들은 늘 사랑에 허덕인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도 아이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고 불안해한다. 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겠다고 마음 먹지만, 대개는 그게 무엇인지 부모 자신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성장 과정서 부모 역시 '상처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부모가 처한 어려움이다. 상처받은 아이였던 부모가 어떻게 하면 멍들지 않은 온전한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자녀에게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일곱 가지 영적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영적 교사로서 순수한 사랑으로 부모 노릇을 잘 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일곱 가지 지혜는 요일별로 하나씩 주제로 삼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간단한 체험을 통해 전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주제별로 간단한 행위나 질문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활동'이 주어지는데 부모와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천해볼 수 있는 것들이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보고 배운다. 결국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부모와 아이가 영적 법칙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삶의 진정한 성공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자녀교육의 불교적 새 패러다임 제시
부모의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스승

인생이란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이루고 쟁취해야 하는 백 미터 달리기가 아닌데도 현재 우리 교육은 조기교육, 영재교육, 몰입교육 등 입시와 경쟁을 부추기는 학습능력 키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다르다. 미래학자인 워싱턴대학의 윌리엄 하랄 교수는 "2020년이면 지식정보시대가 끝나고 지식 이상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성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한다.

김주일 기자

▲아이의 영성을 깨워주는 일곱 가지 지혜
- 순수 잠재력의 법칙 : "넌 뭐든지 할 수 있단다."
- 베풂의 법칙 : "무언가를 바란다면, 먼저 그걸 베풀어봐."
- 인과의 법칙 : "네가 지금 내리는 선택에 따라 네 미래가 달라진단다."
- 최소 노력의 법칙 : "거부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렴."
- 관심과 소망의 법칙 : "뭔가를 바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소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란다."
- 초연함의 법칙 : "삶을 여행하듯이 즐기렴."
- 다르마의 법칙 :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란다."

목각단청운각
법당장엄 5층 목탑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경의로운 최면의 세계 !!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최면지도사협회장
심리상담 전문가
최면상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학 강의
KBS 굿모닝 대한민국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jtbc 부모찾기
그 여자 그 남자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각종 케이블 방송외 다수 출연
1회 무료수강 가능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 · 사 기업체 출장강의 환영
잠재능력 개발의 산실
한국최면과학원
현재 접수중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중국불교, 서한 말부터 중국 역사 관통



중국불교
계환 스님
민족펴냄
1만 6500원



불교사가 중국불교의 연구에 큰 중요성을 갖는 까닭은 그것이 긴 역사를 통해 중국인의 생활 방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물론 20세기 이후 중국에서는 불교가 쇠퇴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교가 중국 문화에 끼친 영향과 중국인들의 삶에 지속적인 자취를 남겼다는 사실까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역사는 바로 현재 의식에서 포착하는 과거이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교사 전개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한국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불교의 역사를 쉽게 풀어 쓴 〈중국불교〉(불교입문총서 시리즈 7권)는 단순히 중국 불교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차원을 넘어 한국불교의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불교사를 다룬 학술서지만 서술이 쉽고 명쾌해 일반 독자들도 편안히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 주듯, 중국불교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서한(西漢) 말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중국의 전(全)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이 책은 외래 종교인 불교가 중국인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존의 중국 사상과 문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며 중국인들과 동화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많은 예화를 통해 보여준다

아울러 이 책은 중국불교사의 굵직한 사건 및 인물들, 사상의 계보를 시종일관 당시의 사회 · 정치적 배경과 연관 지어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상이나 역사 연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저자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저자의 시점을 따라 여러 각도서 중국불교사를 관찰함으로써 중국불교를 보다 면밀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불교가 국가종교로서 장려되거나 반대로 탄압받는 등 정치의 한가운데서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불교에서는 중국 역사 속 정치의 작은 풍경들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국왕들의 관심은 불교 그 자체보다는 고승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승들의 해박한 지식과 그들이 지닌 종교적 영험 및 신통력에 의지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고승들은 정치적인 고문 역할을 했다. 석호와 불도징의 관계, 부견과 도안, 요흥과 구마라집, 저거몽손과 담무참의 관계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중화의식' 을 토대로 한역대장경을 탄생시키고, 중국 고전의 개념을 매개로 불교를 이해하는 격의불교(格義佛敎)를 고

한국 불교 모태 된 중국불교 연구
중국 시대별 정치와 사회상 엿봐
기존 도교 및 유교와의 관계 서술

안해 내는 등 중국인들이 독자적인 불교를 형성해 나갔던 모습이 서술돼 있어, 중국의 독특한 사상 및 전통과도 마주하게 된다.

한편 중국불교가 기존 중국 사상인 도교 및 유교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발전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묘미이다. 불교와 부처에 대해 문답을 펼치는 '모자이혹론' 의 설명 부분에서는 불교 전래 당시 민간의 수용 상황을 짐작케 해 흥미롭다.

또한 불타를 의역하면 각(覺), 즉 깨달음을 의미한고도 답한다 그리고 그는 불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변화자재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떤 때는 존재하고 어떤 때는 소멸하며, 크기도 작기도 둥글기도 사각이기도 한다. 또한 늙기도 젊기도, 숨거나 나타나기도 하며,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칼로 베어도 상처가 없다. 더러움 속에 있어도 때가 묻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가려고 생각하면 곧 날아가고 앉아서도 광명을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호(號)를 불(佛)이라고도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한국불교는 그 기반을 중국불교에 둔다. 천태나 화엄 같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교리가 중국에서 체계화됐다. 선종과 정토종도 중국서 발달하고 전개된 종파들이다. 이처럼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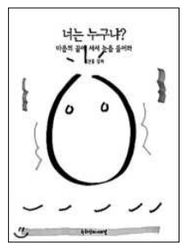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계환 스님은?
운문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와 일본하나조노(花園)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교토 불교대학 대학원 석 · 박사 과정 수료 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동안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불교학과 교수와 중앙도서관장을 맡고 있다. 옮기거나 집필한 책으로는 〈홍명집〉 〈중국불교사〉 〈중국화엄사상사연구〉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공저)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일본불교사〉 등 다수가 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정한 자아 찾으면 삶의 큰 변화 연결"

너는 누구냐

김건웅 지음 | 슈하인터내셔널 펴냄 | 1만2천원



이 책은 나(에고)의 정체를 탐구하는 7일간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1997년 초판 이후 2004년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 책은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도 종교적 색채와 관념적인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일상 언어로 깨달음을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책은 허상인 에고를 넘어 대상화가 되지 않는 최후의 주시자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최후의 주시자가 되는 것은 본성계합이며, 넘어감이고 깨달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평정이며, 평화이고 궁극이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해답이다.

깨달음은 결코 어렵지 않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깨달음을 생활 속의 힐링 개념으로 일반화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역사 이래 종교와 철학, 정신세계를 아울러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깨달음이 사회와 격리된 산속에서 극난한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책은 사고의 극한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또한 깨달음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루 삶의 과정 속에 짧은 시간이라도, 단 3초, 단 7초라도 보는 것을 뚜렷이 보며, 듣는 것을 정확히 듣는 시도를 한다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것은 개념일 뿐

우리는 자연과 우리 자신의 삶, 즉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 수많은 개념을 갖고 있다. 산, 물, 해, 달, 별, 낮, 밤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것도 있고 선, 악, 우정, 사랑, 진리 등의 추상적인 것도 있다. 산과 물 같은 구체적인 것, 아니면 사랑, 진리와 같은 추상적인 것, 또한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이미지나 관념적 언어 등 이러한 것은 모두 우리가 개념화시킨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 라는 것도 개념일 뿐이다.

참다운 마지막 나는 최후의 주시자

'나' 의 특성 중 하나는 언제나 분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내가 있고, 이것을 또다시 알고 있는 자기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가 또 있다. 나라는 것을 인식이나 느낌으로 추적해도 마지막에는 그 개념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최후의 인식자가 있다. 참다운, 마지막 자기는 주체의 원점이고 최후의 인식자이다. 그것은 최후의 인식 그 자체일 뿐이다. 오직 인식 작용, 즉 아는 작용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안다라는 개념이 사라진 그 무엇일 뿐이다. 결국 나라는 것은 개념이 사라진 그 무엇이다. 진실한 나는 나라는 개념이 사라진 그 무엇일 뿐이다. 최후의 인식이 사라진 오직 그 자체, 그것이 깨달음이다.

수정은 꽃 비추지만 색깔에 물들지 않아

수정에 비추어지는 빨간색 꽃이 있다. 수정은 빨간색을 비추지만 그 색깔에 물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본성계합이 된 사람은 빨강 꽃을 보면서 보는 현상에 물들 수 없다.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기쁨, 고통, 슬픔도 마찬가지이다. 수정 자체는 비추어진 현상에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수정에 비추어진 현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에고는, 수정의 입장에서 보면 허상이고, 그것을 실재로 인정하는 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3초, 7초에 깨달음이 가능한 이유

수정에 비춰진 잡념, 고통, 집착 등은 수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성계합, 즉 수정은 잡념을 없앨 필요도 없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도 않게 되며,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즉, 비추어진 고통은 수정과 무관하다. 또한 고통을 잘 보면 고통이 아니라 수정임을 안다. 고통이 본성, 즉 해방, 진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거나 잡념을 없애지 않고도 본성계합은 즉시(시간과 과정에 관계없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에고와의 마지막 유희 즐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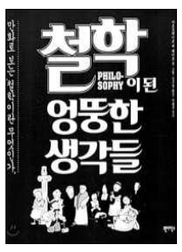
자아라는 것은 허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아라는 불완전한 허상, 개념 속에서 분리감을 갖고 살아왔다. 꿈과 같은, 허깨비와 같은, 있을 수가 없는, 전혀 사실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이제 단 한 순간만이라도 최후의 인식 그 자체가 되면, 당신의 존재 혹은 삶 자체의 방향(시공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우리들이 허깨비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에고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에고가 있었기에 7일간의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에고와의 마지막 유희를 즐기고 홀가분하게 설레는 마음으로 본성계합 즉 깨달음의 여행을 떠나자고 독려한다.

김주일 기자

삶을 멋대로 가지 않게 하는 길잡이 '철학'

철학이 된 엉뚱한 생각들

마르흐레이트데 헤이르 글 | 김기철 그림
원더박스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은 장대한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정리한 새로운 형식의 철학 입문서이다. 저자는 철학 책이 대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쓰여 있어서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인상을 주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면서, 모든 철학자들의 사상과 개념을 설명하는 대신 저자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삶에서 철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철학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매우 개인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철학은 곰팡내 나는 언어로 뒤덮인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동 조종기 위에서 멋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길라잡이임을 말한다.

언뜻 보기에 이 책은 서양철학의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한 만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철학사만 늘어놓는 여느 책과 달리 저자 자신이 어떻게 철학을 만났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마르흐레이트 데 헤이르는 신학을 공부한 가정에서 자랐다. 하지만 주어진 운명을 거역하듯 영화 아카데미에 진학했고, 그 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몸소 깨닫는다. 다시 유전자에 굴복하듯 다른 가족들처럼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의 뜻이었는지 결국에는 만화가로 살 것을 '선택' 한다. 이밖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슬퍼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학교 졸업 후에는 엘리트 코스보다는 '현장' 경험을, 인간관계에서도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사연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택함으로써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공부했음을 고백한다. 저자는 자신의 이런 선택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선택 이후에 과연 어떤 '지혜' 를 얻게 되었는지를 '철학적' 으로 고민한다. 이처럼 이 책속에는 조금은 엉뚱하지만 영리한 방식으로 생각이 철학이 되고 철학이 삶이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저자 자신이 공부한 철학 개념들이 어떻게 삶에 녹아들었는지를 면밀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 스스로 '나의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엉뚱하고 유쾌한 '사유 철학 입문서'
생각이 삶의 철학되는 '진짜 철학'
철학은 삶의 지혜를 얻는 실용 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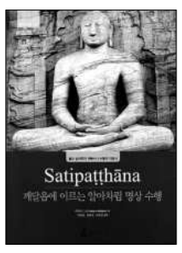
이 책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저자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철학을 인터뷰한 후반부이다. 저자는 철학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 전반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남편과 시어머니, 친척과 동생 등 보통 사람들의 '삶의 철학' 을 탐구한다.

김주일 기자

'사띠' 수행의 핵심 정리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수행

아날요 스님 지음 | 이필원, 강향숙, 류현정 공역
명상상담연구원 펴냄 | 2만원



이 책의 저자인 아날요 스님은 독일인으로 스리랑카 페라데니야 대학서 2000년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수행' 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책이 딱딱한 학술적 학위논문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한 해설을 실어 여러나라 언어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 책은 명상 수행에 대한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염처경〉에 대한 상세한 문헌 고찰을 통해 초기불교 수행서 염처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 그리고 실제적 적용에 이르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놨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품절]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붓다의 물리학
3. 감성물질 ㊦

몸 · 마음… 그것이 무너져 가는 것이 세상이다

다른 감성물질(빠사다 루빠)들 즉, 후각, 미각, 촉각 등에 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정의한다. 후각은 코에 있는 물질(루빠) 때문에 일어난다. 그것은 냄새 맡는 조건 중의 하나다. '청정도론' (15장, 39)에서, 비식은 코, 냄새, 공기(바람 성품)와 주의기울임으로 인해 일어난다.

바람 성품물성인 움직임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에 관해서 '앗타살리니' (2, 2권, 1부, 3장, 31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코로 냄새 맡기 위해서는 바람에 의존하는 냄새를 가진 대상이 있어야 한다. 사실, 비가 처음 내릴 때 소떼는 땅에서 계속 냄새를 맡으며 하늘로 재갈은 들어 올려 공기를 숨 쉰다. 그래서 향기 나는 덩어리를 손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을 때 숨을 들이쉬지 않으면 냄새는 나지 않는다."

미각은 혀에 있는데, 이는 맛봄의 조건들 중의 하나다. 청정도론 같은 부분에서 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맛봄' (지와 윈냐나_舌識)은 혀, 맛, 물기, 주의기울임 때문에 일어난다." 물의 물성 즉, 응집력도 맛을 보는 데 한 역할을 한다. 앗타살리니 (같은 절, 315) 에는 물 성품이 혀 의식의 한 조건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밤중에 세 번 관찰로 비구의 임무가 수행되더라도,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발우를 들고 가사를 입고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는데) 침을 적시지 않으면 마른 음식의 맛을 구별할 수 없다…"

몸의 촉각은 손발톱과 털을 제외하고 온몸과 몸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감촉 대상을 지각하는 조건 중의 하나다. 청정도론의 앞에 언급한 같은 절에서 "신식은 몸, 감촉대상, 땅 성품, 그리고 주의 기울임 때문에 일어난다."

'앗타살리니' (같은 절 315)에서 설명하기를, **"…안과 밖의 땅 성품은 대상을 잡을 때 느끼는 촉감의 원인이다. 천을 잘 씌운 침대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또 손안에 있는 과일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는 앉아 보거나 눌러 보기 전에는 잘 모른다. 이렇게 몸 안과 밖의 땅 성품은 몸 감촉기관인 피부가 촉감지각의 원인이 된다."**

그리하여 촉감을 지각하는 신식이 있으면 실제로 물성에 부딪치는 다른 물성이 있는 것이다. 몸의 촉각에 닿는 대상의 영향은 다른 어떤 감각들에 닿는 대상들의 영향보다도 더 격렬하기 때문에 청정도론의 주석서인 '빠라맛타 만주사' 에서는 신식(까야윈냐나_身識)은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을 동반하며 덤덤한 느낌은 없다고 했다. 반면에 다른 오식(봄, 들음 등)은 덤덤한 느낌을 동반한다.

몸의 감각이 지각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땅 성품이 부드럽고 딱딱함으로 나타나고 열 성품은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나타나고 바람 성품은 움직임과 압력으로 나타난다.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면 몸의 촉각 어디에서든지 바로 지각할 수 있으며,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형상 · 소리 · 냄새 · 맛 · 감촉은
감각의 문 통해 지각되고
마음의 문 통해서 인식돼

눈 · 귀 · 코 · 혀 · 몸 감각 대문 잘 지켜야

탐욕과 성냄으로 눈의 감각 제어 못하면
나쁘고 해로운 법 물 밀듯이 들어와

붓다 "오식의 相에 취하지 말고 통제하라"

몸 · 말 · 마음 잘 보호, 생각 안정되면
감각기능 조절 탐욕에 물들지 않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상 · 소리 · 냄새 · 맛 그리고 감촉대상(사대 물성 중 세 가지)은 상응하는 감각의 문을 통해서 지각되며 또한 마음의 문을 통해서도 인식한다. 감각대상들이 지각되는 감성물질 자체는 물질(루빠)들인데, 이는 마음의 문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은 토대(바투)이며, 상응하는 감각인지가 일어나는 곳이다. 마음(찟따)은 몸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인 토대에 의존한다.

시각은 보는 마음이 일어나는 토대다. 청각은 듣는 마음이 일어나는 토대다. 다른 감각기관도 마찬가지다. 신식(身識)의 토대는 감수성이 있는 몸의 모든 부분에서 다 일어난다. 지각기관은 상응하는 감각인지가 일어나는 토대다. 그 외에 모든 마음은 또 다른 토대인 심장토대를 가진다. 심장토대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알아보기로 하겠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은 앞서 보았듯이 상응하는 다섯 가지 감각인지의 문이다. 문(드와라)은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수단이다. 시각은 보는 마음과 보는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는 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시때때로 감성물질과 마음의 문에 부딪쳐 오는 대상들을 인식하는 마음들은 마음의 진행과정에서 일어난다. 눈의 문인 진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보는 마음 이외의 마음들은 보지 못하지만, 보이는 대상에 관해서 생각하거나가 조사하는 등 보이는 대상을 인지하는 그들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 감각기관 각각은 그러한 문을 통해서 감각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마음들의 문이 될 수 있다. 감각기관은 토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감각을 인지하는 문으로서도 기능을 한다.

감성물질은 늘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대상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할 때는 유일한 문이 된다. 예를 들어, 시각기관은 보이는 대상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에 의해 지각될 때 유일한 문이 된다. 소리를 들을 때, 청각이 문이며 이때 시각은 문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앗타살리니' (2, 2권, 3장, 316)에서 "감각은 섞이지 않는다"고 했다. 감각은 각각 고유의 특성과 기능, 표출, 가까운 원인을 가진다. 그리고 그들 각각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지각된다. 청각은 형상이나 맛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직 소리만 받아들인다. 듣는 것은 듣는 문을 통해서만 소리를 지각할 수 있다. 우리는 감각의 문이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그 까닭은 모든 경험을 조정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이 조건 때문에 일어나며 한 순간에 하나의 대상만 경험하고 곧바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실재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붓다께서는 자주 여섯 가지 문이 분리되어 있음을 말씀했다. 붓다는 사람들에게 알아차리면서 감각의 문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문을 통해서 지각할 때 많은 오염원인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상윳다 니까야' (4권, 육처를 위주로 한 가르침, 세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3장, 127, 바라드와자의 경)에 우데나 왕이 바라드와자에게 젊은 비구들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물었던 이야기가 있다. 바라드와자 비구는 몸의 더러움을 보는 것과 여섯 감각의 문을 지키는 것에 대해 붓다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다. 바라드와자 비구는 말하기를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라. 그대들은 눈으로 형색을 봄에 그 표상을 취하지 말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도 말라. 탐욕과 성냄 때문에 눈의 감각기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런 그대들은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기능을 잘 지키고,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라. 귀로 소리를 들음에…. 코로 냄새를 맡음에…. 혀로 맛을 봄에…. 몸으로 감촉을 느낌에…. 마음으로 법을 자각함에 그 표상을 취하지도 말며, 또 세세한 부분 상을 취하지도 말라…. 그것을 잘 통제하라…"

그때 우데나 왕이 붓다의 말씀을 경탄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바라드와자 비구시여, 저도 왕궁으로 들어올 때 몸과 말과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생각이 흩어지고 감각기능을 조절할 수 없으면 그럴 때는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 저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바라드와자 존자시여, 제가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보호하고 생각이 안정되어 있고 감각기능이 잘 조절될 때는 탐욕스런 마음이 저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 후 우데나 왕은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했다.

전체상과 부분상에 잘못 인도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순간 일어난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이해할 때다. '상윳다 니까야' (4권, 육처를 위주로 한 가르침,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3장, 82, 세상 경)에 '전체상' 에 집착하지 말고 여섯 감각의 문 중의 하나에 나타나는 그 순간의 대상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붓다께 와서는 한쪽에 앉아 붓다께 질문했다.?

'세상! 세상!' 이라고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비구여, 그것은 부서져 버린다. 그래서 '세상' 이라고 한다. 무엇이 부서지는가? 눈과 대상, 안식과 눈의 접촉이, 눈의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이 부서진다. 혀와… 몸과… 마음과… 비구여, 그것들은 무너져 간다. 그래서 세상이라 한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제11기
(사)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학인모집
안정사 소리 – 신라 최초 영남범패단 구성,
범음범패 홋소리, 짙소리, 사성소리
(사성에 의한 범패)
(1) 초급반 : 사물(요령,목탁,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의식
(2) 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대령관욕,천도재(49재), 각종의식
(3) 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게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4) 고급반 : 운심게,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4년 3월 21일
■ 교육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장(상시 모집)
* 본원은 종단과 승, 속 관계없는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매년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법회 동참,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편의도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범패강원 강주
영남범음범패 영산회 교육원장 | 사단법인 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이사장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전화 055)649-6711
팩스 055)649-6712
H·P 011-874-677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영남 범음.범패 학인모집
영남 범음. 범패 염불원에서
2014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 예불, 천도재, 49재, 모든의식
◆ 작법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승,속 관계 없이 가능함
◆ 개강일시 : 2014년 4월 17일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224-2 해원사
◆ 문 의 처 : 010-5065-5690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문체부허가 제2012-43호)
영남 범음범패 염불원장 재봉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사여래도량
보금정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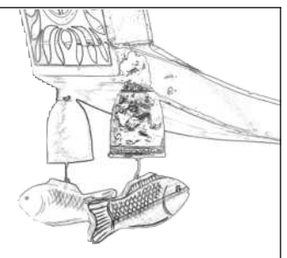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지금' 후회없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 입보리행론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시골 자그마한 암자에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나다
관세음보살 화신이
실제 현실에 나투시다
관세음보살 화신
전시관 창건불사
인연 접수합니다
금재선원 010-2255-7389

불사용 달마도 그려 드립니다

사이즈 : 18×19(지갑용)
37×36 / 71×38
▶통신 개인지도 3개월 완성◀
대구시 동구 팔공로 31길 6-4 천불사
팔공산 선인 010-8786-614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고성 우능사)
055)835-8656

대구 팔공산에 있는 조계종 사찰에서 공양주를 구합니다
45~60세, 오래 같이 계실 (1년이상) 신심있는 불자분과 가족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대구팔공산에 있는 조계종 사찰로 주로 직장인, 청소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명상수행을 합니다. 또한 기도, 명상프로그램, 해외 성지순례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급여 및 기타문의는 010-8221-4900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사찰일을 도와주며
함께 지내실
비구니스님(65세 이상)
모십니다
조계종 공찰이며
700여년 역사의
전통사찰입니다
010-3501-02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010-8576-44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구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시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대주스님의 영기수기도

• 영기수란? 몸속의 사기를 몰아내며
天時地財를 불러드린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밀양)
011-803-2626

행 자 모 집

(50세 미만)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010-2550-631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풍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 (참관가능)
* 매주 토,일요일 치유명상
* 강력한 변화와 힐링(부부,자녀,조상,진로)
2 원네스 깨어남 코스
* 삶의 비밀을 경험하고 성공,번영,건강,성장
* 매주 화, 수요일 저녁 7시 무료명상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문자)

대 작 불 사 권 선 문

큰인연으로 약사여래불 조성불사에 설판이나 시주하여 주시는 분에게 큰스님 글씨와 그림 30여점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으로 몸과 마음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량복덕을 받으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연락처 : 054)853-3855 만허 합장
※ 기도중에 전화가 안될 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산승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622-24-0064-982 (예금주 : 유명혜)
농 협 729-02-117074 (예금주 : 유명혜)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영 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탈 종 공 고

1. 사찰명 : 덕진암 / 법 명 : 성희(조동식)
주 소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동해안로 5277번길 29

2. 사찰명 : 보경사 / 법 명 : 해민(최춘옥)
주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304-3

3. 사찰명 : 보광사 / 법 명 : 성정(조복동)
주 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320

4. 사찰명 : 효심사 / 법 명 : 해광(조영석)
주 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선사로 201

위 사찰들과 상기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비봉사
• 법 명 : 혜봉(이종호)
• 주 소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1리 233-2

위 인과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8년(서기 2014년) 3월 26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수내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 내어 오욕락을 탐하 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 광박엄정불퇴전륜경 -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명상의 집(토굴)
- 위치 : 경남
- 총부지 : 970평
- 건물 : 4동
- 양도금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 1,350평
- 건물 : 33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방12개
- 버스주차장 완비, 산세수려함, 계곡물 철철
- 은행안고 4억 인수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대표: 김의순)

사찰(급)안내

- 경기 사찰 양도
- 목조법당 90㎡, 산신각목조 10㎡
- 요사채100㎡, 토지5,200㎡
- 등산로입구 아늑한사찰
- 주차장 있으며 유원지 부근 임
- 양도가액 : 13억원

(원주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아파트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300만원(조절불가)

010-7733-015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대지 250평
- 법당 목조건물 약30평
- 절경최고건물 4동
- 가액 : 은행2억안고 9억

010-3808-4499
051)925-3800
(주)한길부동산중개 연제구 / 서보호 이재무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4억3천(조정가)

011-645-1361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포교당
- 실평수 : 10평
- 3층건물에3층,2호선출구앞
- 보증금 :1000만원/월세40만원
- 이사비 : 500만원, 위치최적
- 위치 : 서울시내산 및
- 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6억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41
- 대지 : 163평, 법당 10평, 방4개
- 수세식, 현대식주방, 세간일체 양도함
- 법당앞 정원에 5층석탑, 2M석불봉안
- 스님 건강상 싼값에 양도하오니 몸만오셔요
- 가액 : 5천 3백만원

010-8902-7618

조용한 토굴 안내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 실평수 315평, 건물평수 약 11평
- 조립식 컨테이너건물로 내부에 법당, 주방, 세면실, 방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유실수가 다량있으며 주위에 민가가 없는 한적한 곳임
- 가액 : 4,500만원 (도로, 전기, 자가수도, 인터넷 가능) 가격조정불가

010-5269-416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229
- 대지 : 261평방미터(뒤산 국유지사용)
- 건물 : 컨테이너스레트지붕 3×9 1동
- 큰방1, 부엌1, 온수배관
- 현장방문후 마음에 드시면 전화주세요
- 가액:1천 5백만원

010-6536-350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문정동 (전철역에서 3분)
- 2층, 45평, 방3개, 삼존불, 후불탱화 닷집, 원목탁자, 영단, 에어컨 2대 등
- 주차장(6년이상 운영하였음)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2)7620-108번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6898-911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산 와촌 팔공산 갓바위 부근
- 대지 220평, 건평60평
- 1층 요사채,2층 법당, 심야전기, 삼존불, 삼성각, 용왕당,쑥뜸방
- 즉시법회가능, 스님, 법사, 보살님 역학하는분 조건좋음
- 가액 : 전세 5,000만원 월세 무, 시설비 무
- 시설비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됨

010-7317-88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 신축사찰
- 대지 250평
- 신축법당(20평) 2011년 준공 신축요사채(34평) 2012년 준공
- 대전에서 15분거리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486-12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상사
- 법당 10평, 친견실 10평
- 공양간 16평(옥상사용)
- 주차용이, 아파트밀집지역
- 보증금 천오백 월세 90만 시설비 2,500만원 법당내단집
- 집기모두 새물건임

010-7236-18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중구 번영로 613번지 3층
- 43평, 삼존불, 산신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40만원

011-850-968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내 중심지역
- 상가 2층 55평
- 언제든지 법회 가능
- 보증금 : 2천만원 월66만원 시설비 별도 상담 요망
- 스님건강상 급 안내

010-9018-6656
033)533-994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오거리
- 대지 64평. 건물 2층 슬라부주택 3층 조립식 건물
- 요사채 : 1층 약 30평, 2층 약19평, 법당 3층 약 16평
- 삼존불 3자, 2.5자<동불> 약사여래불 목불 3.5자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융자 1억 포함>
- 주변 아파트 및 준상가지역

010-3409-450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에 위치
-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시설일체 완비(몸만오시면 됨)
- 평수 : 43평
- 보증금 4,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200만원

010-8505-0101

사 찰 안 내

- 울산시 울주군 (신복로타리15분거리)
- 건평180평, 대웅전(삼존불) 25평, 지장전, 삼성각, 공양간 외방 8개, 이쁜 용왕당 연못있음
- 가액 : 보증금 4천만원, 월 30만원 (인테리어되어있음)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4855-7205

사찰기도요양원터안내

- 위치 : 청원군 낭선면 지산리
- 임야 20,000평, 청주 15분 거리
- 남향 기가 살아있고 좌, 우 산이 폭싸여있으며 전망이 아주 좋아요
- 사찰 기도원 요양원적합

010-6231-05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동부리
- 3층, 평수 49평
- 보증금 5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 비품비 3천만원

010-2304-76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점촌시 동로면 생달리
- 목조법당 25평, 요사 콘크리트 50평, 심야보일러
- 텃밭 다소
- 가액 : 전세6천만원

011-9731-1415(주인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0-4561-214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무학산 입구
- 큰스님 계시던 암자
- 2층 건물
- 1층 30평, 2층 25평
- 가액 : 전, 월세(1천3백, 월15만원)

010-3263-9766

도심속의 암자(급)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 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사 찰 안 내

- 위치: 원주 IC입구 대도로에서 200m지점 교통편 시내버스 5분 간격으로 있음
- 2층 단독주택 도깨비터 심야전기 방음완벽 소각장 설치, 마당있음(주차가능)
- 1층 입법당 - 에어컨설치 방2개 거실, 주방, 화장실 1층 요사채 - 원룸, 주방, 화장실 2층 삼성각 방1개, 화장실, 에어컨설치
- 가액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절충가능!

033)735-5943
010-6440-5943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7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청 평 한 옥

- 대지 : 199평
- 건평 : 30평
- 방 3, 욕실 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 7천 5백만원

010-9411-5302

서울 최고의 명당수행터

- 삼각산보현봉 전체산야가 펼쳐보이고 기를 받는 서울중심의 명상치유터
-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각산자락 큰스님 수행터(조계사 20분거리)
- 천혜의 힐링산책로 품고있는 위치
- 실건물은 약30평, 한옥식 단독주택임 이용하는 토지는 약 300평 이상임
- 가액 : 3억2천 직접 방문요

010-8800-322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안평면
- 대지 94평, 건평20평, 황토집(법당, 방2칸)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500만원

010-3911-3646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시장건물 4층
- 평수 : 약50평 및 계단 옥상사용
- 삼존불, 소불 600외 탱화일체
- 보증금 1,000만원 월77만원 불사금 2,700만원
- 경남 산사 불사 완료 관계로 이전

010-9296-60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고려대 사거리 부근
- 방3, 거실, 3층, 도로변
- 임법당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400만원

02)6085-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대지 324평, 요사+인법당 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일억원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약 82평(법당, 산신당, 방3개, 공양간1)
- 5층 건물중 2층
- 지하철(자갈치역) 5분거리, 버스정류소 2 ~ 3분거리
- 보증금 : 2천만원, 월 66만원 시설비 2천9백만원(절충가능)

010-3869-6799

경남에서 포교하기 좋은 오래된 사찰

- 위치: 마산에서 10분거리
- 목조 토기와 25평
- 요사채 35평, 대지 200평, 산신각
- 전망 최적
- 가액 : 3억

010-5494-64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743번지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대지175평, 뒷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아늑하고 편안한 도량
- 가액 : 2억

054)776-5482
010-5439-123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경대리
- 총대지 : 156평
- 법당, 요사채 2
- 가액 : 2억(절충가능)

011-540-6549
010-7169-1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아양로 15길 15 대구 파티마 병원 옆
- 1층 약 25평
- 관음보살님2자1위, 소불 10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8786-614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고려대 사거리 부근
- 방3, 거실, 3층, 도로변 임법당
- 가액 : 500만원 / 40만원 시설비 400만원

02)6085-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동남구 동면 천안 목천톨게이트에서 10분거리 진천에서 10분거리
- 대지80평, 텃밭 330평 정원도 완벽함
- 2층 법당30평, 아래 요사채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6천만원

010-3723-6640

남도 최고 기도도량 안내

- 위치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공원내 1등 바위 밑
- 법당(대웅전), 요사채, 창고,
- 문화재-조선중기 석불 1점, 집샘 1점, 주차장에서 5분거리(바로 법회 가능)
- 점유부지 400평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644-0408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4천만원(가격조절가능)

010-7466-770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 1
- 3층 25평, 법당(삼존불), 방 1 옥상, 옥탑방 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7139-55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 시장입구
- 실평수 85평, 법당 약 30평, 큰방2, 종무실, 다용도실, 욕실(게르마늄 황토 찜질방) 주방(시설 1년 안됨)
- 보증금 1,000만원, 130만원 시설비 3,300만원. 협의절충
- 몸만오시면 됨, 부재시 문자 주세요

010-3606-244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1, 주방1, 화장실1
-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3,3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가능)

011-309-3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남녘 낙동강 기슭 명산
- 하루종일 태양이 지지 않는 명지
- 캠프카공원옆, 60번시내버브종점 150미터
- 사찰진입로 길2개, 대웅전1, 산신각1, 집무실1, 공양간1, 방6, 창고3,해우소1, 사무실1, 주차장 산 절부지 2500평
- 안에 밭500평, 100년 넘은 금동지장보살
- 주지스님 꼭 하실분만 연락
- 가액: 2억

010-2670-409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대지 : 21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80평
- 도시가스 취사난방 설치
- 가액 : 6억 9억(은행융자 3억원)
- 절충가능

010-6237-5964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8505-2032

현존수업

마이클 브라운 (저널리스트 · 남아프리카공화국)

〈7〉 용서를 통해 평화 깨닫기

연민·겸손·나를 용서하는 능력을 키우자

나는 자신을 용서한다

현재의식의 당신은 이렇게 물으리라.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동일한 경험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각인된 감정이 영속시키는 곤경이다. 이것은 전체 인류의 가슴에 난, 벌어져 있는 상처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랑은 아프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건이 아픈 것이지, 사랑은 아프지 않다. 사랑은 어떤 하나의 상태다.

현존 수업에서 당신은 각인된 감정이 만들어내는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을 점차로 배우게 된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감정 계발의 결과는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조건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조건들이 하나씩 둘씩 제거되면 당신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인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새로운 인식은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누적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현 순간의 자각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접한다.

당신이 현 순간의 자각 속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인간의 조건에 내재된 곤경에 관해 당신이 얻는 통찰로 온다. 그러한 통찰 중 하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조건 없는 사랑의 경험을 갈구하고 있다는 통찰이다. 설령 그들이 증오에 차 있더라도 그것은 사실 사랑을 갈구하는 왜곡된 외침이다.

자각하는 힘이 생기면서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만 같은 이 느낌은 곧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당신 자신의 행동' 이 자동으로 반영돼 나타난 것이다. 당신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신들의 감정적 곤경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 따라함으로써 이 같은 행동을 터득했다. 또 당신의 부모님은 각자 자신들의 부모님을 보고 배웠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으로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주고받음'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세상 속에 머물면서 무조건적 사랑에 깨어나는 열쇠는 이것이다. 곧 깊은 심해에서 신선한 공기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처한 곤경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이 지어내고 있는 드라마를 스스로 비웃을 수 있게 된다. 웃음은 우리가 찾고 있는 약이다. 자신의 드라마를 스스로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자기용서가 진짜라는 증거다.

자신에 관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이 어렸을 적 무조건적 사랑을 구할 때 각인됐던 감정적 누적물의 울림을 따라 무조건적 사랑을 구할 때 각인되었던 감정적 누적물의 울림을 따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의 질이 어떻다고 인식하든, 그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감정체에 각인돼 있는 것을 통해 바라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곤경을 정신적 차원에서는 이해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각인된 조건 때문에 당신에게 가한 상처에 대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당신의 일면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불쌍한 당신의 아동기 자아의 일면이다. 어렸을 때 조건부로 사랑받은 경험과 관련된 감정의 누적물 말이다.

분노, 타인에 대한 비난의 필요성,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감정 진화의 길 앞에 놓인 가장 커다란 장애물을 직면해야 한다. 그 장애물이란 바로 '오만' 이다. 오만은 당신이 처한 곤경이 상대방의 경험 속을 지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오만의 결과는 당신이 자신의 미숙함은 쉽게 용인하면서도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화를 낸다는 것이다. 이 분노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타인들, 특히 당신의 부모가 자신들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만과 그것이 불러오는 화를 중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단순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목격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행동이 아닌 모든 행동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들의 무의식적인 갈구라는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어른들은 내면의 상태를 숨기는 데 명수이기 때문이다. 어른인 우리는 '만사가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하는 데' 선수들이다. 어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좋고' '문제가 없으며' '나쁘지 않다.' 그러나 성인 세계의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감정 상태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신이 만나는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안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지 못해 두려워하고 화내는 무너진 가슴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찰이 인식을 해방시켜주는 열쇠이다. 이 통찰은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나가야 할 입구이다. 이 통찰이 모든 참된 용서의 근본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때, 당신은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갈구를 그것이 아닌 뭔가 불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이른다고 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판적인 마음이 되지 않게 해준다.

심판은 오만이며 이율배반이다. 심판은 한편에서는 당신이 우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이 행동하기를 고집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훈계를 하려 든다. 하지만 심판의 가장 해로운 결과는, 자신과 타인들을 만유의 본성인 현존과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요컨대 심판을 통해 당신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처해있는 곤경을 두고 상대방 탓만 한다.

그러니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받기를 바랐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써 부모님을 용서하고 축복해드림으로써 이러한 인식상의 폭력행위를 해결하기로 하자.

이 단 한 차례의 사랑의 행위만으로 당신은 당신 앞의 무수한 세대를 괴롭혀온 비극적인 악순환의 통합을 촉발한다. 이렇게 자신을 해방시킴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현생 경험의 경계를 지나가고 나서 한참 뒤에 올 후세들의 경험 속에 평화실현 가능성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품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이제껏 다른 사람에게서 구해온 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매 순간 경험하는 것에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느끼는 것' 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당신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행위이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깊은 심해에 한 모금의 신선한 공기를 내뿜는 행위다.



> 진짜 자기용서란
> 내가 서 있는 무대와 드라마를
> 스스로 비웃을 수 있어야
>
> 타인에 대한 분노 · 비만 · 복수
> 감정 통합을 위해선 '오만' 버려야
> 타인을 심판 · 분별 하는 것이야말로
> 오만이며 이율배반적인 행동
>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가 '감정통합' 도구

용서를 위한 기도

현존 수업 여행의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 유일한 방법이란, 그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던 때 각인된 감정적 누적물의 울림,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충동이다.

이때 당신의 오만이 그들이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각인된 감정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들의 파괴적 행동은 그들 속에 각인된 감정의 산물이므로 그들이 당신을 아무렇게나 짓밟고 지나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용서하는 태도로 사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호락호락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을 그 행동으로, 그러니까 그에게 각인된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인식적 접근법일 뿐이다.

기도는 오만을 중화시키고 평화에 대한 자각을 회복시키는 도구이다. 오만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 처한 곤경을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과 연민, 감정적 성숙함을 달라고 기도하자.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보자. 그러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고, 당신 또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만의 반대인 겸손을 달라고 기도해보자.

나는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현존 수업의 관점에서 욕구(need)란 인간 경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컨대 음식, 물, 공기 같은 것이다.

현존 수업의 관점에서 욕망(want)이란 무의식에 각인된 감정이 불편한 상황을 야기할 때, 당신이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찾는 무엇이다. 욕망은 당신의 누적된 감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편을 억누르거나 통제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당신의 자각을 둔화시킨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불편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결과역시 불편함일 수 밖에 없다.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정의에 따라 움직일 때, 당신은 오직 욕망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욕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은 조작한다. 그러나 욕망하던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내도 당신은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인 정의는 그 본질이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이 찾고 있는 무조건적인 경험을 결코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렇게 그것은 '난 만족해' 하는 느낌을 당신에게서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다. 오직 '조건 없는' 울림만이 '만족' 의 경험을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조작하는 한, 자신의 필요에 성숙하게 응답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당신의 필요조건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필요조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훼방을 놓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에 관한 무의식의 정의를 통합하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필요조건을 구별해 그에 따라 의식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욕구' 를 신체의 중요한 영양공급원으로 인식하고, '필요조건' 을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공급원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돼야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조작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만 비로소 당신은 조작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른 무엇으로 바꿔놓으려는 시도' 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무조건 함께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작행위를 부추기는 각인된 감정적 누적물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통합한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마이클 브라운이 쓴 〈현존수업〉(정신세계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교보생명 옆, 울산시청 앞
• 법당, 거실, 방2,
주방, 화장실 별도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650만원
010-6631-6426
051)808-63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IC 부근
• 법당 삼존불 , 약사여래기도도량
• 완벽한 법당 시설, 즉시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텃밭, 주차장 시설완비
• 가액: 1억 (절충 가능)
010-2575-98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진구 부전역(기차역) 앞
• 시설완비(삼보전, 지장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상호절충)
010-6631-6426
051)808-634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상계동(영험한 기도도량)
• 사용공간 약200평, 텃밭, 산신각,
용신각, 나한전,
• 법당 및 요사채 약 40평,
• 가액 : 양도 3억 전세1억 2천,
월세 8,000만원에 40만원
010-5299-978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교보생명 옆, 울산시청 앞
• 4층 건물중 3층, 법당1, 방1,
공양간1, 화장실
• 총 5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8928-949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2동 동구시장
대구은행 옆 버스정류장 앞 3층
• 평수 30평, 위치 시설 A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700만원
010-7740-600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대성동
• 평수 : 법당 25평, 삼존불
• 요사채, 주차시설 완벽(50평)
• 도로변 위치, 시설 완벽으로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010-8829-1199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대로변
• 3층 건물에 2층(3층 옥상사용가능)
• 지장보살님, 약사여래, 종
• 내부수리 깨끗,법당, 주방1, 상담실1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8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3293-17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별장같은 사찰안내
• 위치: 충남도청10분 도립공원등산로
• 총평수1,020평(대지:190평. 전 830평)
• 황토건물50평(법당 및 요사체1. 2층)
• 마당에는 400년된 느티나무.
오래된돌담. 연못조경
• 옆 큰저수지. 자연경관최고.
• 가격 : 8억8천
주인직접 010-9805-5528

토굴(급)안내
• 주소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 대지326평 법당.요사채.삼존불.지장.신중.
• 칠성탱화, 방5개
• 정부지원금 5천만원가능
• 가액:7천500만원
010-4296-8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 평수 :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주차장시설 완비
• 가액: 2억 6천만원(시설비 포함)
011-895-225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010-2503-3899

선원, 포교원 임대
• 위치 : 함안군 산이면 신산리 1292-3 입곡유원지 입구
• 부지 444㎡ 134평, 임대건축면적(별관제외)
• 1층 14㎡ 4.3평 / 2층 167.9㎡ 51평 /
3층 150㎡ 45평 / 4층 15.4㎡ 4.7평/ 계 347.3㎡ 239평
• 주변 녹지조성, 서쪽 강변 접함, 넓은 주차장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80만원
양지건설 011-874-6562
055)287-146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불로동
• 2층 28평
• 주차장시설 완비
• 보증금 3천보증금, 년1백만원
또는 1천5백만원, 월 40만원
010-4534-6697

포교원안내
• 위치 : 사찰도 할 수 있고,
발효식품과 사찰음식점도
할 수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한옥집 3채가 있습니다
• 가액 : 전세(상담후 결정)
010-3521-6920

갤러리 색즉시공



해당화

절집
마당에
해당화가
가득 합니다.

어간 마루에서
내다보니
지붕보다
키가 더
큽니다.

내 마음의 풍요로움도
이렇게
이렇게
푸르렀으면
합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포교는 어머니 무릎·가정에서부터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20여 년 동안 매월 가정법회 열어

'여여회' 만들고 경전 공부 시작

끝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인생

가정법회 서로 불법 물들이는 일

은행통장보다 '공덕통장' 만들어야

가정법회 20년의 시작

불교를 접하고 신행생활을 하기 전 나는 시서화(詩書畵)와 차(茶)를 공부하고 남편을 섬기며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치중하고 살아왔다. 집안은 언제나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쓸고 닦았으며, 사시사철 계절에 맞는 김치를 담그고, 장을 직접 담는 살림꾼이라고 자부했다. 남편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아내였으며, 밖에 나갔다가도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돌아와 아이들을 맞이하는 등 엄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과 건강하고 품성 좋은 아이들을 섬기는 현모양처의 전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한 스님께서 우리 집에 들르셨다가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시곤, "보살님의 집이 불자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신 말씀이 20여 년 동안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가정법회를 운영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인과, 윤회를 알고는 인생의 단 한 순간도 허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인생을 바로 보고 잘 살게 하는 묘약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처럼 좋은 가르침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집에서 법회를 열 생각을 하게했다.

처음엔 1년에 한 번 집에서 도반들과 함께 법회를 가졌는데, 100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다. 3년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법회를 열자는 데 뜻을 세웠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라는 뜻의 '여여회(如如會)' 라는 모임을 만들고 30여 명이 모여 경전 공부를 시작했다. '우리는 선우' 의 구룡사 사경법회가 있어 권선을 하다 보니 몇 사람이 집에 와서 공부하는 모임이 되었고, 차츰 인원이 많아진 것이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교육이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도 교육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을 끝내고 나면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교육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을 불교를 만나고 법회를 만들고 경전을 공부하면서부터 알게 되었다. 끝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배우고 또 배우며 그 가운데서 깨우치고 또 깨우치면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나올 때 사람은 다시 한 번 성장한다는 것을 알았다.

불교에 입문해서 보니 경전을 공부하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겠다는 생각에서 법회를 열고 경전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무릎포교, 무릎전법이라는 말을 자주 써왔는데, 이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포교를 의미한다.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무릎에 앉아 커가는 것처럼, 포교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정법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한 달에 한 번씩 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면서 20년 동안 '내가 부처님 법에 물들면 가족이 물들고, 가족이 물들면 이웃이 물들고 이웃이 물들면 사회가 물들면서 서로 서로 물들어가는 신앙의 띠잇기 운동을 펼쳐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가족이 응원해준 힘이 컸다.

우리 가족은 1996년 해인사에서 가족수계를 받은 이후 남편과 두 아들은 방이동에서 가정법회를 꾸리던 나를 "방이동 포교국장"이라고 부르며 응원해주었다. 해인사 수계식에서 남편은 우담(雨潭), 큰아들은 호경(湖庚), 작은 아들은 삼현(三泫)이라는 법명을 받고 온 가족이 진정한 불자가 되었다.

공부를 하려면 청정한 도량, 훌륭한 스승, 신심 깊은 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여여회는 이 세 가지 여건을 잘 갖춘 모임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우리 집이 비록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곳이지만 법회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안심과 행복을 주는 법당이 되기를 기원하며 살았고, 해인사 종진 스님은 지도법사로 오랜 동안 먼 걸음을 하시며〈승만경〉,〈옥야경〉,〈육방예경〉,〈삼귀오계〉,〈묘법연화경〉,〈무량의경〉,〈보현행법경〉등을 법문해 주셨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18년 동안 법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소임을 맡은 여여회 회원들의 성실한 신행이 큰 역할을 했다. 그 달 경전공부의 내용을 녹취, 이를 컴퓨터로 문서화해서 복습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도반들이었다. 따로 회장이나 운영진을 선출하지 않고도 회원들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은 경전 위주의 교리공부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사찰을 찾아 다양한 보시행을 펼쳐왔다. 도반들이 살림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경전에서 '나눔(보시)' 을 가르쳤던 덕분이었지 싶다.

거조암, 운주사, 연흥사 불사를 비롯해, 경전이 필요한 사찰을 찾아 한글대장경, 티베트대장경 등을 봉인해서 1만여 권 이상을 법보시했다. 불사엔 남편도 동참해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기울던 절이 불사 후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도반들은 나의 공덕을 얘기하지만 거꾸로 그 도반들이 없었다면 이렇듯 오랜 동안 가정법회를 지속해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은행통장은 숫자로 보이지만 '공덕통장' 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은행 통장에 숫자가 쌓이는 것보다 공덕통장에 공덕이 쌓여야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법화경〉에 보면 '서원안락행(誓願安樂行)' 이라는 말이 있다. 서원이 크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즐겁게 하게 된다는 뜻인데, 정말 20년 동안 나와 인연있는 이웃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했던 것 같다.

가르침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불자는 불자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를 자주 강조했다.

장자에 보면 한 푼의 추를 만드는 팔십 먹은 장인도 그 도에 이르기까지 저울추를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일만을 해왔다는 글이 있다.

여럿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여럿이
여여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여원 원장〉

동의보감 옻나무 손발이나
아랫배가 냉한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관절 결림에..
(장수버섯 옻 탕 처방하는 한의원 효능에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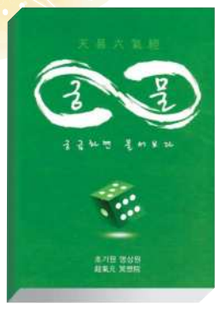


참옻나무티백 (국산) 자연야생 장수버섯 (국산)

- 독성제거허가 옻나무티백 1.8kg + 장수버섯 80g = 원료 (1개월분) 60팩 위탁가공비 배송비 포함 15만원
- 옻나무에 장수버섯을 첨가하면 독성이 좋은 물질로 증가됩니다.
- 전통 가열방법 옻나무 법제만 진한 황금색이며 약간의 단맛이 나며 복용하기 좋습니다. (한의원에 공급되고 있음)
- 옻 독성제거 특허 10-0994377호 장수버섯 옻 탕의 옻나무는 과학적으로 수족냉증, 위장허약,관절염에 효능 ① 특허10-0807169 ② 특허10-0007471 장수버섯은 혈전용해 특허10-1011650 규명되어 있습니다.

1944년생 개발자 황보병호
010-5556-1526 홈페이지 amesil.kr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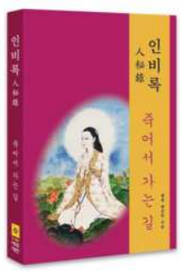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인·한웅·단군 이야기)
대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족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처용서림
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절찬리 판매중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한 생을 버리고서라도 탈피하겠다 하고 실천해야



그림 · 최주현

봄이 오니깐 활동하시기가 좀 유하시죠? 아주 추울 때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봄이 와도 살기에 좀 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데 세 가지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순응해야 하고, 둘째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셋째는 시대에 따라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날 때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그거는 불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이 정신세계의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한번 숙고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나가면서 갖가지로 생활에 얽매이죠. 그러나 만물에 대해서 한번 거론해봅시다. 모든 생물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새들이든, 어떤 곤충이든, 개든 고양이든 모두가 자기 분수를 안다 이겁니다. 말이나 소나 개나 돼지나. 돼지는 자기가 돼지인 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새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오직 한 군데에다 몰두하고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건이 주어지면 개는 개로서 사는 방식을 허탈하게 보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인간처럼 아주 악순환을 겪고 얽히고설킨 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집착과 관습에 의해서 그냥 얽매이고 살지는 않죠.

어떤 큰스님이라든가 어떠한 사람들이, 또는 사대 선지식들이, 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끄달려서 아예 한 발짝도 떼놓지 못하죠. 부처님께서도 '말에 끄달리지 말라. 뜻을 봐라. 뜻에 따라야지 말에 따르면 안 되느니라. 그 말을 들어서 뜻을 가지고 행하라.' 이런 말씀 하셨죠. 사람은 그렇게 얽매이고 지내는데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아주 편리하게 얽매이지 않고 산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 때문이냐 하면은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분수를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얽매이고, 집착에, 욕심에 분수를 모르고 끄달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아니, 모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자기 다리가 긴지 짧은지 그걸 모른다면은 개천을 건너 뛴다 하더라도 아마 개천 중간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자기 다리가 짧은 줄을 안다면 뛰지를 않겠죠. 넓은 데는 뛰지 않고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만 뛰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개천이 넓으나 좁으나 막론해놓고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부하는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분수를 안다면 나부터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지, 말을 많이 들어서 첨단을 넘어서려고 기어오르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건 자기 자리도 모르는 그런 위치가 되죠. 자기 내면의 자기가 철저하게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생중생들은 제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모양 같습니다. '어떡하면 빨리빨리 알아질까? 어떡하면 빨리빨리 깨달을까?' 하지만은 내 자생중생들부터 한마음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내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줄 알게 되고, 자생중생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또한 자생중생들이 둘 아니게 돌아갈 줄 알아야 내가 둘 아니게 돌아갈 줄 알고. 그러니만큼 모든 것은 자생중생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제도를 해야 내가 제도를 받고,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내가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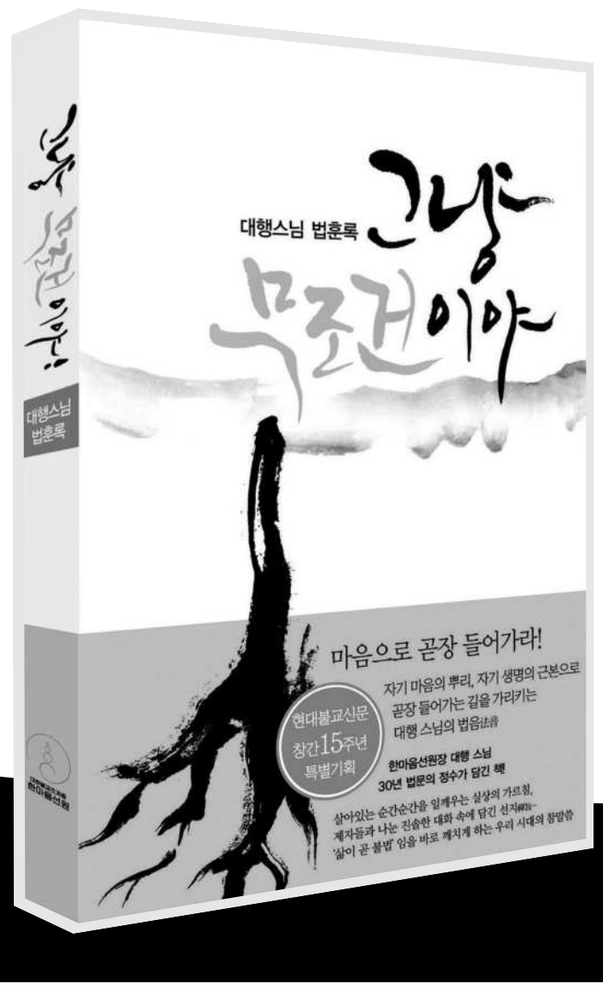
하물며 물에서 사는 생물들도 각층의 차원을 가지고 각층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모두가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가 공식(共食)하면서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동시에 자기가 놀고 있는 그 집이 엄연히 있어서 테두리를 질서정연하게 찾고 또 질서정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노는 데서 놀고, 게는 게대로 게 노는 데서 놀고, 각계각층이 자기 노는 데서 논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방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집 찾아가느라고 허덕이다가 죽고 하는 걸 보면, 난 그 생각이 가끔 나요. 해방이 되고 나서 차 대가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오다가 다 그냥 떨어져서 죽고, 머리통이 깨져서 죽고, 다리가 부러져서 걷질 못하고 쓰러지고 이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고기를 방생한다고 풀어놨을 때 제 집 찾아가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과 같았어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게? 자기네들은 무심코 그냥 잡아다가 또 갖다가 넣고 또 잡아서 가둬놨다가 또 풀어놓고 이러는데, 그거는 오히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망친 거와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 진짜 방생인지도 모르면서, 실천도 못하면서 그림자로만 왔다 갔다 하고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갈대와 같이 쓸리는 마음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입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모릅니다. 제자리를 찾아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냥 잡아먹히고 그대로 추방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깐 말입니다. 그런 이 아래, 하의 동물이나 아래 하의 생명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를 자기가 알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새면 새라는 걸 알고 미꾸라지는 자기가 미꾸라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는 데 대해서 조금도 애타게 고(苦)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化)해서 진화가 되고, 진화돼서 인간으로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걸 가만히 보십시다. 여러분은 애고(哀苦)가 많으니, 고(苦)가 많으니 병고가 많으니, 온통 야단들인데 난 병고다 애고다 고통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고통을 받아보신 분들이 그 낙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고통을 모르면 남의 고통도 모르고, 또 사람이 발전을 해서 진화돼서 창조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동시에 평등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재료로 알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무리 빠져나가려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치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알아야 될 일인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허허, 그걸 말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잘 비벼서, 비빔밥을 해서 맛있게 해서 먹게끔 하고 나중엔 소화를 잘 시키고, 나중에는 대변을 잘 눠서 속이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도 때로는 부실할 때가 많습니다, 표현이 여러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빨리 깨달으려 말고 나부터 발견하려고 애를 쓰세요

☞ 29면에서 계속

분한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십시다. 영화를 찍는 데 미리미리 대사나 모든 것을 촬영해가지고 영화를 찍지요? 인간들도 자기가 살아나가는 데에 자동적으로 촬영이 되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을 해나가는 영화를 돌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화 제작이 되고, 또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대사와 모든 것이 그렇게 정신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할 때에 때에 따라서 국민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잘못됐다.' 하고 말을 하면은 좀 고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80%, 90%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벌써 그렇게 역할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그래서 자기가 한 것대로 방영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요만큼도 빈틈없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태양계가 모든 행성을 이끌고 다니되 태양이 잘나서만이 아니고 행성들이 잘나서만도 아니에요.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이렇게 공용(共用)하는 겁니다. 공식(共食)이 없다면 공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성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움죽거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이 도리를 확실히 안다면 한 치도 어긋날 게 없고, 진리에 순응하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생활도 시대에 따라서 용어가 변천되고 바뀌고 하는 대로 발전이 돼서 아마 시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만이 아주 적절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신세계의 이 마음공부를 안 한다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정신계와 통해야 한다는 거를 추려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저 우주의 근본과 직결이 돼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가설이 돼 있다고요.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가지고 나온 거죠.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은 내가 나온 게 바로 화두요, 앉고 서고 생활하는 게 그대로 참선이요, 그 모든 살림살이하는 것이 바로 자기기 때문에, 붙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자기기 때문에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정신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정신세계와 통해야 우리가 정신세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옷을 벗고 이 정신이. 즉 말하자면 원자가 발전을 해서, 은하계라든가 태양계라든가, 만약에 거기의 지배자가 된다면, 수명은 더 길어지고 모든 각계각층 중생들을 다 건지게 되고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나가 다 내가 되지 않는 생명들이 하나도 없고, 나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한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양계의 지배자라면, 모든 행성, 혹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의 줄에, 염주알이 한 줄에 꿰어서 돌아가듯이 다 돌아갑니다. 진리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인간의 한마음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서로가 주고 받고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共食)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을 제도해가지고 내가 깨쳐가지고 통해서 보면은, 모든 게 나 아님이 없고, 모든 게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든 게 내 삶 아님이 없고 그렇죠. 이 도리를 완전히 터득해야만이 태양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태양계의 지배자가 된다 하더라도 딴 행성 혹성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행할 줄 알아야, 또 그 오신통(五神通)에서 벗어나야 누진(漏盡)이 된다고 그랬죠? 누진은 한마음의 한 클럽입니다, 전체가. 우주에 관한 건이나 이 진리에 관한, 이 세상살이 만사에 관한 건이나 모든 게 한데 귀합된 지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열반계에 이르러야 된다, 구족해야 된다.' 이런 뜻은 뭐냐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모두 커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응(應)해줄 줄 알고 모든 걸 그렇게 해야만 되고 또 앉은 자리에서 자기 원자에서 입자로서 수만 개로 자기가 화(化)해서 모든 다른 혹성이라든가 다른 위성이라든가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인간 생명들에게 모두 응해줄 줄 알아야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우물에서 산다면 우물의 이치만 알지 연못의 이치도 모르고 바다의 이치도 모른다 이 소립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광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닭이나 개나 이런 거 본다면은 닭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태로 형성돼서 열 달이 돼야 이렇게 낳죠? 그런데 닭이나 그런 거 보면 금방금방 낳습니다. 금방금방 낳아요. 금방금방 또 죽어요. 어쨌든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사람은 누가 육신을 건드려서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신을 뺏기고 죽죠. 정신이 빠지면은 송장이 되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정신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자기 영원한 뿌리 자체가 죽는 게 아니라 혼이 빠지면 육신은 송장이 돼버리죠.

얼른 쉽게 말해서 종(種)이라고 할 거 없이 씨라고 그럽시다. 씨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잡종이냐, 선종이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잡종은 유전자의 종수가 그렇게 많은가 하면, 선종의 종자도 또 그와 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하나의 원자에서 한생각이 나가는 것이 입자라고 한다면, 한생각의 입자가 그렇게 이 우주 전체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 이 소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아마 여러분이 진짜 실감하고 진짜 알아야 되겠죠. 덮어놓고 50%의 물질세계만 끌어 잡아다니는 그 습관, 욕심, 관습, 이게 관습에 얽매여서 모두 헤어나질 못해요. 우리 중들도 그래요. 어떤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 이러면 그 언어조차 어기지 않고 할 양으로들 애를 쓰거든요, 시대는 변천하는데. 시대는 발전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항상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달구지다 하면은 지금 비행기라고 그래야 맞습니다. 먼 데 가는 짐을 나르려면 비행기 아니면 못 나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달구지라는 말을 해야만 옳겠습니까? 시대가 변천하고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 대로 용어는, 뜻은 따르되 용어는 바꿔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자라나가는 사람들한테 전체의, 즉 말하자면 천체의 양식을 먹일 수가 있죠. 이 산하대지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거름이 잘 돼야 잘 살 수 있듯이, 천체의 양식을 먹고 자랄 수가 있고, 지혜롭게 물리가 터져서 잘 자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맞추지 않는다면은, 직결돼 있는 맞춤에 어긋나면은 밝게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만날 보면서도요, 이 불 들어오는 것도 갖다 맞추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지 갖다 맞추지 않는다면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세상과 모두 가설이 돼 있는 이치와 직결이 돼 있는 이치가, 갖다가 삼합이 딱 맞아야 불이 들어올 수 있고, 삼합이 딱 맞아야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삼합이 딱 맞아야 잉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없이 잉태할 수 있습니까? 또 자기 영혼이 없이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 모두가, 이거는 꼭 영화 속에서 우리가 배역과 대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과 같이, 전부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무대 위입니다, 무대! 지금 무대에서 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를 하는 대로 위로 직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녹음이 되는 대로, 입력이 되는 대로, 그 입력되는 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력되는 대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데서 그 입력이 올라간 대로 잘 검토해서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렇지, '자기네들이 깨달았다. 자기네가 잘한다. 자기네가 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자기가 한 사이가 없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처라고 한 예도 없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한 예도 없고, 했다고 한 예도 없고,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한 예도 없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 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같이 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 직결된 뜻으로써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진리에 순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자체가 진짜로 배움이라 생각됩니다. 그저 우리 중들이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고 그러는 게 중들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러되 그거를 아니 해도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아니 해도. 손은 다섯 개 손가락이 있어야 정상인데,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은 이게 정상이 못 되죠. 안팎이 다 동등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도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마라. 예를 들어서, 너를 먼저 알게 되면은 나 자체도 네가 알게 되니, 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그냥 따르라. 세 가지가 종합해서 맞는다면 그냥 따르라. 잘 보고 듣고 이 세 가지에 어긋난다면 따르지 말라.'

지금 가만히 보세요. 덮어놓고 종교라 이름만 붙여놓으면은 그냥, 뭐 아우성을 치고,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부처님께서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부모의 혈육을 받고 나와서, 뜻을 받고 나와서, 고상하고 누(累)가 되지 않게, 자기가 누가 되면은 전체 누가 되니까 누가 되지 않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주 고상한, 제일 가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점잖고 고상하고 알뜰하고 진실하고 선명하게 살아도, 이 모습을 가지고는 얼마 살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몸이 있을 때에, 이 몸이 있어야 상대도 있는 거니까 공부가 되는 거지 몸이 없으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딪침도 없고, 보는 거 듣는 것도 부딪침이 없어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다른 데다 정신 팔지 마시고 오직 한 생을 점프해서라도, 내가 한 생을 버리고라도, 한 생을 점프해서 내가 탈피하겠다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피안의 세계가 바로 탈피의, 그 얽히지 않는 탈피의 세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나가는 데 가정의 안유나 원하고, 나의 에고나 없애기 위해서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보지 않는다면 되돌아나올 수가 없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고통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귀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걸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재료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놓을 때에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듯 녹아지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보지 않는다면 되돌아나올 수가 없고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하고 주인공에다 놓을 때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듯 녹아지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4년 4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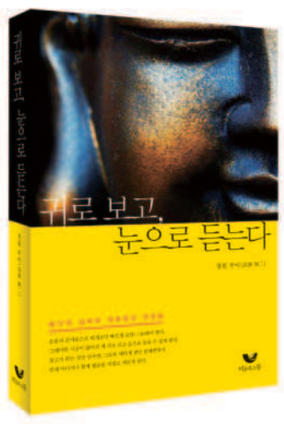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가풍(고함지르는 할·喝이 대표적)을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禪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줄 없는 거문고' 연주하고 '구멍 없는 피리소리' 들으며
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하는 '밑 없는 배'



간화선 수행의 실제와 깨달음의 연금술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청원무이 저 | 46판 | 흑백 | 468쪽 | 15,000원

이 책은 청원 무이법사(지불회 지도법사)의 30여 년에 달하는 진솔하면서도 감동적인 구도기로부터 시작된다. 제1장 평상심의 일상, 제2장 불조(佛祖)의 가르침과 수행의 실제, 제3장 깨달음의 연금술, 제4장 선(禪)의 뒤안길, 그리고 화두 관문인 무이십관(無二十關)으로 구성된 이 책은 파란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해줄 '밑바닥 없는 배'가 될 것이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불자 세상보기

청소년 마음에 봄이 오기를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학과 겸임교수
(올리브명상 상담센터장)

최근 한국건강증진재단이 남녀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고생의 30%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60% 이상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지만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 과 '성적' 이 각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미래는 대학입시와 직결된다고 보면 결국 공부와 성적이 주요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다. 충격적인 것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답변이 무려 64.5%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높아지는 청소년 자살률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고민을 나눈다는 사람은 불과 11.9%이다.

상담을 받는 학생들은 대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와는 대화가 안돼요"라고 한다. 상담할 때 마음 속 이야기를 하며 울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정작 이런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가정은 양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은 많다. 그러나 겉도는 이야기뿐,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사람이다.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된다. "너는 엄마 아빠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니?"

사람은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부모님과 가족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이 마음에 쌓인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공감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성적과 공부 이야기 외에는 아예 대화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금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돼! 안 그러면 남에게 지게 돼!" 하며 자녀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과 감정이 쌓여있는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상담을 받거나 수습하느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

불교의 기본은 모든 사람의 근본을 부처님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는 성적, 돈, 집안, 기타 조건으로 차별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능력있는 사람은 존중받고, 미달된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가치관이 기본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청소년들도 〈힘이 약한 애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집단따돌림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어른들에게 차별과 무시하는 것을 배운 그대로, 다른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 불자들은 입시 기도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함부로 무시해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좋은 학교를 나온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보다 많이 배웠다면 인성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한다. 리더란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라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기본이 무시되고 마음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지식공부만 했지 마음공부를 안 하다보니 '사람을 조건 없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라' 는 기본윤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는 악이 끼어들 수 없다. 남을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면 폭력도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성적이나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두 존중하고 공감해준다면 집단따돌림도 없을 것이고 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공부만 강요하지 말고 고민을 경청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으면 한다. 가정과 학교의 가치관을 청소년들은 그대로 배우고 있다. 성적과 능력 따라 차별당하며 자란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들, 부모님들을 똑같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될 것이다.

우울하고 마음이 추운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들의 마음에 봄이 오고 마음꽃이 피어나도록,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심으로 안아주고 공감해 주었으면 한다.

폭력사회에서 폭력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따뜻한 자비공덕만이 피어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공심공체 에너지가 가득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둘 아니게 보는 평등공법 지구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린다.

발언대

비구니 호계위원 & 군승장교에 대한 단상

한국불교 비구니계는 최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꺼번에 왔다. 한국불교로서는 처음으로 비구니 군승이 선발됐다. 이는 군종장교로도 처음있는 일이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종단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위한 종헌 개정은 부결됐다. 상반되는 두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단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비구니 호계위원 '절대' 안되는가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

2014년 3월 19일, 제 19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또다시 부결되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로 비구니가 호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거부당한 것이다.

비구니가 종단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비구의 갈마에는 비구니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기까지 했다.

비구니가 비구니를 갈마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데, '단지 비구니라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비구니는 호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종단 입법부의 인식 수준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표결방식을 만장일치가 아니라 비밀투표로 하자고 주장한 스님도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맞게'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 계파의 대표인 의원스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계파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찬성해달라고 했기에,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투표결과 전체 60명의 참석의원 가운데 반대표가 20표가 나와 부결되었다.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한 마디도 못하면서, 비밀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용기도 없고, 소신도 없으며,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부승가의 한 축인 비구니승가를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며, 어떻게 자성과 쇄신을 완성할 수 있을까?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포교 앞에서는 금녀의 구역이 없다"



장성화
군종교구 기획실장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 군승이 탄생했다. 4월 육군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7월 정식 임관될 예정이다.

비록 1명의 여성 군승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무엇보다 여성 군종장교의 첫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향후 비구니 스님들의 지원이 늘어난다면 군포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비구니 군승의 역할은 특히 군장병 포교에서 힘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구 스님에 비해 '어머니' 와 같은 감성적인 포교를 통해 장병 상담과 심리치료 등에 확실한 강점이 있다.

비구니 스님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다면 포교 일선에서 새 바람이 일 것이다. 또 법당에서 군장병들이 불연을 맺은데 이어 전역 이후에도 불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선 포교현장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에 비해 포교 설계나, 관리 감독 등을 훨씬 잘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일선의 노후화된 군법당 정비나, 다양한 민간인성직자들과의 관계 또한 개선될 것이다.

또 그동안 정체였던 군승 지원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지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번 파송되는 비구니 군승은 1명이지만, 향후 추가 파송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첫 파송인 만큼 안팎에서의 기대가 크다. 이제 군종교구는 물론 종단 차원에서도 비구니 군승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비구니 군승의 파송은 이제 시작이다. 군포교의 새로운 시작에 불자들이 성원을 모아야 할 때이다.

社說

법인법 손질 빈틈 없어야 한다

조계종 승려와 사찰이 만든 법인들을 종단 등록해 관리하는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중앙종회 제197차 임시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는 소식이다. 제기된 비판 중에는 본지 제983호 1면 기사를 통해 지적했던 규제조항 개정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었다.

중앙종회의원들은 총무부 종책질의를 통해 종단 관리 법인에 대한 정의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총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법인 이사의 1/3을 조계종총무원장의 추천을 거쳐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은 자로 구성한다' 는 조항을 비롯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총무원에 보고 · 승인해야 하는 것 △법인 임원을 총무원장이 요구하고 이사회의 처리를 강제하는 점 △법인 산하 사찰 등록을 금지하는 것 등을 규제조항으로 보고 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재 법인법으로는 법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서인 총무부도 질의 답변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사견임을 전제하고 "종헌 9조 3항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면서 "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 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은 제외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모법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총무원은 법인 등록 시행을 1년 연장하려했지만 선학원과 갈등 중인 수덕사 측의 반대로 3개월 연장에 그쳤다.

법인법은 분명 필요하다. 종단 사찰과 종도들이 만든 법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관리하는 것은 종단이 해야 할 일이다. 제대로 된 법인 관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법인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석굴암 진단 한시름 놓았지만…

올 초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받은 경주 석굴암이 일단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안심이다.

문화재청이 3월 20~21일 석굴암 보존에 만전을 위해 문화재 보존 국제 전문가들과 현지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는 이탈리아인 조르지오 크로치 박사와 클라우디오 마르고띠니 박사가 참여했다. 조르지오 크로치 박사는 1995년 석굴암 석굴을 진단한 구조안전분야 전문가로 피사의 사탑, 이집트 카프라 피라미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 등 세계적인 주요 문화재 복원에 참여한 베테랑 전문가이다. 마르고띠니 박사도 이탈리아 환경보호연구소 지질학연구부 소속으로 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사업, 요르단 페트라 암석 붕괴 모니터링, 몽골 바양노르 고분 보존사업 등에 참여한 실력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굴암에 구조적 문제는 없으나 석굴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외 전문가들까지 와서 일단 현재는 구조적 안전을 다시 확인했으니 한시름은 놓았다.

하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경주 석굴암은 단순한 성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한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계는 물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석굴암 보존에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하반기 정밀조사를 진행하며 이 조사에서는 본존불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범위를 넓혀 돔 천장을 비롯한 석굴 전체로 범위가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굴암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큰 성보이며, 우리 역시 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과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완벽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목탁 스님 미얀마 승려 최고 품계 받아

대승권 승려 최초로… 공양금 전액 고아원에 기부 보시행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수여받는 목탁스님



'미얀마 국제 승려 품수 수여식'에 참석한 각국 스님들

'미얀마 국제 승려 품수 수여식'에서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30여 년 미얀마 지원 공로 인정받아
미얀마 대통령 비롯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참여

한국의 한 스님이 남방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최고품계를 수여받아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목탁 스님.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이사장인 목탁 스님은 3월 15일 '미얀마 국제 승려 품수 수여식'에서 최고 품계인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를 수여 받았다.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의 종교성 왕궁 내 오욱 빠따 딴띠 파고다에서 진행된 '2014 미얀마 국제 승려 품수 수여식'에는 테인세인 대통령을 비롯한 아웅산 수치 여사, 부통령 다후다 싸인마웅칸과 우 냔툰, 국회 상원의장 우 쉐만, 하원의장 우 킹아운민, 미얀마 최고 경제대표 우켄쉐이, 32개 부처 장차관과 경제계 인사들 등 미얀마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했다.

미얀마 연방정부 대통령이 주관하는 '2014 미얀마 국제 승려 품수 수여식'은 미얀마 최고 행사 중 하나로 미얀마 달력으로 매년 음력 12월 15일 보름날에 개최된다.

미얀마 종교성 차관의 공식영접으로 10일 미얀마에 도착한 목탁 스님은 미얀마 수도 네피도로 이동하여 종교성 및 문화성 장관들과 환담하고 이번 행사에서 함께 품계를 받는 123명의 각국스님들과 상호 교류를 논의했다. 14일 종교성 왕궁 내 오욱 빠따 딴띠 파고다 강당에서 대통령 주관 공식 환영공양을 받았다. 공양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가사 및 공양물을 각 스님들께 직접 올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미얀마 달력 음력 12월 15일 최대의 불교축제일에 품계수여 및 공양의식 대통령 주관 정부 공식 행사

목탁 스님이 수여받은 최고 품계는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로 대승권 승려로서는 최초 수여다.

품계 수여 여부는 미얀마 종교성 50여 국장들이 1년 여에 걸친 공적확인 작업을 통해 결정됐다.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최종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진행됐는데 목탁 스님의 경우 수여심사 최초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목탁 스님은 30여 년 동안 미얀마 불교교류와 미얀마 내 고아원 운영, 떨라신 학교 지원, 식수우물지원, 신뿌의식 지원, 화장실 지어주기, 기술대학 설립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최고품계를 품수한 목탁 스님은 향후 미얀마 내 모든 교통에 대한 편의와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최고 의전 등이 보장된다.

미얀마 품계는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가 최고의 단계로 '아까(AGGA)'는 '최고, 가장 위'라는 뜻으로 최고의 품수를 의미하며 '마하(MAHA)'는 '크다',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SADDHAMMA JOTIKAD HAJA)'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성스럽고 의로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그 아래 단계로 '마하 사다마 조디까 하자 MAHA SADDHAMMA JOTIKAD HAJA'와 '사다마 조디까 하자 SADDHAMMA JOTIKAD HAJA'가 있다.

목탁 스님은 2007년에 최고품계 전 단계인 '마하 사다마 조디까 하자' 품계를 수여받은 바 있다.



미얀마 연방정부 테인세인 대통령 내외의(사진 오른쪽) 가사 공양 모습.



아웅산 수치여사가 목탁 스님에게 공양금을 보시하고 있다.

> "가장 높고 가장 넓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성스럽고 의로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우싼신 종교성 장관내외가 보시하고 있는 모습



우켄쉐이(경제수장, 국회의원)



테인세인 대통령 3시간여 동안 법회 주관

미얀마 네피도=영업부 이동격부장
jabi1522@hyunbul.com

국제 불교 지도자협회 봉사단 행사 동참



밍글라돈 아유디가 고아원 공양금, 보시품 모두 보시

공식 행사를 마친 목탁 스님과 봉사단 일행은 3월 16일 300여 명의 고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양곤 밍글라돈 인근 아유디가 사원(원장 아나야원타) 내 고아원을 찾아 보시받은 1200불의 공양금과 10개 포대 분량의 공양물에 한국에서 가져온 봉사단 공양물 모두를 전했다.

정성금, 공양품 모두 아유디가 고아원에 보시행
마정수기, 아웅산묘소 참배, 쉐다공 파고다 순례

스님과 일행은 또 양곤 북쪽 훌라잉따야 지역 '한국기술대학'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4월부터 공사 재개를 확인했다. 이어 양곤 까바야 파고다에서 마정수기를 봉행하고 양곤 아웅산묘소에서 추모기도를 봉행하였으며 미얀마의 상징인 양곤 쉐다공 파고다 순례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봉사단 일행은 10일부터 14일까지 바간, 헤호, 짜익티오 등의 성지순례 일정을 소화했다.

목탁스님 약력

- 現 미얀마 연방정부 미얀마 문화원장, 미얀마관광청장
- 現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 現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 現 외교법인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이사장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現 법무부 교정위원 35년
- 現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 포장.
  법무부 장관, 종교성 장관 및 기관장 표창, 감사장 80여회.
  대한불교조계종 3회 포교대상 원력 수상.
- 2007년 미얀마 대통령 'MAHA SADDHAMMA JOTIKAD HAJA' 품계 수여
- 미얀마 정부로부터 공로 메달 및 미얀마 불교수호협회로부터 공로메달 수여
- 2014년 미얀마 대통령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최고 품계 수여

'미얀마 국제 승려 최고품수 수여식'은?

'미얀마 국제 승려 최고품수 수여식'은 매년 동안거 · 하안거와 더불어 미얀마 3대 불교명절인 '더빠웅 라삐'에 열린다. '더빠웅 라삐'는 매년 음력 12월 15일 보름날에 열리는 불교최대 축제일로 1년 동안 수행의 성과를 이룬 스님들에 대한 품수와 함께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재가불자들에 대한 포상 등이 진행된다. 또 이날에는 1년간 불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정성금과 보시품을 스님에게 올리는 공양행사로 열린다.

이 공양행사는 대승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연출한다. 수여식을 마친 123명의 스님들이 오욱 빠따 딴띠 파고다를 나오면 파고다 주변 3km에 걸쳐 재가자들이 이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아웅산 수치여사 등 정제계 주요 인사들을 시작으로 공양은 시작된다. 정성금은 물론 가사, 우산, 이불, 책, 건강용품, 쌀, 약품 등 공양물은 10개 포대 분량에 달한다. 이는 미얀마인들이 갖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미얀마 국제 승려 품수 수여식'에서는 목탁 스님을 수행한 천운사 주지 진성 스님, 구룡사 주지 대연 스님 등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소속 스님들과 봉사단 18명도 함께 보시에 동참했다.

대통령, 아웅산 수치여사, 부통령, 상원 하원의장
32개 부처 장차관, 정재계 주요인사 모두 참석
3시간 동안 품계의식 진행 후 보시행사

공양금은 물론 각종 보시품
포대 10개 분량 보시 받아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봉사단 회장 반야성(정영숙) 보살은 "목탁 큰 스님의 쉼없는 인간방생과 봉사실천이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너무나 감격스러우며 하시는 큰 뜻에 작은 도움이나마 된다면 더욱 정진의 노력을 다하겠다. 더 많은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이러한 봉사실천에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닥터 우꾸마라 종정을 비롯한 미얀마 최고 승려들 모두 동참



미얀마 대통령 비롯 정제계 인사만 2천여명 동참